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력사와 지리, 문학과 예술,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들에 대한 일반상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나온 인류력사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훌륭하고 뛰여난 기지를 발휘하여 사회력사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수많은 명인들을 기록하고있다.

책에서는 기지에 대한 일반적리해와 함께 명인들이 발휘한 기지와 그와 관련한 일화들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반상식을 높이고 사업과 생활에 참고로 될수 있다고 보아지는것만을 추려서 부문별로 묶었다.

그리고 부문별내용에 따라 명인들이 남긴 명언과 유모아, 토막이야기들을 참고로 주었다.

명인들이 발휘한 기지들에는 하나하나가 다 매 인간들의 고도의 사색과 열정이 깃들어있고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가르쳐주는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일화들에는 당대 사람들이 처하여있던 사회적환경과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측면들도 적지 않게 있다.

선행한 세대가 남긴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기지들을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이고 낡은것들은 극복해나가야 보다 훌륭한 기지를 소유할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난 력사적시기 명인들이 발휘하였던 훌륭한 기지들을 잘 알고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것이다.

1. 기지에 대한 일반적리해

명인들이 남긴 기지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자면 먼저 기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기지라는 말은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의 기발한 지혜나 슬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생활과 사회활동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의 정황에 맞게 기발하고 능란하게 처리하는 인간의 슬기와 지혜를 기지라고 한다.

제기된 문제를 기발하고 령활하게 처리하자면 문제의 본질을 민첩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재치있게 제기하여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슬기와 지혜를 기지라고 한다.

인간의 기지는 본질상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수 있다.

그 하나는 불의에 제기되는 문제를 신축성있게 풀어나가는 지혜와 슬기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것을 창조할 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착상으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슬기와 지혜이다.

기지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생활과 사회활동과정에 불의에 부닥치는 복잡한 문제를 신축성있게 풀어나가는 지혜와 슬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는것이 많은 사람은 사업과 생활도 신축성있게 하며 품성도 겸손한 법이다.》

불의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축성있게 풀어나간다는것은 부닥친 정황을 당황함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황에 맞게 령활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인간의 생활과 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간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생활과정에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나간다.

사회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과정이나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활동과정이나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정황에 부닥칠수 있다.

이러한 불의의 정황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여유가 있으면서도 재치있게 그리고 신속정확히 처리해나가는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가 다름아닌 기지이다.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는 우선 불의에 조성되는 문제를 그때그때의 정황에 맞게 여유있으면서도 령활하게 처리하는것이다.

조선속담에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일에서나 빠져나갈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닥치는 정황을 잘 따져보고 머리를 잘 쓰면 일들을 잘 처리할수 있다. 이렇듯 제기된 문제를 솜씨있게 처리하는 슬기나 지혜가 다름아닌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이다.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는 또한 부닥친 정황을 제때에 신속정확히 처리할줄 아는것이다.

제기된 문제를 여유있게 심중하게 처리한다고 하여 시간을 질질 끌면 그것은 기지라고 말할수 없다.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는 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것을 제때에 재치있게 처리할줄 아는 능력이다.

이처럼 신축성있는 슬기와 지혜는 부닥치는 문제의 본질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해결방도를 재치있게 밝혀 여유가 있으면서도 령활하게 신속히 처리해나가는 슬기와 지혜이며 바로 이것을 기지라고 한다.

기지는 다음으로 기발하게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슬기와 지혜이다.

인간의 생활과 활동은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활과 활동에서 기본은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이다.

인간의 기지는 인간의 활동과정에 부닥치는 불의의 정황을 신축

성있게 처리하는데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참신하고 깊이있는 사색과 착상으로 새로운것을 발견하거나 창조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창조는 크게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미 있던것을 새로운 안목에서 보고 개조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것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슬기와 지혜도 두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다.

창조적인 슬기와 지혜는 우선 이미 있던것을 새로운 안목에서 고찰하여 새로운것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발휘되는 슬기와 지혜이다.

기성의것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자면 그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고찰하여 뒤떨어진 면은 무엇이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자면 무엇을 어떻게 개조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밝혀내야 한다.

이처럼 기성의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고찰하여 뒤떨어진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제안을 제기하여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지혜와 슬기가 창조적인 지혜와 슬기이다.

창조적인 슬기와 지혜는 또한 기발한 착상으로 새로운 과학적발견을 하거나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슬기와 지혜이다.

선행시기에 없었던 새로운것의 발견과 창조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기발한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기민한 예지, 창조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착상과 같은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 새로운것을 발견하거나 창조할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안목과 기발한 착상으로 새것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슬기와 지혜가 기지의 주요한 내용으로 된다.

인간의 기지는 민첩하고 기발한 사고활동,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사고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기지는 해학과 유모아, 경탄과 찬탄, 놀라움과 환희를 동반한다.

기지있는 인간은 그 어떤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여도 해학과 유

모아를 써가며 제기된 문제를 여유있으면서도 신축성있게 풀어나간다. 인간의 기지는 기발한 착상과 경이적인 발견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찬탄, 놀라움과 환희를 불러일으킨다.

기지는 사람들의 정치외교활동과 군사활동, 과학적발견과 예술창조와 같은 령역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된다.

기지는 정치외교활동을 능란히 벌릴수 있게 한다.

정치외교가들이 정치와 외교를 능란히 벌리자면 정치적대가 강하고 정치외교실무에 밝을뿐아니라 림기응변하는 기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외교가들의 기지가 외유내강하면서 대방과의 사업을 여유있으면서도 평활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물론 정치외교활동에서 정치적대를 세우고 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정치외교활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치와 외교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 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정치와 외교에서 정치적대가 없고 원칙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기 계급의 리익을 옹호고수할수 없다.

정치적대가 없고 원칙이 없는 정치나 외교는 사실 자주성이 없는 정치나 외교로 된다. 이러한 정치와 외교는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다른 나라의 요구에 순응하고 굴종하는 예속적인 정치와 외교로 된다.

정치와 외교에서 정치적대를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례컨대 원칙적립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강권이나 금권으로 해결하려고 할수 있다.

정치외교가들의 기지는 이와는 달리 외유내강의 방법으로 자기의 정치적대를 지키고 원칙을 고수할수 있게 한다. 정치외교가들의 기지있는 연설이나 유모아, 양념처럼 섞어가는 해학과 풍자는 대방과의 사업을 평활하게 벌려 원칙을 여유있게 고수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요구를 원숙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정치외교가들의 기지야말로 정치외교활동을 능란히 벌려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정치외교가들의 기지는 특히 수백만 인민대중을 깨우쳐 정치적 요구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정치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치의 특성을 예술의 특성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사실 예술가들은 다양한 색갈과 각이한 음들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거나 다양한 예술적형상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예술작품들을 창작한다.

정치를 잘하자면 예술창조에서와 같이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 서로 다른 수준과 의식상태를 가진 각양각색의 수백만 인민대중을 하나와 같이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의 요구를 잘 알고 그들이 능히 받아들일수 있는 정책을 제기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야 한다.

정치의 이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자면 정치가들이 기지가 있어야 한다.

사실 정치가들의 기지있는 연설은 수백만 대중을 순간에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자기가 목적하는데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들의 기지있는 유모아와 해학은 정치가들과 대중을 하나로 융합시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발걸음을 같이하게 한다. 이처럼 정치외교가들의 기지는 수백만 대중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정치외교가들의 기지야말로 정치외교활동을 능란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능률적인 수단으로 된다.

기지는 군사적기적을 낳게 한다.

군사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발생한 사회의 중요한 한 분야이다.

군사는 군대, 국방, 전쟁과 관련한 사회의 한 분야이다. 다시 말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강화하며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자기의 정책적요구를 무력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쟁을 조직진행하는것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군사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 자체의 특징을 가진다.

군사의 가장 주되는 특징은 그것이 조직화된 무장력, 군대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조직진행하는 활동이라는것이다.

군사는 계급사회가 출현한 이후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전쟁이다.

전쟁은 일정한 사회적집단, 사회세력이 자기의 근본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조직적인 투쟁이다.

전쟁은 주권국가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민족과 종족집단들사이에 자기의 근본리해관계가 서로 적대되고 저촉될 때 벌어지게 된다.

전쟁은 국가와 사회적집단의 운명을 둘러싸고 가장 치렬하게 벌어지는 무장투쟁이며 전쟁의 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무장력을 이루는 사람, 다시말하여 지휘관들과 병사들이다.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되여야 작전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작전과 전투, 전쟁승리에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사상과 군사적자질과 함께 군사적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사지휘관들과 병사대중이 발휘하는 군사적기지는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기적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

기발한 군사적기지가 군사적기적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군사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정확한 결심채택을 내리게 함으로써 작전과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백전백승할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적인 판단력과 추리력, 풍부한 상상력이 없이는 대담한 작전을 할수 없으며 대담한 작전이 없이는 적을 타승할수 없다.》

작전과 전투에서 지휘관들이 결심채택을 제때에 정확히 내리는것은 그 승리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지휘관의 결심채택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적의 기도, 조성된 정황과 제기된 군사정치적과업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전과 전투의 주공방향을 정확히 선택하고 그 작전을 위한 방도들

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결심채택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시간을 쟁취하고 작전과 전투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있다.

지휘관들이 정확한 결심채택을 하는데서 군사적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휘관들이 군사적기지를 지니고있어야 적들의 기도를 제때에 꿰뚫어볼수 있으며 그에 대처한 대책과 전투지휘를 신속정확히 할수 있다.

그리고 기발한 착상으로 적들이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작전적묘안을 세워 적들을 족칠수 있다.

인류의 전쟁사는 군사지휘관들이 기발한 기지를 지니고있어야 작전과 전투승리를 위한 옳바른 결심을 채택하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조직지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군사적기지는 더우기 불의의 정황을 신속정확히 처리할수 있는 묘책을 안겨줌으로써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작전과 전투의 운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기적이 일어날수 있게 한다.

기지는 경이적인 과학적발견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어느 한 철학자는 《과학은 조직된 지식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과학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체계이며 지식을 체계화하는 창조적활동분야이다. 과학의 목적은 현실세계의 법칙을 발견한데 기초하여 사물현상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주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형성발전시켜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주자는데 있다.

과학은 사회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과학이 인간의 발전과 사회적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것만큼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적발견과 발전에서 기지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적인 환상, 현실에 발을 불인 상상력이 없이는 과학의 미래를 그려볼수 없으며 과학자체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인간의 기지는 사물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볼수 있게 하고 과학의

미래를 그려볼수 있게 하며 세계와 인류를 놀래우는 과학적발견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과학적발견이나 발명을 한 인재들은 다 기지있는 인간들이였다.

기지는 예민한 관찰과 기발한 착상, 과학적인 추리로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 새로운 과학적발견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기지있는 인재들은 보통사람들이 무심히 대하는데서 새로운것을 포착하거나 기발한 착상을 하여 과학적인 추리로 법칙적인것을 발견한다.

인간의 기지는 기발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과학적리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학설을 정립할수 있게도 한다.

과학적발견에서 그 연구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물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과학적리치를 해명하는데는 한가지 방법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매 연구방법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과학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연구성과가 달라질수 있다. 기성의 방법에만 매달린다면 과학적진보가 이루어질수 없다.

인간의 기지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재치있고 기발한 방법을 과학연구사업에 도입하여 참으로 기적적인 과학적발견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수재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적용한 기지있는 연구방법에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방법, 독창적인 결합방법, 사물들을 련관속에서 고찰하는 방법, 호상대립의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방법, 차이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비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가져온 과학적인 기적들은 과학발전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인간의 기지는 예민한 관찰과 기발한 착상, 과학적인 추리로 미지의 세계를 파헤치고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경이적인 과학적발전을 이룩할뿐아니라 새로운 과학적발견을 저애하는 온갖 시도들을 기지있게 짓부시게 함으로써 과학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기도 한다.

과학이 발전하자면 과학적인 성과가 제때에 인정되고 실천에 도입되여야 한다.

인류의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과학적발명은 항상 그를 방해하거나 지어는 적대시하는 경향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적태도, 서로 대립되는 과학적견해 그리고 교회와 과학의 대립, 극소수의 착취계급, 자산계급의 리해관계로 하여 과학적발견이 묵살되거나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았다.

인류의 과학사는 과학적발견도 어렵지만 과학의 성과를 고수하고 제때에 빛을 보게 하는것도 그보다 못지 않게 힘든 문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과학적발견을 위해 노력할뿐아니라 과학적인 성과를 고수하고 보급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과학이 발전할수 있다.

과학적인 성과와 보급은 여러 요인들의 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인간의 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적발견을 옹호하는 인간의 기지는 그 진리성과 그것이 노는 역할을 유모아적으로 인식시켜 널리 보급하게 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성과를 부정하는 그릇된 시도들의 무지몽매성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짓부셔버리기도 한다. 기지는 더우기 과학적발견에 제동을 거는 반동세력들의 비렬성과 반동성을 해부학적으로 밝혀 과학적인 성과를 고수하고 급속히 보급하게 한다.

기지야말로 과학적발견뿐아니라 그를 옹호고수하고 보급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이처럼 기지는 과학적발견과 발전에서 그 무엇도 대신할수 없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지는 명작창작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술은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이바지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예술의 본질적특성은 론리적형식으로가 아니라 형상적형식으로 인간생활의 생동한 화폭을 창조하며 인간성격을 묘사한다는

데 있다. 예술은 현실을 개념적으로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의 구체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보여준다.

예술의 대상은 현실세계이며 주로는 인간생활이다.

이 인간생활의 본질을 예술은 비반복적으로 그리고 예술적형식으로 일반화한다.

예술에는 문학, 음악, 무용, 연극, 가극, 영화, 미술, 교예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예술의 이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들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생활반영의 특성, 형상화의 수법 등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예술의 형태들도 새것으로 보충되여 더욱 풍부화된다.

예술은 인간생활과 인간의 발전, 사회의 진보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예술은 현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며 인간의 생활을 아름답고 풍만하게 한다. 예술은 특히 사회생활과 계급투쟁에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된다.

이러한 예술의 창조는 여러 요인들의 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

창작가들의 세계관과 실력, 사회제도의 영향은 예술창조에 영향을 주는 주객관적요인이다.

예술창조에서 기본은 창작가들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다.

창작가들의 주동적인 역할을 높여 명작을 창조하는데서 그들의 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작가들의 예리한 기지는 기발한 착상으로써 창작의 핵으로 되는 작품의 종자를 옳바로 틀어쥐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창조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모든 분야에는 그 창조과정을 특징짓고 성과를 담보하는 핵, 종자가 있다. 창작가의 기지는 생활에서 가치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깊이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작가들의 기지는 예리한 관찰력과 투시력, 민감한 포착력으로 현실이 제기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문제성있는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다. 인류사적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은 다같이 시대상이 정확히 반영되고 당시 사회가 제기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일정한 해답을 주는 작품들이였다.

창작가들의 기지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과 함께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작품의 종자로 내세움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다. 재능있는 창작가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처지와 지향에서 문제점을 기발하게 착상하여 명작들을 창작하군 하였다.

이 모든것은 창작가들의 기지가 작품의 핵인 종자를 재치있게 찾아 명작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창작가들의 기지는 훌륭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여 명작들을 내놓게 하기도 한다.

예술작품에서는 사상주제적내용과 함께 예술적형상이 매우 중요하다.

예술은 생활을 추상적인 론리나 개념으로가 아니라 형상에 의하여 현실그대로 구체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반영한다.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며 예술적형상은 반드시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창작에서 예술성은 생명으로 된다.

예술성을 보장하는데서 창작가들의 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작가들의 기지는 예술적형상수단들을 재치있게 적용하여 훌륭

한 예술적형상들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

작가들은 기지있는 언어구사로 명작들을 창작한다면 작곡가들은 재치있는 선률로 명곡들을 창작한다. 그런가 하면 교예배우들을 비롯한 명배우들은 기지있는 동작으로 기름진 예술적형상들을 창조한다.

창작가들의 기지는 작품들의 째임새를 기발하게 함으로써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창작가들의 기지가 그들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열적인 창작태도와 함께 예술형상창조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기지의 본질과 역할을 통하여 기지를 소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뛰여난 기지를 소유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할수 있는 나라의 인재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정책적요구에 민감하여야 하며 부단한 축적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 높은 지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의 요구대로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는 든든한 담도 지녀야 한다.

정책적요구에 민감하여야 당의 의도와 요구를 똑바로 알고 시를 써도 기지있게 《어머니》, 《용서하시라》, 《나의 조국》과 같은 명시를 지을수 있고 노래를 창작하여도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와 같은 명곡들을 창작할수 있다.

훌륭한 기지를 소유하자면 부단한 축적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 높은 지능도 소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가 인공지구위성제작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쥔 과학기술의 강국,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내놓는 예술의 나라로 될수 있은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 창작가들이 부단한 축적을 통하여 슬기로운 재능과 기지를 소유하였기때문이다.

축적이 있어야 기지가 나온다는것은 생활과 력사를 통하여 확증

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물론 재능과 기지를 지니는데서 천성적인 소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기지를 키워나가야 한다.

누구나 기지있는 인재가 되자면 실농군이 성실한 땀을 바쳐 풍요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듯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축적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최첨단의 높이에 올라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자면 당의 요구대로 통이 크게 사고하고 행동하여 기지있는 과학적발견이나 창조를 할수 있는 담을 지녀야 한다.

이처럼 훌륭한 기지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키워지고 발현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기지형성과 발현의 과학적리치를 똑바로 알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외교가들의 기지와 일화

> 《정치는 예술이다.》 김정일

정치외교가들은 정치외교활동과정에 슬기로운 예지와 령활한 림기응변, 풍부한 해학과 유모아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지로운 인격과 품성도 발휘하였다. 이것은 정치외교가들의 주요한 기지로 특징지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일화들을 남기였다.

1) 정치외교가들의 예지와 림기응변

단호한 립장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테헤란에서 진행된 쓰딸린, 루즈벨트, 쳐칠사이의 회담에서는 유럽에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 도이췰란드의 전후복구문제, 뽈스까의 장래문제, 국제안전기구창설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전 쏘련의 대표단의 기본과업은 련합국들이 1944년에 유럽에서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확정적이며 최종적인 의무를 지니게 하는것이였다.

쓰딸린은 1942년부터 시작된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구체적인 작전개시시간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쳐칠은 바로 이 문제를 피하려 하였다. 노르망디에서 진행할 미영군의 상륙작전개시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쳐칠이 표리부동한 립장을 취하자 쓰딸린은 격분하였다. 쓰딸린은 회담장을 떠날 잡도리를 하

였다.

쓰딸린은 걸상에서 일어나 워로쉴로브와 몰로또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수 없소. 내가 보건대 여기서 얻을것이란 쥐뿔도 없는것 같소. …》

난처한 처지에 빠진 쳐칠은 회담이 파탄될가봐 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수각하, 당신이 나를 리해하지 못한것 같소. 정확한 날자는 1944년 5월이요.》

이렇게 되여 긴장한 분위기는 얼마간 해소되였다.

3거두회담과 쓰딸린

쓰딸린, 루즈벨트, 쳐칠은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공인된 반파쑈동맹의 3거두였다.

공동의 리해관계로 하여 3거두는 테헤란과 얄따에서 회담을 가졌다. 나이상으로 볼 때 루즈벨트가 제일 어리고 쓰딸린이, 그다음 쳐칠이 제일 우였다.

그들의 인간관계를 볼 때 피압박계급출신인 쓰딸린과 공작의 후예인 쳐칠사이에는 신임보다도 의심이 더 많았다.

루즈벨트는 그의 선친이 영국식민주의자들을 증오하였던 탓으로 쳐칠에 대하여 일종의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늘 친절히 《윈스톤》이라고 불렀다. 회담때 쳐칠은 언제나 장편연설을 늘어놓았으나 쓰딸린은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였다.

그 어떤 문제에 해답을 줄 때 쳐칠은 늘 어떤 조건을 내놓은 다음 이러저러한 걸치레말을 장황히 늘어놓군 하였지만 쓰딸린은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매번 발언을 할 때 쓰딸린은 자기의 예민하고 정확한 통찰력으로 정세속에 내재하고있는 문제를 포착하고 도출해내군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쓰딸린은 루즈벨트나 쳐칠보다 훨씬 앞섰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것

1949년 12월 16일 모택동이 처음으로 쏘련을 방문하였다.

역에서 성대한 환영의식이 진행되였고 모택동은 숙소인 쓰딸린의 별장에 안내되였다. 이날 오후 6시 쓰딸린은 크레믈리궁전의 집무실에서 모택동과 회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어구까지 나가 외국손님을 영접하지 않던 쓰딸린은 관례를 마스고 집무실 문어구에서 모택동을 영접하였으며 두 지도자들은 초면인지라 한참동안 인사말을 나누었다.

담화는 2시간나마 진행되였다.

이전 쏘련측에서는 쓰딸린 혼자서 말할뿐 다른 사람들은 끼여들지 않았다. 쓰딸린은 모택동에게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모택동은 태연하게 이번에 온 목적은 첫째로, 쓰딸린의 생일 70돐을 축하하기 위한것이고 둘째로, 쏘련을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쓰딸린은 당신이 이번에 먼길을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수야 없지 않는가,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하였다.

쓰딸린은 자기 생각을 먼저 터놓는것을 꺼려하는것 같았다.

모택동은 아마 쌍방이 협의하여 무엇이든 좀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보기도 좋아야 하고 먹기도 좋아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여 모두들 한바탕 웃었으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길이 없었다.

모택동은 보기도 좋아야 한다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보기 좋게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고 먹기도 좋아야 한다는것은 내용이 있어야 하고 맛도 있으며 실속도 있어야 한다는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택동은 까놓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도착한지 10여일이 지났으나 쌍방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론의하지 않았다. 모택동은 자기를 찾아온 쏘련 총고문인 꼬발료브에게 성을 내면서 《당신들은 나

를 모스크바에 불러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난 도대체 무얼 하라는거요. 그래 내가 매일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려 여기에 왔단 말이요?》라고 을러멨다.

쓰딸린은 조급해났다. 무엇이 보기도 좋고 맛이 있는것인지 알아맞출수 없었다.

모택동은 쏘련주재 중국대사 왕가성에게 생일축하로만 왔다면 너무 슴슴하지 않는가, 응당 정치문건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하며 쏘련외무성에 제기하게 하였다.

쏘련측은 인차 동의해나섰다.

하루는 모택동이 쓰딸린에게 주은래총리를 불러오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쓰딸린은 놀라며 그를 왜 데려오려 하는가, 그가 와서 할일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쓰딸린은 자기와 모택동이 조약에 서명할것을 바랐으며 모택동은 주은래와 위신스끼 두 외무상이 조인하게 하려고 하였다. 주은래가 도착한 후 쌍방간에는 인차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였다.

첫 회담은 모택동, 주은래, 왕가성, 몰로또브, 위신스끼사이에 진행되였다.

이 회담에서 조약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차 합의에 도달하였다. 조약문과 관련한 회담은 주은래와 몰로또브사이에 진행되였다.

처음에 쏘련이 주은래가 말한 기본사상과 내용을 참작하여 초안을 만들어 가져왔다. 주은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옹근 이틀동안 품을 들여 다시 조약문을 작성하였다.

쏘련측은 별로 수정하는것이 없이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중쏘우호동맹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늙은 나무군이야기

1972년 5월 쏘미수뇌자회의때 브레쥬네브는 닉슨에게 한가지 짧은 일화를 이야기한적이 있다.

《어떤 농민이 궁벽한 촌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마을의 대체적인 위치는 알고있었지만 얼마나 먼가는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길에서 만난 한 나무군에게 이제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무군로인은 모른다고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농민은 할수없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나무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추 가면 15분안에 가닿게 될것입니다.〉 그 농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왜 진작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무군로인은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선 당신의 걸음폭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했으니까요.〉》

브레쥬네브가 이런 이야기를 한것은 물론 닉슨에게 군축회담에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쏘련(이전)도 미국의 립장에 대응한 양보 혹은 승낙을 할수 있다는것을 암시한것이였다.

나의 재산은 우주에서 찾으라

2005년 어느 한 나라 잡지는 꾸바지도자 피델 까스뜨로가 막대한 재산을 감추었다고 보도하였다. 피델은 보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감춘》장소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감춘〉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화성이나 달에 가서 복을 맛볼것을 권고합니다. 신화적인 나의 재산에 대해 쓴 사람들은 틀림없이 화성이나 달의 어느곳에 그것이 감추어져있는지를 알고있을것입니다.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이 그 비밀장소를 쉽게 찾아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스뜨로는 자기가 부유하다는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고백하였다.

《꾸바에 있는 모든것이 나의 소유인 동시에 전체 꾸바인민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나는 대단한 부호입니다.》

까스뜨로는 자기를 백만장자로 묘사한 글의 필자들에게 해당한

대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찾아내야 할 장소를 우주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에게 멋진 대답을 주었다.

13명이 참가한 연회에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주재하고있던 외교대표부에서 주재국 외무성일군들을 초대하여 대사관에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는 쌍방이 동부인으로 12명이 참가하고 대사관 통역이 독신으로 참가하였다. 대사가 축배사를 멋들어지게 하고 축배를 정중히 제의하였는데 상대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이 오히려 불쾌해하였다. 대사는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연회참가자수가 13명이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이미 연회가 시작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참가시키기도 곤난하고 또 참가하였던 사람을 내보내기도 난처하였다. 하여 그는 즉시 이렇게 정황을 처리하였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나의 부인이 지금 임신중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하였다.

긴장하던 분위기가 깨여지면서 요란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명절축하에 임신축하를 합쳐…

우리 두사람은 다 자기 계급을 배반하였다

주은래가 이전 쏘련을 방문하였을 때 있은 일이다.

모스크바에서 주은래는 흐루쑈브에게 쓰딸린에 대한 그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쏘베트정권을 약화시키고 나라의 약점을 세상에 드러내놓으며 공산주의운동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쌍방은 다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였다.

흐루쑈브는 맑스주의원리에 배치되게 수정주의정책을 실시한다는 주은래의 비난을 배격하면서 주은래의 계급출신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때 흐루쑈브는 《당신의 비판은 아주 훌륭한데요. 그러나 나

는 로동계급출신이지만 당신은 부르죠아출신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흐루쑈브의 말에 주은래는 한순간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사람은 적어도 한가지만은 꼭 같지요. 그것은 우리 두사람이 다 자기 계급을 배반하였다는것입니다.》

결국 주은래는 흐루쑈브의 수정주의정체를 기지있게 낱낱이 발가놓았다.

《상승의 일로》

미국기자는 문제거리를 생각해내여 주은래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총리각하, 우리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길을 가는데 중국사람들은 왜 머리를 숙이고 길을 걷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은래는 쏘파에 앉은채로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당연하다는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그거야 뭐 이상할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들 미국사람들은 내리막길(하강의 일로)을 걷고있으니 물론 머리를 쳐들고 걸어야 하는것이요, 우리 중국사람들은 올리막길(상승의 일로)을 걷고있으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것이지요.》

미국의 기자는 이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였다.

《마　루》

언제인가 미국기자들을 접견하고있는 주은래에게 좋지 못한 마음을 먹은 미국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총리각하, 당신들 중국사람들은 어째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마루〉라고 합니까?》

중국에서는 길을 《마루》라고 한다. 이것을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다니는 길로 된다.

미국기자는 이것을 념두에 두고 비웃어 물었던것이다.
이 말에 주은래는 매우 호기있게 대답하였다.
《우리 중국이 가는 맑스주의길을 간략하여 〈마루〉라고 합니다.》
(중어로 맑스주의길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쓰면 《마루》로 된다.)
주은래의 기지있는 대답을 듣고난 미국기자는 멋적게 되였다.

《18원 88전》

언제인가 주은래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중국경제건설성과와 중국대외정책에 대한 주은래의 연설이 끝난 후 한 서방기자가 물었다.
《미안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있습니까?》
이 질문은 실제로는 중국의 빈궁을 비웃으려고 한것이였다.
주은래는 대답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의 자금말입니까? 18원 88전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대답은 모든 기자들을 아연케 하였다.
주은래는 곧 이에 대해 해석해주었다.
《중국인민은행은 액면가격이 10원, 5원, 2원, 1원, 50전, 20전, 10전, 5전, 2전, 1전인 10가지 주요보충가격으로 된 인민화페를 발행하니 합하여 18원 88전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자신이 주관하는 금융기구로서 전국인민들이 후원하고있으며 신용이 특별하고 실력이 대단합니다. 발행화페는 세계에서 가장 신용있고 안정성이 담보된 화페의 하나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

솔로몬은 B. C. 965－B. C. 928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의 대왕이였다.

그는 지혜가 있고 무슨 일이건 공정하게 판결하여 백성들속에서 명망을 떨치게 되였다.

솔로몬에 대한 일화중에는 두 녀인이 한 어린애를 놓고 저마끔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싸우는것을 재판해준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궁궐밖이 떠들썩했는데 앙칼진 녀자들의 목소리가 유표하게 들려왔다. 솔로몬은 신하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아침부터 궁궐밖이 왜 이리 소란하오? 도대체 무슨 변이라도 났소?》

그러자 신하가 대답하였다. 《두 녀인이 와서 옥신각신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두 녀자가 싸우기만 하는데 임금님께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불러들여라.》

이윽고 두 녀자가 솔로몬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두 녀자는 방문에 들어설 때까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다가 왕을 보자 흠칫하였다.

두 녀자는 왕앞으로 다가왔다.

녀자들은 다투기를 멈추었으나 눈에는 표독스러운 기색이 력력하였다. 두 녀자가운데 한 녀자는 아기를 안고있었다.

솔로몬은 그 아기를 보자 짐작이 갔다. 그 아이때문에 싸우고있는것이 뻔하였다. 아기를 안고있지 않는 녀자는 연신 아기를 들여다보며 분해하는 표정이였다.

《아침부터 왜들 법석을 피우고 야단이냐?》

솔로몬왕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한 녀자가 분하다는듯이 어깨를 들먹이며 대답했다.
《폐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녀자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계속했다. 《이 녀자와 저는 한집에 살고있습니다. 방이 나란히 있지요. 그런데 어느날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에는 우리 두사람만이 있었고 그밖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

옆에서 듣고있던 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리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눈치였으나 먼저 말한 녀자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밤에 이 녀자는 자기 아들을 끼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 녀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채 품에 안고 자다가 아들을 숨막히게 해서 죽였나봅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옆의 녀자가 먼저녀자의 말을 가로막아나섰다.

그때 솔로몬왕은 나중녀자를 꾸짖었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먼저 이 녀인의 말을 다 듣고난 뒤 네 말을 듣겠다.》

나중녀자는 찔끔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처음녀자가 또 말하였다.

《이 녀자는 자기 아들이 죽자 아들을 밤중에 몰래 안고나와 제가 잠든 사이에 저의 아들을 몰래 가져가고 그자리에 죽은 자기 아들을 놓았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말도 잘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녀자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있게 되고 그대신 저의 아들은 이 녀자의 품에서 자게 되였습니다.》

그 녀자는 옆에 있는 녀자를 독살스러운 눈으로 흘겨본 뒤 말을 계속하였다.

《아침 일찌기 저는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꼼짝도 안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기는 이미 죽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놀라운것은 그 아기가 저의 아들이 아니였던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녀자도 더이상 참을수 없다는듯이 앞으로 나섰다. 《아닙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기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산 아기는 제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이 녀자의 아기입니다.》

그러자 먼저녀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두 녀자는 왕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였다. 그들은 머리를 휘여잡고 싸울판이였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만 있던 신하가 또 그들에게 조용들 하라고 소리쳤다.

두 녀자는 움츠러들기는 했어도 노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동안 조용한 공기가 방안에 흘렀다.

솔로몬왕은 여전히 눈을 감고있었다. 녀자들은 솔로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솔로몬왕이 눈을 떴다. 두 녀자의 눈길은 솔로몬왕의 얼굴로 향했다.

솔로몬왕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면 공평할것이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살아있는 이 아기를 둘로 갈라서 두 녀자가 나누어갖도록 하여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아기를 이 녀자가 가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다른 한 녀자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임금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왕이 소리쳤다. 《그 아기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녀자에게 아기를 주어라.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한 이 녀자가 정말 살아있는 이 아기의 어머니이다.》

이리하여 솔로몬왕은 그 어머니에게 자기 아기를 찾아주었다.

이때부터 솔로몬왕이 슬기로운 재판을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솔로몬의 충고

솔로몬의 예지에 대한 평판이 널리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를 받으러 찾아가군 하였다.

그런 충고를 받으러 찾아가는 사람들중에는 리야쯔거리의 귀족인 메리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을 달리면서 안따오짜를 지났을 때 메리쏘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왕을 찾아가는 조세프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들은 길손들이 그러하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조세프는 옹고집쟁이이며 심술쟁이인 자기 안해를 도저히 다룰수 없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가 하고 솔로몬의 충고를 받기 위하여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메리쏘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당신에게 불행이 있듯이 나에게도 또다른 불행이 있답니다. 나는 부자이고 젊어서 자기 재산으로 자주 연회를 베풀어 거리의 사람들을 대접하군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생각할 때 이상하고 괴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을 받을수 있게 되겠는지 충고를 받았으면 하여 당신과 마찬가지로 왕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리하여 두사람은 함께 가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솔로몬의 한 고관이 그들을 왕앞으로 데리고갔다.

메리쏘는 단마디로 자기의 용건을 말하였다.

《사랑할지어다.》 왕은 이 말을 한 다음 메리쏘를 곧 밖으로 내보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세프가 어찌하여 자기가 오게 되였는지 그 사연을 말하였다.

솔로몬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뿐이였다. 《게사니다리로 가볼지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조세프도 즉시 왕의 어전에서 물러나게 되였다. 그는 밖으로 나와 자기를 기다리고있던 메리쏘를 만나자 자기가 받은 대답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두사람은 그 말뜻을 알수 없었고 마치 자기들이 우롱당한듯한 기분으로 귀로에 올랐다.

두사람이 어느 강가에 이르렀는데 하늘소와 말에 짐을 듬뿍 실은 상인들의 큰 무리가 마침 다리를 건느고있어 그들은 이들이 다 건늘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행렬이 다 지나간 다음 한 마바리군이 움직이지 않는 하늘소를 채찍으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늘소는 뒤걸음질까지 치면서 한사코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바리군은 성이 독같이 나서 채찍을 한껏 휘둘러 등을 치기 시작하였다.

거기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있던 메리쏘와 조세프는 마바리군에게 《지독하구만. 그러다간 죽고말겠수다. 잘 구슬려서 조용히 데리고갈 궁리를 할게지 그래서야 움쩍하나！》라고 거듭 말하였다.

《내 하늘소는 내가 아니까 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게 좋겠수다.》 이렇게 말하고 마바리군이 하늘소를 힘껏 후려치자 그놈은 이윽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마바리군은 이처럼 자기 말이 옳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던것이다.

두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다리목에 앉아있던 한 사나이에게 여기가 어디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으리님, 여기는 게사니다리입니다.》

조세프는 이 말을 듣자 얼핏 솔로몬의 말이 생각되여 메리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과연 솔로몬의 충고가 옳고 사실일른지 모르겠소. 나는 여직껏 안해에게 손찌검도 해본적이 없는데 마바리군은 나에게 안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는지 실물로 보여주었소.》

두 친구는 며칠후 조세프네 집에 류숙하게 되였다. 조세프는 안해에게 식사를 준비시켰다.

안해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조세프가 요구한대로가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것들을 만들어내왔다. 조세프는 그것을 보자 울컥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당신은 그래 저녁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을 못들었소？》

안해는 거만스레 돌아보며 대꾸하였다. 《아니, 뭣이 어쨌다는거예요. 들고싶지 않거든 들지 마세요. 아무리 이래라저래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할 생각이예요.》

메리쏘는 그의 안해의 말에 깜짝 놀라며 진짜 지독한 녀자라고 생각하였다.

조세프는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여전하구만. 하지만 내가 방법을 고쳤다는것을 알아야 해.》

그리고는 메리쏘에게 《솔로몬의 충고가 어떤지 제꺽 시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조세프는 참나무몽둥이를 들고 안해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안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방바닥에 쓰

러뜨린 다음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안해는 처음에는 고아대고 엄포를 놓았지만 아무리 해도 남편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모질게 매맞아 녹초가 된 안해는 제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앞으로는 결코 그의 분부를 어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다. 조세프는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 녀자의 가슴팍과 배, 어깨를 닥치는대로 후려쳤다.

그리고나서 메리쏘에게 와서 《게사니다리로 가보라던 충고가 어떻게 은을 내겠는지 래일 두고보면 알게 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밤 류숙하고 아침 일찌기 일어났다. 그런데 안해로부터 무슨 료리를 희망하는가고 조세프에게 사람을 보내여왔다. 이윽고 시간이 되여 식탁에 앉아보니 모든것이 분부한 그대로 그쯘히 마련되였다.

며칠이 지난 다음 메리쏘는 조세프와 헤여져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어떤 총명한 사람에게 솔로몬의 충고를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보다 진실하고 훌륭한 충고를 해줄수는 없을거요. 당신도 아시다싶이 당신은 누구도 사랑하고있지 않지요. 당신이 베풀고있는 연회나 대접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품고있는 사랑때문이 아니라 허영심때문이지요. 그러니 솔로몬이 당신에게 말하였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옹고집쟁이녀자의 버릇은 뚝 떨어지게 되였고 또한 청년은 남을 사랑함으로써 남의 사랑을 받게 되였다고 한다.

황희가 소문낸 파랑새이야기

황희는 고려말—리조초의 관료였고 여러편의 시가작품을 내놓은 재능있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황희는 해학가였다. 그의 기지있는 해학은 풀기 어려운 문제도 웃음속에 쉽게 풀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리조 세종때인 1437년경에 있은 일이다.

하루는 왕이 노한 기색으로 소리쳤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북쪽변방에서 밀봉해올려오는 장계(봉건사회에서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왕에게 하는 보고)가 대궐에 이르기 전에 그 내용이 서울안에서 벌써 자자하게 떠돌고 대궐에서 내려보내는 비밀지시가 함길도(함경도)절제사에게 가닿기 전에 그 내용이 온 북쪽변경에 소란스레 떠돈다니 과연 나라에 기강이 있느냐?》

참으로 왕이 노하여 소리치지 않을수 없는 일이였다.

이때 나라에서는 녀진의 침입을 물리치고 북방을 방어하기 위하여 김종서를 시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있었다.

그런데 변방에서 김종서가 적들의 동태를 알려오면 왕이 미처 알기도 전에 서울장안에 소문이 자자하여 저마끔 제나름으로 이제 나라에서 많은 군사들을 강제로 뽑아야 할것이라느니, 머지않아 전란이 있을거라느니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왕이 김종서에게 적을 견지할데 대한 비밀지시를 내리면 변방의 군사와 백성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수군거릴뿐아니라 심지어 적들까지 미리 알고 달아나거나 방비대책을 쓰는 일이 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었다.

《나라의 기밀이 어찌하여 뚝 터진 강물처럼 퍼져나가기만 하느냐?》

왕의 추상같은 호령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라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밀을 발설하는 출처를 속히 찾아내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만백성에게 비밀을 지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어야겠다. 그래 누가 이 출처를 찾아내겠느냐?》

왕의 령이 떨어졌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왕이 대답을 독촉하자 서로 얼굴만 바라보던 대신들은 모두 령의정 황희에게 얼굴을 돌리였다.

황희는 하는수없이 왕앞에 나섰다.

《저에게 열흘간 말미를 주시면 찾아내겠소이다.》

이렇게 왕에게 약속한 황희는 다른 대신들과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심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황희는 원래 아는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재상이였지만 이 해결책만은 쉽게 생각해낼수 없었다.

이날부터 황희는 아프다는것을 핑게대고 관청에도 나가지 않고 일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 대신들속에서는 제나름대로의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황희가 아프다고 방문을 닫아걸고 부인과 시중드는 아이들까지 누구도 얼씬못하게 하니 온 집안이 초상난 집같았다.

한평생 간격없이 지내온 살뜰한 부인이 애가 타서 《어디가 아프시오? 무슨 일이 계셨소?》하고 묻기를 그 몇번, 황희는 계속 입에 빗장을 지르고있었다.

며칠이 지나서 황희가 부인에게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가 한평생을 부인과 함께 살아온 부부간이지만 차마 말할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런것이니 과히 근심하지 마오.》

《너무하십니다. 한평생을 상공만을 받들어온 저까지 믿지 못하신다면 어찌 부부일심동체이라고 하오리까.》

《진정 부인이 내 딱한 사정을 듣고 입에 내지 않으시겠소?》

《그런 념려는 땅이 꺼질가봐 하시는 근심과 같소이다.》

《정 그러하면 내 부인만을 믿고 말하겠소. 사실은 며칠전에 측간(위생실)에 가서 뒤를 보려는데 허허 참, 내 배안이 꿈틀거리더니 파랑새 한마리가 밑으로 빠져나와 날아가는것이 아니겠소. 그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도 모르겠고…

차마 말할수 없는 말을 입이 무거운 부인에게만 믿고 했으니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되겠소.》

부인은 파랑새가 밑구멍으로 나와서 날아갔다는 소리가 우습기도 했고 또 파랑새는 옛날부터 기쁜 소식만 물고다닌다고 했으니 마음도 놓여서 웃으면서 대답했다.

《걱정마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야 나쁠게 하나도 없는것인데 공연히 근심을 하셨소이다.》

《그럴가?》

두사람은 마음이 놓이는듯 서로 웃었다. 그러면서도 황희는 절대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부인이 근심을 가신 얼굴로 안방에 들어서는데 시중드는 부엌어멈이 무슨 기쁜 일이 있었나 해서 물었다.

《마님, 대감님 병환이 차도라도 있소이까?》

부인은 부엌어멈이 진심으로 근심하는것을 보자 그 마음이 고마와 사실대로 말해주고싶었다. 그러나 남편이 비밀을 절대로 루설하지 말라고 하던 당부가 생각나서 그저 웃어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대감님께서 수저를 드시지 않으시니 진지상 차리는 쇤네 속이 타서 재가 됐는데 무엇을 믿지 못해서 말씀해주시지도 않으시나이까. 섭섭하오이다.》라고 푸념을 했다.

부인은 성실한 부엌어멈이 눈물까지 보이자 인정에 못이겨 황희가 하던 파랑새이야기를 했다.

부인에게서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받고 한 황희의 파랑새이야기가 그날밤으로 어멈의 남편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밤 남편과 가지런히 누웠던 부엌어멈은 사내의 배에서 파랑새가 날아났다는 말이 생각나서 호호하고 저혼자 가볍게 웃었다.

《왜 웃소?》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젊은 녀자가 이부자리에 같이 누워서 남편에게 감겨들지 않고 저혼자 호호거리는것은 틀림없이 군서방 생각하는것이라고 짐작한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왜 웃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어댔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 없게 된 부엌어멈은 자기의 청백함을 밝히기 위해 하는수없이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부엌어멈의 남편은 난봉군이였다. 투전판은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고 술을 사발로 들이켰다.

이 난봉군이 이튿날 투전패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있었다. 이때 참새 한마리가 외양간 황소잔등에 날아와앉았다가 꼬리밑으

로 날아 지붕우로 올라가는것이였다. 그것을 보자 어제밤 이불안에서 하던 녀편네의 말이 생각나서 턱을 쳐들고 한바탕 웃었다.

《너 어째서 웃니?》

《엉?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웃긴 왜 웃어. 너 아무래도 아까 투전판에서 노는 꼴이 수상하다 했더니 우리를 업수이 보고 속인것이 분명해.》

투전판에서 진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와지는지라 《와-》하고 달려들어 주먹을 쳐들었다. 주먹다짐을 면하자니 할수없이 《사실은 말이야 황희정승의 밑구멍에서 파랑새가 날아났다는 소리를 들은 생각이 나서 그래.》하고 그 내용을 말했다.

투전판에서 소문이 났으니 그날로 《황희정승의 밑구멍에서 파랑새가 날아났대.》하는 소리가 눈덩이굴듯 부풀어나면서 온 한성바닥에 퍼졌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왕이 황희를 불러서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황희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상감마마께서 얼마전 변경을 침범하는 오랑캐놈들을 치자고 했는데 그 비밀이 사전에 루설된것을 근심하시면서 비밀이 어디서 새는지 알아보라고 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소이까.》

《그래서.》

《그 비밀을 물고다니면서 루설시키는것이 바로 그 파랑새인줄로 압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황희는 자기가 꾸며낸 파랑새이야기를 다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심중한 얼굴빛을 하고서 의미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황희는 국가의 중대한 비밀이 왕을 비롯한 비밀에 관계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샌다는 말을 자기를 놓고 증명한것이였다. 해학가인 황희는 파랑새이야기를 통하여 국가중대사중의 중대사는 비밀을 지키는것이라는것을 자기도 다시한번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리해시킨것이다.

이름자가 비슷하다

계축년(1613년) 역적사건때의 일이다.

자산사람 리춘복이 역적이라고 사람들이 신고한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의금부 당하관이 자산에 가서 종적을 찾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경내에 리춘복이 없고 리원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의금부 당하관이 조정에 보고하고 리원복을 잡아다가 심문하려고 하였다.

이때 리항복(선조, 광해군시기 봉건관료)이 심문하는 관리로 나가게 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론이 이미 정해져 움직일수 없게 되였음을 보고 말하지 않으려다가 죄없는 사람이 역적죄에 걸려들가봐 말하였다.

《내 이름도 저 사람과 비슷하니 아마 글을 올려 해명받은 다음에야 죄를 면할수 있겠구나.》

이 말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그만 취소되고말았다.

또 어느 하루는 죄상이 명백치 않은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심문하여 거짓자복을 하는것을 보고 리항복이 탄식하였다.

《내 일찌기 소나무껍질을 벗겨 떡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여 역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귀양가면서 미리 내다본 일

리항복이 북청귀양길을 떠나려 할 때 마침 승평 김류가 찾아왔다.

리항복은 느닷없이 한폭의 그림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이제 자네에게 언젠가 꼭 이 그림의 주인이 나타날걸세. 이것을 부디 잘 건사해두었다가 전해주면 고맙겠네.》라고 부탁하였다.

김류는 그 그림을 정히 말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었다. 그것을 보며 아무리 기다렸으나 주인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후날 왕위에 오른 인조가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로상에서 비를 만나게 되여 김류의 집으로 찾아들어왔다.

김류는 곧 들어와 비를 긋고 가도록 하였다.

방안에 들어와앉은 인조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만히 물으니 《이 그림은 내가 어릴 때 부왕(선조)의 지시로 그린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걸려있는가.》고 되묻는것이였다.

김류는 그제야 리항복이 이 그림을 주면서 당부하던 까닭을 알게 되였다.

거기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던것이다.

이때 안방쪽에서 주안상을 차리라는 분부가 없었음에도 음식상이 마련되였으니 어서 내려오시라는 전갈이 왔다.

김류는 내심 의아함을 금치 못하면서 그림을 인조에게 돌려주고 안방에 들어가 손님을 위한 주안상이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해는 《어제밤 꿈에 임금님의 행차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겠나이까. 깨여나서 이상히 여기고있었는데 방금전에 웬 길손이 비를 긋자고 청해오는 소리를 듣고 창틈으로 엿보니 글쎄 어제 꿈에 본 모습이 아니겠나이까.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올리는것이오이다.》라고 하였다.

김류는 곧 연평, 리귀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의논하여 의리로 거사를 하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니 이는 리항복이 미리 내다본 일이였다.

누가 먼저 죽어야 하는가

임진조국전쟁시기 선조의 좌천행차가 가산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가산에 와보니 군청관리나 아전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피난가던 백성들만 모여서 오골오골 붐비는 판인지라 발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임금의 행차는 길가에 있는 두어칸짜리 초가에 들어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막힌채 오도가도 못하고 또다시 온종일 굶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바로 이때 다행히도 순박해보이는 한 농군이 임금에게 올려달라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찾아왔다.

밥상을 보니 거기에는 무둑히 담은 조밥 두그릇과 갓 잡은 닭으로 끓인 큰 국그릇 두개가 놓여있었다.

문간방에 있던 한음이 반가운김에 서둘러 그 밥상을 받아가지고 곧장 임금에게로 향했다.

이때 리항복이 무슨 문서를 꾸미느라고 부지런히 붓대를 놀리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흠칫 놀라며 한음을 불러세웠다.

한음과 리항복은 인간적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이보라구 한음, 게 좀 서게.》

리항복은 한음에게 꾸짖는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 밥상을 지금 어디로 가져가나?》

《상감께 올리는줄 몰라서 묻나? 》

한음이 별 참견이라는듯 눈을 흘기자 리항복은 제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몰라서가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는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일세. 생각해보게. 이 란리통에 도대체 일은 누가 하며 고생은 누가 하는가 말일세. 그런데두 밥상을 상감께 먼저 올려?

우리가 모두 쓰러져보게. 일이 어떻게 되겠나?

상감은 온종일 하는일없이 련에 앉아계셨으니 그리 시장한줄도 모를걸세. 그러니 그 밥상은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가 올리는게 마땅할걸세.》

그 말에 한음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정신이 나간게 아닌가. 자네 지금 무슨 무엄한 말을 하고있나?》

한음은 큰일났다고 리항복을 꾸짖었다. 하지만 리항복은 벽처럼 막아서서 자기의 주장을 좀처럼 굽히려 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올리자거니 다른편에서는 안된다거니 하면서 서로

밀고닥치는통에 하마트면 애꿎은 밥상만 엎지를번 하였다.

아무래도 완력은 리항복이쪽이 더 센편이여서 한음은 하는수없이 리항복이 시키는대로 그릇의 밥과 국을 조금씩 덜어먹었다.

그러는 한음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리항복은 한음에게서 아무 탈이 없는것을 보고서야 내시를 시켜 밥상을 들여가도록 하였다. 임금에게 밥상을 올렸으나 한음은 리항복의 강박에 못이겨 자기가 먼저 수라(임금의 식사)를 덜어먹은것이 마음에 걸려 여간만 불안해하지 않았다.

얼마후 임금이 물린 밥상이 나오자 여러 사람이 남은 조밥과 닭고기국을 조금씩 나누어먹었다.

리항복도 그때 한술 얻어먹었는데 곁에서 우거지상을 하고있는 한음을 보자 웃음집이 건들거려 종시 웃음을 흘리고야말았다.

약이 오른 한음은 웃고있는 리항복에게 눈을 흘기며 심사가 꿰진 소리로 역스럽게 물었다. 《자넨 뭐가 좋아서 히물거리나? 남은 목에 칼을 쓰고 옥안에 앉아있는 심정인데…》

그 말이 더욱 우스워 리항복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죽어라고 웃었다.

《으하하!…》

이윽하여 리항복이 하는 말이였다.

《이보라구 한음, 자넨 아직도 내 속생각을 모르겠나? 그래 지금이 어느때인데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함부로 상감께 올린단 말인가. 만일 그 음식에 흉측한 독이라도 들어있었더라면 우린 목을 백개 바쳐도 그 죄를 면할수 없었을거네.》

그 말에 한음은 닝큼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째서 그걸 나더러 먼저 먹으라고 했나?》

《그야 자네가 모르고있었던 까닭에 시험해보자고 그랬지.》

한음이 더욱 놀라며 믿어지지 않는듯 이렇게 물었다.

《그럼 날더러 먼저 죽으라고 그랬단 말인가?》

《사실인즉 그렇네.》

《그건 어째서? 오랜 친구지간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천만에! 자네가 먹고 일없으면 별일 없겠지만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래, 어떤 후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물덤벙술덤벙하던 자네와 그것을 미리 시험해본 나를 비교해볼 때 값이 갈을리야 없지 않나. 그런즉 누가 먼저 죽어야 옳겠나?》

이렇게 말한 리항복은 또다시 싱글거렸고 한음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였다.

《자네는 정말 영특한 사람일세. 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말고. 오늘 우리가 나라앞에 큰 죄를 면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자네의 공일세.》

그 말에 곁에 있던 대신들도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으뜸가는 보물》

임진조국전쟁시기 송운대사(사명당)가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담판할 때 있은 일이다. 적장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송운대사에게 묻기를 《조선에 보물이 많다는데 어떤 보물이 으뜸가는 것이요?》라고 하였다.

송운대사는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조선에 보물이 많지만 지금 보물중에서 으뜸가는것은 도리여 일본에 있소.》라고 하였다.

《일본에 있다니요?》

《아직도 모르겠소?》

《어떤 보물인가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이요.》

《예? 내 목이라구요?》

《왜 그리 놀라우? 우리 나라에서는 당신의 목을 따오는 사람에겐 막대한 상금을 주기로 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보물중에 보물이 아니겠소.》

가또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얼굴이 까매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이때부터 가또는 송운대사의 담대한 태도에 기가 꺾이여 담판에서 더는 도도하게 나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2) 정치외교가들의 해학과 유모아

리항복의 능청스러운 말

리항복이 령의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회의가 있어 여러 재상들이 다 모였는데 리항복이 늦게 왔다.

《어찌하여 공은 이렇게 늦었소?》

누군가 물었다.

《여럿이 싸우는것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리다보니 이렇게 늦었구려.》

《그래 누구들이 싸웁디까?》

《고자녀석이 중놈의 끄뎅이를 잡고 중놈은 고자녀석의 아래것을 잡고 서로 어울려 길바닥에서 싸우고있습디다.》

웃지도 않고 시치미를 떼는 리항복을 바라보며 재상들은 허리가 끊어지게 웃었다.

《고자녀석에게 아래것이 어디 있으며 중놈에게 머리끄뎅이가 어디 있단 말이요? 허허.…》

말은 비록 웃음거리이지만 허위만을 숭상하는 꼴들이 하도 답답하여 이같이 능청스러운 말로 풍자한것이다.

중더러 짜다고 하다

리항복이 젊어서 절간에 들어가 글공부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날 밥을 먹자고 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곧 중을 불러 곁에 앉히고는 자기가 밥 한숟가락을 뜰 때마다 《새우젓》하고 소리치게 하였다.

중은 그가 하라는대로 밥 한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새우

젓》하고 한번씩 소리쳤다.

이렇게 대여섯숟가락 먹었는데 중이 그만 덤벼치면서 한숟가락에 한번씩 부른다는것이 연거퍼 《새우젓, 새우젓.》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항복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낯을 찡그리였다.

《너무 짜다. 너무 짜. 그러면 랑비하지 않나, 원. …》

안자의 림기응변

안자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였다. 안자가 제나라에서 초나라에 사신으로 오게 되였다.

초왕은 좌우를 불러 의논한 끝에 이 기회에 그에게 모욕을 주기로 하였다.

초왕과 안자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웬 사람들이 꽁꽁 묶이운 사람을 하나 끌고 앞을 지나갔다.

초왕이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나라 사람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도적질을 한 놈이오이다.》

초왕은 돌아서더니 안자에게 물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도적질을 즐기오?》

안자가 대답하였다.

《신이 듣기를 강남에 있는 일종의 귤나무를 강북에 떠다심어 열린 열매를 탱자라고 한다 하오이다. 이것은 지리적환경이 달라 생기는것인가봅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제나라에서는 별로 도적질을 안하는데 이 초나라에 와서 도적질을 한다니 아마도 초나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게 아닐가요?》

초왕이 후에 이르기를 《성인과는 롱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느니라. 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을뿐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개구멍》

안자가 두번째로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였다.

그의 키가 매우 작았는지라(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키는 6척으로서 아주 작았다고 한다.) 초나라 사람들은 대문옆에 작은 문 하나를 만들고 안자더러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청하였다. 안자는 물론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의 나라에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 개의 문(개구멍)으로 들어가는 법이요. 지금 내가 사신으로 온 곳은 초나라이지 개나라야 아니겠지요?》

외교사무를 맡아보는 관리는 할수없이 그와 함께 대문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었다.

현명치 못한 임금

안자가 초왕을 만났을 때 초왕이 안자의 키를 보고 깔보면서 말하였다.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는가?》

안자가 대답하였다.

《제나라의 림자(지명이름)에 300개 마을이 있는데 한마을에 스물다섯집이 있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소매를 이어도 큰 담장을 칠거요, 한사람이 땀 한번씩 흘린대도 큰 비가 내리는듯 하오니 왜 사람이 없다고 하오이까?》

초왕은 말하였다.

《정말 그렇다면 왜 당신을 사신으로 보냈는고?》

그러자 안자는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에는 다 사신이 가는 나라의 형편을 보고 보내지요. 그러루한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임금이 있는 나라들에 보내고 이러루한 무능한자들은 임금이 그닥 현명치 못

한 나라들에 보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소신이 제일 재간이 없다나니 결국 초나라에 사신으로 오게 되였소이다.》

한문제만 택하라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학생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였다.

《학생, 어려운 문제 하나를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문제 두개를 대답하겠습니까?》 선생이 물었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택하겠습니다.》학생이 신심있게 대답하였다.

《그럼 닭알이 어데서 생긴것인지 어서 대답해보세요.》

《닭이 낳은것입니다.》

《그럼 닭은 어데서 생긴것인가요?》

《선생님, 이건 이미 두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외교관과 빠리아가씨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의 한 성원이 어느 한 연회에서 아름다운 빠리아가씨와 춤을 추게 되였다.

아가씨가 갑자기 물어보는것이였다.

《프랑스아가씨와 중국아가씨들중에 어느쪽이 더 좋은가요?》

불의에 제기된 이 물음은 정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례로 중국아가씨가 더 좋다면 외교례절에 어긋난다 할것이요, 만일 프랑스쪽이 낫다는 말은 중국사람으로서 더우기 할수 없는것이였다.

외교관은 약간 생각을 굴리고나서 서두르지 않고 대답하였다.

《나를 좋아하는 아가씨들은 다 내 마음에 들지요.》

《유쾌한》 결별

도이췰란드의 민주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인 웰헬

름 립크네흐트가 1850년 런던에서 맑스와 첫 상봉을 한 다음 그를 끝없이 존경하면서 그의 사업을 적극 보좌할 때 있은 일이다.

맑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선 웰헬름 립크네흐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1849년 바덴－ 팔츠폭동참가자인 바우에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폭동이 실패된 후 미국에 건너가 출판계에 종사하였다.

그는 웰헬름 립크네흐트를 맑스로부터 떼내여 자기한테로 끌어오려고 몇통의 초청장을 보내였고 급료가 상당한 편집자의 자리를 틀림없이 보장하겠노라고 하였다.

당시 웰헬름 립크네흐트의 처지로서는 그가 권하는 한주일에 50US＄라는 보수가 대단한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바우에르는 마지막수단을 써서 그의 자존심을 자극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날리였다.

《…이렇듯 여기서 자네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것이고 자네는 자립적으로 자기 재능을 발휘할수 있을걸세. 그런데 그곳 형편은 어떤가? 거기서 자네는 남의 장난감이며 남의 무거운 짐이나 날라다주며 남의 웃음거리나 되는 하늘소새끼에 불과하네. 그곳 실정은 어떠한가? 전지전능하신 알라이－라마인 당신네 맑스가 군림하고있지.

그밑에는 아득한 공간이고 다음에는 엥겔스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까마득한 일대 공간이고 그밑에 월프가 있네.

그리고 또다시 무한한 공간 그리고 그들 다음에야 혹시 운수가 좋으면 〈감상적인 하늘소새끼〉인 립크네흐트에게도 조그마한 자리가 차례질것인지…》

이에 대해 통쾌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짤막하게 쓴 립크네흐트의 편지가 대양건너로 날아갔다.

《존경하여마지않는 〈친구〉! 물론 나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나의 웃자리를 차지하는데 조금도 다른 의견이 없네. 그리고 내가 무엇이건 배울수 있고 또 우러러볼수 있는 사람들사이에서 지

낸다면 오히려 자네 그 바우에르와 같은 〈대인물〉들의 모임에서 가끔 볼수 있는 남을 내려다보아야 하는편보다 훨씬 기분이 좋고 행복하단 말이야.

그 오물통에서 살이 찌며 오래 살아가게. 자네가 이름 달아준 감상적인 하늘소새끼로부터.》라고.

이렇게 립크네흐트는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어디서부터 썩었는가

고르바쵸브가 1991년 8월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남조선을 행각하고 돌아오는 날 비행장에서 수상 빠블로브, 부대통령 야나예브, 쏘련공산당 정치국위원이며 조직비서인 쉐닌 등의 마중을 받았다.

그는 마중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불쑥 《우리의 공산당원들이 완전히 퇴화되였거든!》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서방식가치관으로 볼 때 쏘련공산당원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소리였다.

이에 내심으로 격분한 쉐닌은 고르바쵸브를 념두에 두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가운데서 한 공산당원이 제일 많이 퇴화되였소. 아다싶이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지요.》

이 말에 고르바쵸브는 아연해하였다고 한다.

능란한 《연설》

주은래는 한때 특파원으로 선발되여 동강지구 선두일대의 전반사업을 관할하였다.

사람들은 주은래가 선두에서 《너무 바삐 보냈기때문에 광동에 갈 짬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는 광동에 가서 국민당 우파들과의 분쟁도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때 우익분자들은 주은래의 서기를 체포하여 그가 부대안에서

공산당원들의 역할이 커지고있다는 정형을 적은 비밀편지를 공산당본부에 보냈다고 하면서 장개석에게 끌고갔다.

주은래는 급히 현지에 가서 자기의 명의로 서기를 보증하고 그들을 한시간동안 설복해서야 장개석의 의심을 풀고 서기를 석방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주은래의 서기를 다른 사단으로 조동시키고 서로 대립되여있던 국민당의 좌파와 우파대렬이 모두 일어서서 상대측에 경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주은래는 무엇인가 립장을 밝혀야 하였다. 그는 능란한 연설로 자기를 비난하는자들을 옴짝도 못하게 하였다.

그때 주은래의 연설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나도 이전에는 공산당원이였지요. 그러나 그 어떤 당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당에서 한푼의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나를 출당시키지 않았으니 나는 여전히 공산당원이라고 해야지요.》

그리하여 긴장했던 분위기가 롱말 비슷한 이 한마디 말로 순식간에 풀렸다.

3) 정치외교가들의 인격과 품성

맑스의 생활에서의 한 토막

맑스는 아름답고 고결하면서도 기지있는 품성을 지닌 인간이였다.

그는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의 벗들과 함께 빈민굴을 찾아가 람루한 옷을 입고 집문턱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사탕알을 손에 쥐여주기도 하고 가난에 쪼들려 밭고랑같이 주름진 얼굴에 잘 운신도 하지 못하는 늙은이들에게 그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쥐여주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런 동정심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다.

맑스는 거지들에게는 의심을 품고 대하였다.

당시 영국의 런던에서는 구걸하는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되다싶이하였으며 비록 받는것은 동전잎이지만 벌이가 아주 좋은것으로 되여있었다.

맑스는 다른데서도 그러했지만 영국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던 초기에만 해도 늘 바깥출입을 할 때 무엇이든 가지고있기만 하면 녀자거지는 물론 남자거지들에게도 보태주군 했지만 얼마 안가서 그들에게 속아넘어가지 않게 되였다.

가짜질병과 빈궁을 솜씨있게 꾸며내여 무엇인가 뜯어내려고 하는자들에 대하여 맑스는 분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는 인간의 동정을 착취하는것은 가장 파렴치한 일로 빈민들을 략탈하는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남녀거지가 우는 애를 안고있을 때에는 그 거지들의 얼굴에 모든 기만술책이 아무리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해도 맑스는 어쩔수없이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의 손에 한페니나 반페니의 돈을 쥐여주군 하였다.

엥겔스의 위인다운 겸손성

맑스와 엥겔스는 처음에 서로 제가끔 독립적으로 사색하고 탐구해오다가 마침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여 사상적으로 서로 리해하고 친근해져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벗으로서 협력하게 되였다.

맑스가 서거한 후 엥겔스는 자기가 무르익힌 사상을 부드럽고 탄력있는 필치로 묘사한 저서에서 두사람의 리론적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마디 언급하였다.

《이 기회에 나의 일신상의 이야기를 몇마디 하게 되는것을 용서해달라. 최근 우리의 새로운 프로레타리아계급의 리론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가 거기에 기여한바를 강조하는분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점을 명백히 하여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와 맑스는 40년간 협력하였는데 협력하기 전이나 협력한 후에

나 내가 이 리론의 건설과 완성에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데 대해서는 나로서도 부정할수 없다.

그렇지만 지도적인 근본사상의 대부분 더우기 경제와 력사에 관계되는것 그리고 이 근본사상의 결정적인 예리한 파악 등은 모두 맑스가 한것이였다.

내가 기여한것은 기껏해서 한두곳의 전문부분이며 그것을 내놓고는 내가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들이였다. 그런데 맑스가 수행한것들을 나라면 혼자서 해내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맑스는 우리들모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서 훨씬 폭넓게 보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있었다.

맑스가 없었더라면 이 리론은 오늘 도저히 현재와 같은 뛰여난 리론으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아니요. 당신은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닌은 남달리 규률을 잘 지키며 그 모범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1918년 레닌이 뻬뜨로그라드(당시)에서 모스크바로 옮긴 후 크레믈리에서 있은 일이다.

레닌의 저택으로 통하는 복도에 크레믈리사령관은 전로중앙집행위원회의 학교 학생들로써 보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증이 없는 사람은 누구이건 레닌의 집으로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주었다.

어느날 레닌은 통행증을 집에 두고 왔다.

레닌은 낮에 집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겨 자기 집으로 가는데 당직학생은 레닌의 얼굴을 몰랐기때문에 통행증을 요구하였다.

통행증이 없는 레닌은 난처해하며 《바로 저 문이 우리 집으로 가는 문이요.》라고 하니까 학생은 《저는 모릅니다. 통행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레닌은 사령부에 찾아가 1회용 통행증을 떼가지고 왔다.

교대가 끝난 후 당직학생은 이 사실을 자기 지휘관에게 보고했는데 사령관은 《동무가 누구를 통과시키지 않았는지 알겠소?》라고 물었다.

《저는 모릅니다.》

《여보, 인민위원쏘베트위원장인 레닌이란 말이요.》라고 말하며 사령관은 그를 질책하였다.

학생은 자책에 모대기며 머리를 그러잡고 사과하려 레닌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레닌은 《아니요. 당신은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믈리령역에서 사령관의 명령과 지시는 법인데 어찌 인민위원쏘베트위원장인 나로서 그 법을 위반할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지. 당신은 옳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회담때의 쓰딸린

국제적인 회담이 열릴 때마다 쓰딸린은 언제나 자기의 의견을 서둘러 내놓지 않고 먼저 대방에게 발언을 하게 한 다음 자신은 묵묵히 듣군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대통을 꺼내여 가치담배를 몇대씩 뽑아 천천히 부스러뜨려서 대통에 재워 빨았다.

상대방의 의도를 다 파악한 다음에야 그는 자기의 견해를 조리있게 표명하였다. 발언을 할 때 이따금 몸에 간수하고 다니던 수첩과 빨간 연필을 꺼내놓고 말을 하는 한편 승냥이대가리를 그리군 했다. 성이 날 때면 승냥이의 귀를 특별히 크게 그리거나 연필을 콱콱 눌러 승냥이대가리옆에 배경을 그려넣군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 루즈벨트의 로어통역을 맡았던 챨즈 펠톤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쓰딸린)는 말을 하면서 빨간 연필을 가지고 종이우에 승냥이대가리를 몇개 그리군 했다.

뿐만아니라 언제나 친절한 태도를 취하며 말을 잠간 그치고 통역원이 자기의 말을 빠짐없이 정확히 통역하게 했다. 그는 격한 심정을 표현한적이 없었으며 손짓을 하는 일도 드물었다.》

모택동과 그의 며느리 류사제

모택동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서 모든 심혈을 국사에 쏟아부었고 사업을 통하여 비통한 마음을 달래였다.

며느리 류사제는 매주 한번씩 시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하였는데 그는 며느리에게 종시 아들의 희생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자니 그는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하였다.

류사제는 매번 올 때마다 《안영동무의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저한테는 몇달이 되여도 왜 편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군 하였다.

그때마다 모택동은 사제가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번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하면서 그를 위안하였다.

이처럼 그는 2년동안 그 소식을 숨겨두고 혼자서 아들잃은 슬픔을 걸머지고있었다.

모택동은 그동안 손가락을 꼽아가며 호남의 사투리가 심한 말투로 사제에게 선렬들의 사적을 이야기해주었으며 자기 가정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장렬하게 희생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번 렬사에 대하여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류사제는 그때 20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으므로 혁명을 하자면 가슴아픈 희생도 있다는 시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긴 말을 완전히 리해하지 못하였다.

모안영이 희생된지 2년후 모택동은 사제에게 이 불행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결심하였다.

그날도 그는 또다시 사제에게 자기 모씨네 가정에서 혁명을 위하여 희생된 양개혜, 모택민, 모택건, 모택담, 모초웅과 소산당지부서기 모복한 등에 대하여 말하였다.

사제는 조선정전협정까지 체결되였는데 왜 편지 한장 없을가, 설마 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들을수록 귀맛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색을 달리하려고 하지 않

았다.

예순살나이에 이른 시아버지의 쓸쓸한 얼굴표정을 본 그는 도리여 모택동을 위안해주었다. 이날 그는 중남해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뒤숭숭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사제가 다시 중남해에 들렸을 때 모택동은 주은래를 초청하여 함께 사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은래는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류사제에게 《항미원조보가위국》을 위하여 수많은 전사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모안영도 역시 그들중의 한사람이다.》라고 가볍게 말하였다.

그러나 류사제에게는 이 한마디의 말이 무서운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는 너무도 슬픈 나머지 죽고싶은 마음으로 모택동의 어깨에 엎드려 가슴이 터지도록 울고 또 울었다.

목석처럼 앉아있는 모택동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주은래는 사제에게 쏘파에 누워 원기를 좀 돋구라고 권고하였다.

그다음 모택동의 손을 만져보다가 깜짝 놀라 급히 낮은 목소리로 사제에게 말하였다.

《사제야, 그만 울어라. 네 아버님 손이 얼음장같구나!》

류사제는 놀라 다시 울면서 시아버님께 달려가 위로하였다. …

신혼살림을 시작한지 겨우 1년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영결하게 되였으니 사제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였다.

그는 시아버님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집안에 숨어서 혼자 울음을 삼켰다.

모택동은 식탁에 마주앉아서도 류사제의 뻘건 눈과 부은 눈두덩을 보자 긴 한숨을 쉬고 저가락을 놓은 다음 물 한모금, 밥 한술 넣지 못하고 일어나 천천히 밥상에서 물러났다.

이때부터 류사제 역시 모택동과 같이 억지로 비통한 마음을 누르면서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 한구석에 간직된 슬픔의 크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날을 따라 점점 여위고 해쓱해지는 류사제를 보면서 모택동은 그를 위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기마련이다. 모안영이 단지 내 아들이기때문에 중조인민을 위하여 희생되여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단다.》

모택동주의

1948년 8월 13일 화북대학 교장 오옥장은 주은래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화북대학창립대회때 《모택동사상을 모택동주의》로 하겠다는것을 제기하였다.

모택동은 오옥장의 전보를 접수한 후 즉시 8월 13일 오옥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 무슨 모택동주의라는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모택동주의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또한 모택동주의를 학습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생들에게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리론과 중국혁명의 경험을 학습하도록 호소해야 합니다.…그밖에 일부 동무들은 출판물에 나의 이름을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과 동급에 놓는데 이것 역시 착오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모두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해로운것이므로 이런 표현을 견결히 반대해야 합니다.》

소문나지 않은 결혼

의지가 강한 등영초가 주은래의 생활속에 뛰여들었다.

4년전에 헤여졌다가 다시 만난 그들은 정치활동에서는 서로 떨어져있었으나 감정생활에서는 갈라져있지 않았다.

1925년 그들은 소문없이 결혼하였다. 그때 주은래는 27살이고 등영초는 21살이였다. 당시 부모들이 혼사를 독단하던 때였지만 그들은 서로 자기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결혼식이라는 명색을 내지 않고 많은 벗들이 모인 자리에서 8가지 합의조항을 선포하였다.

그 8가지 조항이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도와주고 격려하며 의논하고 량해하며 신임하고 파악하는것이였다.

장기간 그들은 약속을 지키였다.

그것은 중국의 부부생활사에 가장 성공적이고 충실하며 자주적이고 감화력있는 결혼이였고 서로 류사한 배경과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생활적결합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1926년 등영초가 광동에서 딸을 류산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사이에 자식이 있을수 있었던 마지막기회였다.

주은래의 회답편지

1960년대초 주은래는 변강의 궁벽한 산골에서 살고있는 조카로부터 한장의 청탁편지를 받아본 일이 있었다.

그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났는데 너무 오래동안 촌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하다보니 이제는 도시생활이 그리워지고 다른 젊은이들처럼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도 걷잡을수 없이 커갔다.

드디여 그는 용단을 내리고 삼촌인 주은래총리에게 자기의 소박한 소원을 담아 정성껏 쓴 청탁편지를 보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조카의 부탁이니만치 삼촌이 기꺼이 그리고 의심할바없이 들어줄것이고 소원도 다 풀어줄것이라고 크게 기대하면서.

주은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냈다.

…오래간만에 너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다.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하고있다니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네가 부탁한것은 들어주기가 곤난하구나. 나는 비록 한 나라의 총리이지만 자기 조카를 마음대로 지방에서 수도로 끌어올리거나 대학에 입학시킬 권한이란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월권행위를 하면 안된다.

네가 정 도시생활이 그립다면 베이징에 올라와서 보고싶은것들을 다 구경도 하고 우리 집에 묵으면서 실컷 놀다가 가는것을 환

영한다.

대학입학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선 네가 속한 당, 행정조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그다음에는 대학에 와서 꼭 입학시험을 쳐야 한다. 만일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면 나도 별수가 없지만 합격이 된다면 베이징에 올라와서 대학기숙사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서 다니는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네가 공부할수 있는 방도 한칸 내주겠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주은래도 인간인 이상 조카를 잘 키우고 그가 원하는것을 다 해결해줄 마음인들 왜 없었으랴. 그러나 주은래는 자기의 조카 한사람이 잘되기를 바란것이 아니라 수억만 중국의 청춘남녀들이 다 옳바른 교양을 받아 잘되기를 더 바랐던것이다.

그리하여 주은래는 조카의 편지를 모든 청년들이 다 읽고 스스로 교훈을 찾을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하라고 지시하였다.

류몽인이 재판정에서 시를 읊다

류몽인은 리조시기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당시 리조참판이라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다. 그는 왕의 추종자들과 묻어돌아가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조가 광해군을 내쫓고 왕이 되였을 때에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광해군의 추종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은것처럼 새 집권파들에게도 아부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떠돌이생활을 하였다.

새 왕을 받들지 않고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류몽인을 집권파인물들이 달가와하지 않는다는것을 눈치챈 류응시라는 약삭바른 현령이 반역음모라는것을 날조하여 관가에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류몽인은 양주의 서산이라는 곳에서 불의에 체포되여 끌려왔다.

그러자 조정안에는 반역자를 심문하는 어마어마한 특별재판정이 꾸려졌고 이른바 죄인이 거물급인물인것과 관련하여 재상급의

심문관들이 사건을 심의하였다.

《죄인 류몽인, 듣거라. 네 어찌하여 반역음모를 꾸미였느냐?》

《광해군과 같은 폭군이 반드시 망한다는것이야 아낙네와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이거늘 내 어찌 그 용렬한 옛임금을 생각하여 반역음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네 어찌하여 새 임금을 반대하여 숨어버렸느냐?》

《나는 숨어버린것이 아니라 다만 서산에 가서 잠시 살고있었을뿐입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류몽인의 변론은 사리가 명백하고 주장이 당당하였다. 심문관들도 그의 답변에 트집을 걸 건덕지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류몽인을 반역죄에 옭아매여야 하였던 집권파인물들이였다.

심문관들이 이번에는 류몽인이 있던 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너는 어찌하여 하필이면 서산에 가있었느냐?

옛날 주나라 무왕이 폭군 주를 내쫓고 임금이 되였을 때 무왕을 반대한 백이, 숙제 두 형제가 항거의 표시로 들어가버린 고장의 이름도 서산이 아니였더냐.》

《…》

류몽인은 입을 꾹 다문채 대답이 없었다.

《대답을 왜 못하느냐. 하긴 더 할 말이 없겠지.》

그래도 류몽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였다.

심문관들의 질문은 사실에 맞지 않는것이였고 또 박식한 해학가인 그는 그쯤한 질문에 말문이 막힐 사람도 아니였다.

류몽인은 어쩌면 저 심문관들이 이토록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고 생각하고있었다. 백이, 숙제가 숨어버린 서산은 옛 중국의 서산이요, 그가 잠시 가있던 서산은 이 나라 서산이다. 이 두 서산은 수만리 떨어져있고 서산에서 죽은 백이, 숙제와 류몽인자신은 몇천년을 사이에 두고있으니 이름 하나만이 우연히 같을뿐인 지명을 가지고 반역자로 모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는 당장 등신같은 심문관들을 조롱해주고싶었다. 어느새 그의 머리속에

는 그 어떤 섬광과도 같은 시상이 번뜩이였다.

이윽고 류몽인은 감고있던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일찌기 〈늙은 홀어머니의 노래〉라는 시 한수를 지은것이 있습니다. 이 시는 나의 뜻을 나타낸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시때문에 죄를 준다면 나는 죽어도 한을 풀고 가겠습니다.》

류몽인이 이같은 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심문관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아연한 낯색을 지으며 당황해하고있을 때 류몽인이 시를 읊는 소리가 살벌한 공기를 가르며 어마어마한 재판정에 울리였다.

일흔나는 늙은 홀어미
절개지켜 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시집가라 권했네
얼굴 잘 생긴 신랑감 있다고

절개높은 옛시도 읽어보았고
지조가 무엇인지 알고있거니
백발의 늙은이 신부처럼 한다면
연지분 바르기도 부끄럽지 않을가…

류몽인이 시를 다 읊고나서 껄껄 웃었다. 그것은 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웃음이였다. 그 웃음속에 백발의 머리카락과 흰 수염발이 떨렸다.

정신이 어리벙벙해진 재판관들은 그 모양을 보고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류몽인이 시의 제목을 《늙은 홀어머니의 노래》라고 한 뜻을 그들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던것이다. 그때 류몽인은 예순네살의 늙은이였다.

결국 그는 자신의 뜻을 칠십살난 늙은 홀어머니에 빗대여 표현하였다.

그의 시에서 늙은 홀어미에게 시집을 가라는 사람들의 권고는 집권파세력이 새 왕을 받들것을 은근히 강요하는데 대한 풍유적인 비유이며 절개높은 옛시도 읽어보았고 지조가 무엇인지도 알고있다는 시구는 그런 옛시, 그런 지조는 당신들도 나도 다같이 배우고 숭상해오면서 입에 올리던 말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담고있었다. 그리고 백발의 늙은이가 새색시차림을 한다면 연지분 바르기도 부끄럽지 않겠느냐라는 말에는 내 비록 죽는다해도 신념을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있었고 동시에 늙은 나에게 신념을 바꾸라고 하는 당신들은 과연 부끄러운줄도 모르는게 아니냐 하는 질책이 숨겨져있었다.

류몽인이 읊은 시를 듣게 된 심문관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그를 죽이지 말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권파세력의 우두머리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류몽인을 죽여야만 새 임금을 받들지 않는자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고 하며 목에 피대를 돋구었다.

그리하여 삼족을 멸살시키는 그 시기 법에 따라 류몽인은 아들 류약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충신의 거짓말

세상에 충신이 거짓말을 하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고려 후반기의 관료였던 리제현은 거짓말을 하고 충신으로 찬양받았다.

어느해인가 원나라에 갔던 충선왕은 그곳에서 한 녀인을 알게 되였다. 그 녀인은 고려왕에게 마음이 끌려 어느덧 정이 깊어지게 되였다.

충선왕이 귀국하는 날 그 녀인은 멀리까지 따라나와 왕을 바래드리면서 리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녀인이 너무 그러니 왕도 그와 무심히 헤여지기 아쉬워서 련꽃 한송이를 꺾어 그에게 안겨주고 왔다.

돌아온 후 충선왕은 이따금 그 녀인을 생각하군 하였다. 이것은

자기를 못내 따르던 녀인에 대해 잊지 못하는 애틋한 심정에서였다.

세월이 퍽 지난 후 어느날 왕은 리제현에게 통지하여 녀인을 만나보고 올것을 분부했다.

리제현이 그 녀인을 찾아가니 녀인 역시 충선왕을 못내 그리워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심하게 앓고있었다.

충선왕의 소식을 들은 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기뻐하였으나 기력이 진하여 말은 못하고 붓을 들어 시 한수를 지어주었다.

주고가신 련꽃송이
붉고붉어 싱싱터니
꺾은지 몇날인가
시들기 나와 같네

리제현은 그 녀자의 갸륵한 소행이 매우 기특하였다. 그래서 녀인이 병치료를 잘하도록 극진히 도와주고 귀국하였다.

리제현은 충선왕을 만나 그사이 진행한 일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때 왕은 말을 다 듣고나서 어줍은 태도로 그 녀인에 대해 리제현에게 물어보았다.

《그가 잘 있더냐？》

《네, 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더냐. 아직 나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던가?》

리제현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였다.

《그랬으면 신의 마음도 기뻤을것이오이다. …》

《그게 무슨 소린고？》

《말씀올리기 거북하옵니다만 제가 그 녀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술집에서 딴 사내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있었소이다.》

《뭐라구?!》

《그래 조용한 틈을 타서 겨우 만나 여기 소식을 전하고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하였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뒤 종

적을 찾지 못해 여러날 헤매다 돌아왔나이다.》
《에익, 더러운 년!》
충선왕은 분기가 살아올라 침을 탁 뱉았다.
《내가 이웃나라의 그런것을 가련히 여긴것부터가 잘못이지.》
이때 리제현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충선왕은 그후부터 녀인에 대한 생각을 싹 잊어버렸다.
몇해가 지난 어느해 왕의 생일날이였다.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차례가 되자 갑자기 리제현이 왕의 앞에 한발 나서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신이 전일에 큰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주소이다.》
《죄라니. 그게 대관절 무슨 소린고?》
리제현이 이때에야 그 녀인이 써주었던 시를 품안에서 꺼내여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전후사연을 아뢰이며 죄를 스스로 청해나섰다.
녀인의 시를 한동안 들여다보며 말없이 서있던 왕은 이윽고 천천히 리제현을 잡아일으키며 말했다.
《그대가 그때 이 시를 나에게 주었더라면 난 만사를 제쳐놓고 그리로 달려갔을것이요. 허지만 경이 나를 걱정하여 말을 꾸미였으니 내 성업을 이룩하는데 허물이 없었도다. 그러니 이는 재앙을 막아준것이요. 경의 충심에 감동할뿐이노라.》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축배를 청하였다.

정몽주의 소탈성

항간에서 정몽주(고려 말기의 관료)에 대하여 평생에 뜻과 절개가 높고 사람들을 간격을 두고 대하는 일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정몽주가 소탈한 사람이였다는것은 그가 크게 성공한 이후에 있었다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조용한 기회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정몽주에게 스스럼없는 롱담을 한마디 건넨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세가지 지나친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있습니까?》

정몽주는 소탈하게 허허 웃고나서 악의없이 반문했다.

《그것 참 흥미있는 일이요. 어디 좀 알려주시구려.》

성을 내거나 까박을 붙인다면 분위기가 어성버성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겠는데 정몽주가 너무도 소탈하게 받아주어서 쉽게 다음말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대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면 제일먼저 자리에 앉아서 술을 굉장히 마시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야 자리를 뜨는 밑이 질긴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아하, 그것은 사실이요. 나는 애젊은 시절 시골에서 지낸 때가 많았소. 그때 탁배기 한 대야가 생겨도 이것을 친척, 친우들과 나누면서 실컷 즐겨보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했댔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소. 내 처지가 그때보다는 벼슬도 높아지고 살림살이도 곪지는 않게 되였다오. 그래서 늘 친구들과 자리를 같이하지요. 술방구리에도 술이 차있으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오래동안 앉아서 서로 즐기고싶단 말이요.》

상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몽주의 술자리가 밑이 질기든 술을 많이 마시든 그가 언제 한번 취해서 비칠거리고 망동을 부리는것을 본 일이 없었던 까닭이였다.

정몽주가 술을 마시는것도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지 자기의 향락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상대가 다음문제를 물어보았다.《또 이런 말들도 있지요. 그대가 녀색에서 청백하지 못하다고 말이요.》

정몽주는 이 문제를 대번에 말하기는 좀 어색했던지 껄껄 웃고나서 대답했다.

《색을 즐기는것이야 사람의 응당한 심정이라오. 이것을 부정하는것은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요. 나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사람들이 떠받드는 옛성인들도 다 장가를 가서 자손을 보았소. 그러니 그도 색을 싫어한것은 아니지 않소.》

질문자는 정몽주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감동이 더 커졌다. (옛 성인에게도 자식이 있고 후손들이 있는것이 그가 색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고 한 정몽주의 말은 자기가 색을 싫어하지 않는다는것만 말한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답게 처신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고있지 않는가.)

질문자가 마지막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그대가 외국물건을 무역하여 집안에 끌어들이는데 무관심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

이 말을 듣자 정몽주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마에 땀까지 약간 돋는것 같았다. 그러자 질문자는 지레짐작으로 (아하, 정몽주가 이 물음에 대해서만은 대답이 딱한 모양이군. 공연히 솔직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미안한데.) 하는 생각을 가지였다. 하지만 다음순간 정몽주의 입에서 솔직한 말이 쏟아져나왔다.

《이 늙은것이 집이 가난한데 아들딸은 점점 커가지 않소. 안사람은 나보구 〈남들이 우리 집을 대가집이라고 쳐다보는데 대가집 혼인에 남들이 다 쓰는 외국옷감 하나 없어서야 어찌겠소. 〉라고 하는것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해의 말을 아예 잘라버릴수는 없었소. 그리고 말이요. 무역을 해서 유무상통하는것은 옛날 성왕성인들이 내놓은 제도거든. 그러니 반대해서야 안되지요. 그런즉 내가 왜 그것을 꺼려야 하겠소. 》

(얼마나 솔직한가. 자기 집안의 결함까지도 다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라의 부흥발전에서 무역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옛성인들처럼 그것을 바로 운영하려는 결심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질문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나서 물어보기 거북한것을 본인에게 직방 물어본 후련한 심정과 대답하기 딱할수 있는 문제를 숨김없이 말하는 정몽주의 소탈함에 대한 존경으로 마치 무슨 큰 산고개를 넘어선 사람같은 시원한 기분에 사로잡히였다.

그런 심정을 담아서 질문자는 손을 홰홰 내저으면서 말했다.

《에에 이제까지 물어본건 다 롱담이였소. 》

《허허허, 롱담속에 진담이 있다고 하지 않소. 그대의 말을 듣

고보니 내가 고쳐야 할 허물과 약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란 생각이 드오. 숨김없이 속생각을 말해주어 정말 고맙소.》

그후부터 정몽주는 생활을 절제있게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황정승의 송사판결

황희(리조시기 관료)는 자기에게 송사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량편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리해시켜 원만히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립장과 태도에 대해서 《차라리 너무 경한 벌을 적용하는 실책을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형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하군 하였다.

한번은 관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녀종이 달려나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들어보니 다른 녀종과 리해가 서로 달라서 말시비를 한것이였다.

황희는 《너의 말이 맞는것 같다.》하고 달래서 돌려보냈다.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말다툼을 한 다른 녀종이 달려와서 자기에게 잘못이 없고 먼저 송사한 녀종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

황희는 그 말을 인내성있게 다 듣고나서 《네 말이 맞는것 같다.》고 하였다.

황희의 이런 식 송사판결을 두고 주견없이 량쪽에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량편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을 리해하여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송사판결에 응하게 하려는 황희의 의도가 알려진다. 그러기에 황희에게서 송사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송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나는 온양의 고불이라는 사람이네》

세종왕시기 맹사성이 우의정으로 있을 때 일이다. 온양땅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게 된 맹사성은 조용히 준비를

갖춘 다음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하인 한사람을 데리고 소를 타고 길을 떠났다.

조정의 정승이 행차한다는 소문을 들은 양성과 진위 두 고을의 원들은 장호원에까지 나와 맹사성을 기다리고있었다.

원들의 명령에 의해 두 고을의 사령과 포졸들은 일반행인들의 래왕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큰길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 초라한 시골선비차림의 한사람이 소를 타고 이제 재상이 지나가게 될 큰길로 뻐젓이 들어섰다.

《게 섰거라. 웬놈인데 감히 재상이 지나가게 될 길을 앞질러 가는거냐?》

사람들은 륙모방망이를 꼬나들고 소리지르며 뛰여갔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 볼기를 쳐라.》

두 고을의 원들도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소잔등에 타고있던 늙은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온양의 고불이라는 사람이네. 고불이 제 소를 타고 제 갈길을 가는데 어째서 이놈저놈 하며 소란을 피우는거냐?》

그 말 한마디에 두 고을의 원들은 물론 사령들도 막대기처럼 꼿꼿하게 굳어져버리였다. 고불이란 맹사성의 호였던것이다. 조정의 재상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며 감히 이놈저놈 하고 소리까지 쳤으니 세상에 이런 무례한짓이 또 어데 있단 말인가.

바빠난 두 원은 용서를 빌 엄두도 못내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바람에 어느 한 원은 몸에 지녔던 관인까지 길가의 련못에 빠뜨려버리였다. 이때부터 그 련못을 《인침연》(인장이 빠진 못이라는 뜻.)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단호한 결별

리조시기의 관료였던 리덕형은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재상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나라일이 하도 바빠 집에 들어가 밥먹을 틈

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궐문밖에 작은 집 한채를 마련하여 거기에 얌전하고 촉기빠른 젊은 녀인을 한사람 두고 식사를 보장하게 하였다.

하루는 날이 무덥고 왕앞에서 아뢰는 일이 장시간 계속되였다. 피로끝에 목이 심히 마른 그는 왕앞에서 물러나자 급히 대궐문밖에 있는 그 녀자의 집으로 가서 말도 못하고 손부터 내밀었다.

눈치가 빠른 녀인은 그가 목이 마르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하였던지 준비해두었던 약재를 꿀에 넣어서 끓인 제호탕을 내밀었다.

참으로 갈수록 사랑이 가는 녀인이였다.

(어떻게 속마음을 이리도 잘 알고 이런것까지 준비했담. …)

리덕형은 그릇을 받아들었으나 인차 마실수 없었다.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리덕형은 녀자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불쑥 청천벽력같은 말을 꺼냈다.

《이제부터 너하고 결별해야겠다. 그러니 그리 알고 너 갈데로 가거라!》

그리고는 더 다른 말이 없이 돌아보지도 않은채 문을 닫고 나가버리였다.

녀인은 눈물이 그렁하여 자기의 처사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수 없었다.

밤새껏 엎치락뒤치락하며 눈물속에 지샌 녀인은 다음날 리덕형과 가장 친한 사이인 리항복을 찾아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애달픈 심정을 털어놓았다.

《상공께서 왜 갑자기 저를 버리셨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나이다. 소녀 만약 죄를 지었다면 백번 소박당해 마땅하오나 도저히 영문을 알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리항복은 도대체 무슨 일때문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옆에 앉은 녀인은 그야말로 이슬을 함초롬히 머금은 이른새벽의 모란이요, 쑥 뽑힌 흰목이며 불그레한 두뺨은 어디에 내세워도 손색없는 일등가는 미인이라 그를 싫어할 까닭이 있어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소곳이 내리뜬 두눈에 흘러내리는 맑은 눈물은 녀인의 진정과 순결하고도 깨끗한 사랑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허참, 이런 맹랑한 일이라구야. 한음공이 그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것을 나도 알고있는터인데 어찌 그렇게 가벼이 버릴수 있으리오. 내 알아보겠네.》

녀인은 리항복에게 거듭 사례한 후 애절한 눈빛을 남기고 떠나갔다.

녀인이 떠나간 후 리항복은 즉시 리덕형을 찾아갔다.

《그대 사랑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죄없이 버림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리덕형은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일때문에… 죄야 무슨 죄가 있겠소. 그로 말하면 지내볼수록 사랑이 가는 녀인이요. 내가 전일에 일을 하다가 날이 몹시 덥고 또 목이 마르고 피로하여 그의 집에 찾아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손만 내밀었더니 글쎄 미리 준비해두었던 제호탕을 내놓는것이 아니겠소. 그 총명하고 령리함이 하도 사랑스러워 한참 바라보느라니 백가지 태도가 여느날보다 더 알뜰하고 예쁘게만 보였소.

그러나 그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소.

나라가 란후에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못하여 모든 일들을 아직 반석우에 올려놓지 못한 오늘 재상의 중임을 맡고 한 녀자에게 련련(안타까울 정도로 몹시 그리는것.)한다면 반드시 나라일에 방해가 될것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괴로운대로 결단코 정을 떼버리고 사랑을 끊어 국사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소.

내가 그와 결별을 선언한건 이것때문이요.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한건 아니요.》

리덕형의 말을 듣고 리항복은 크게 느껴지는바가 있어 머리를 끄덕였다.

《공이야말로 충신일세그려. 하지만 충신도 녀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더 빛이 나는게 아니겠소.

그러니 잘 생각해보오. 그처럼 깨끗한 녀인의 사랑을 거절하다니.》

《걱정해주어 고맙소. 내 좀더 생각해보리다.》

리항복의 말이라면 형이 주는 충고처럼 무겁게 받아안는데 습관된 리덕형이였으나 이 일만은 석연히 받아들이기 힘든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후로는 그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엄세영의 결단

엄세영은 리조 고종왕때 승지라는 벼슬을 한 사람이다. 그의 곧은 마음과 칼날같은 성질은 그 누구도 당하기 어려울만큼 무섭고 단단하였다.

그는 당시 나라의 정사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하였으며 나라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면 팔도가운데서 제일 썩은 전라감영부터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은 전라감영에 아전으로 있는 백락서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였다.

백락서는 대대로 아전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재부는 전라도뿐만아니라 팔도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툴만한 부자였다. 그는 전라도 전주에 있어도 서울조정에서 결정하는 일을 반드시 사흘안으로 알군 하였다.

백락서는 조정의 일을 오백리밖에 앉아서 손바닥에 놓고 보는것처럼 훵하니 알고만있을뿐아니라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감사건군수건 누구라 할것없이 그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든지 목을 잘라버리든지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그래서 전라감사로부터 부사, 군수에 이르기까지 새로 부임되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백락서에게 잘 보여야 하였다.

엄세영은 어느때든지 이놈의 목을 베여버리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런 엄세영이 고종왕으로부터 삼남선유사(삼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말함. 선유사는 나라에서 전쟁이나 다른 큰일이 생겼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의 정치와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던 림시벼슬)로 나가서 지방민정을 살펴 탐관오리를 적발하며 민심을 어루만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주고 돌아오라는 령

을 받았다.

그가 선유사로서 길을 떠나기 전에 당시 수구당의 우두머리로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민영익과 나라의 실권자인 대원군을 만났을 때 다같이 백락서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뜻밖에도 민비(왕후)의 편지가 한장 놓여있었다.

《전라감영에 있는 백락서를 부탁한다.》

편지에는 이 한구절만 적혀있었다.

당시 대원군과 민비는 원쑤같은 사이에 있었으나 다같이 백락서를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백가가 이렇게도 사방에 모두 통하는 놈이로구나!》

그는 자기도모르게 중얼거렸고 그 어떤 압박감을 느끼였다.

그럴수록 그는 백락서를 처단하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며칠후 엄세영은 전라감영에 도착하였다.

엄승지를 맞은 감사와 아전과 모든 리속들은 환영연을 베풀었다.

환영연이 끝날무렵 백락서는 엄승지앞으로 다가오며 떠나기에 앞서 자기 집으로 행차해줄것을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였다.

엄세영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나이는 자기와 비슷해서 오십이 될가말가해보이는데 얼굴은 영특하게 잘 생겼다.

몸집도 좋고 키도 큰 편이며 더우기 음성이 굵은것이 어디로 보나 문벌좋은 량반의 집에서 태여났더라면 재상감이였다.

그러나 그의 다홍빛나는 입술가에는 얼른 보아서는 아무도 발견할수 없는 간교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그는 백락서를 순간에 살펴보고나서 시치미를 떼고 선선하게 응낙하였다.

이날밤 백락서의 사랑에는 서울장안에서도 구경할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이튿날 엄세영은 원의 행악질이 많다는 정읍고을에서 토호량반들과 원들을 용서없이 처단하고 십여일만에 다시 전라감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울을 떠날 때 마음속에 결심한바가 있었으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자기를 마중하는 감사와 아전들을 대하였다.

선화당에서 감사와 선유사사이에 그동안 십여일간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백락서가 또 찾아왔다.

《래일은 어느 고을로 행차하시려 하옵는지 알고저 하옵니다.》라고 백락서가 말하였다.

《아직 미정일세.》

엄세영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백락서는 허리를 한번 굽실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시다면 우선 오늘밤 소인의 집으로 가시는것이 어떠하올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볼가. 있다가 내가 자네 집으로 갑세.》

엄세영은 이번에도 백락서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간단히 승낙하였다.

백락서가 돌아간 후 엄세영은 감사에게 자기가 백락서의 집에 가서 있을테니 감영에 있는 군졸 오십명과 걸음이 빠른 좋은 말 한필을 백락서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사는 선선히 응하였다.

엄세영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듣던것보다 실지 전주에 와서 보니 백락서의 배후세력은 상상하였던것보다 더 굉장하였다.

전주와 전라도일대에서 소위 행세한다는 량반들도 돈보따리를 들고 백락서의 집을 찾아가야만 벼슬이 차례지며 조정과 지방에서 관직을 가지고 행세하는자들의 감투와 사모가 부지된다는것이 사실이였다.

엄세영은 다시한번 백락서를 처단하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날 그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산해진미의 진수성찬을 받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무렵 백락서는 여기서 보실 일은 다 끝냈는가고 물었다.

엄세영은 다 끝냈는데 꼭 한가지 볼 일이 남았다고 대답하였다.

《한가지 남은 일이란 무슨 일이온지…》

백락서가 마음을 놓고 허물없이 묻는데 엄세영은 그의 얼굴을 빤

히 바라보면서

《응! 꼭 한가지 남은 일이란것은 바로 자네 목을 베여버릴 일이네!》하고 대답하였다.

순간 백락서는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면서 두눈이 올롱해지더니 엄세영을 쏘아보았다.

이 모양을 본 엄세영은 소리를 크게 질러 대문밖에 대기하고있던 군졸들을 불러들이였다.

《백락서는 나라의 해충인고로 목을 베인다. 속히 잡아내려서 목을 잘라라!》

바위처럼 끄떡없이 앉아있는 엄세영의 추상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제아무리 날고긴다는 백락서였으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 급한 형세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다.

백락서를 뜰아래로 끌어내린 군졸들은 그의 목을 사정없이 쳤다. 백락서의 머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구을렀다. 선유사는 이와같이 백락서를 처치해버리고 그날밤으로 충청도 공주감영까지 삼백륙십리를 그대로 말타고 달음질하였다.

《력사는 나를 무죄로 선포할것이다》

벌가리아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의 한사람인 게오르기 미하일로비츠 지미뜨로브가 도이췰란드파쑈도당이 벌린 이른바 《국회의사당방화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정에서 한 명언이다.

1933년 1월 파쑈독재를 수립한 히틀러도당은 무엇보다먼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히틀러의 수급졸개인 게링그는 대대적인 《반공》공세를 취하기 위한 구실을 꾸며내기 위하여 2월 28일 밤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게 한 후 이미 짜놓았던 각본대로 방화가 공산당의 《작간》이라는 허위선전을 류포시키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검거선풍을 일으키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

파쑈도당은 당시 도이췰란드에서 활동하고있던 지미뜨로브를 비롯한 여러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의사당방화의 죄를 넘겨씌우기 위하여 라히프찌히에서 《공판》놀음을 벌렸다.

지미뜨로브는 법정에서 의사당방화사건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파쑈도당이 날조한것이며 그 진범인은 게링그자신이라는것을 발가놓는 한편 완강하게 자기의 정당성을 론증하면서 《력사는 나를 무죄로 선포할것이다.》라고 긍지높이 웨쳤다.

지미뜨로브의 용감한 법정투쟁은 도이췰란드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았다.

제놈들이 꾸민 모략이 드러나고 진보적인류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파쑈도당은 기소한 공산주의자들을 무죄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법정투쟁에서 한 지미뜨로브의 명언은 그후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보여주는 말로 되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알고 네가 안다》

중국 후한시대에 활동한 정치가인 양진은 박식하고 덕망이 높아 당시 《관서의 공자》라고 불리운 봉건관료였다. 어느날 양밀이라는자가 그에게 뢰물을 주려고 찾아가서 《밤중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하며 물건을 주려고 하였다. 양밀이가 사절하는 양진에게 어서 받으라고 하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알고 네가 안다.》라고 하면서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가.》고 타일렀다. 양밀이 그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 그대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양진의 4지》(네가지를 안다는 뜻.)라는 말이 유래되였다.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중국의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로서 세상이 몹시 어지러웠다.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이 서로 자기가 천하를 차지하려고 다투었고 한 나라안에서도 권력다툼이 그칠새 없었다.

공자가 36살되던 때 그가 태여난 로나라에서도 정사가 험악하여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웃나라인 제나라로 떠났는데 공자일행이 태산기슭을 지나가고있을 때의 일이다.

한 부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있었다.

공자는 수레를 멈추고 제자인 자로를 시켜 부인에게 통곡하는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울며 대답하였다.

《산에 사는 호랑이가 전에 저의 시아버지를 잡아먹고 다음에는 남편을 잡아먹더니 이번에는 자식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공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토록 무서운 이 땅을 왜 떠나지 않는것이냐?》

《하지만 여기서 살면 가혹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니 호랑이만 아니면 살기 좋은 곳이기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라고 신신당부하였다고 한다.

싸움에서 이기고 회담에서 지다

일제의 선제공격에 의하여 도발된 로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밤 려순항과 인천항에 정박하고있던 로씨야함대에 대한 불의의 타격으로 시작되였다.

전쟁에서 교전쌍방은 다같이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추구

하였으나 전쟁은 처음부터 짜리로씨야에 불리하게 진행되였다.

그것은 불리한 수송조건과 국제적고립, 국내 사회계급적모순 때문이였다.

결국 로일전쟁은 짜리로씨야의 패배로 끝났다.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중재하여 1905년 8월부터 로일강화담판결과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였다.

회담에는 짜리로씨야 국무비서 쎄르게이 위떼(이전 재정상), 일본외상 고무라 쥬따로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위떼의 자세는 너무나도 도고하였다.

《보상금은 한Rbl도 낼수 없다. 싸할린섬도 현재 내여준 절반쯤 줄수 있지만 그이상은 줄수 없다. 만약 이것이 싫다면 한번 더 싸워보자.》

짜리로씨야측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 없다는것을 타산하고있었다.

하여 싸할린섬전체는 물론 연해주도 빼앗고 배상금으로 10억～30억Rbl을 받을것을 목적으로 한 고무라의 계획은 물거품처럼 되였다.

돼지가 아니라 오리이다

1940년 어느날이였다. 주은래는 미국작가 베쭌을 만찬에 초대하였다.

기본료리는 갓난 새끼돼지구이였다.

주은래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가락을 집어들고 손님더러 먼저 구운 고기를 맛보라고 손짓하였다.

그러자 베쭌은 저가락을 도로 놓으면서 류창한 중국말로 유태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제야 주은래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게 되였다.

당장 그 료리만큼 훌륭한 료리를 바꿔올수가 없었던것이다.

주은래는 저가락을 다시 들고 껄껄 웃고나서 《여기는 중국

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돼지가 아니라 오리라고 부르지요.》라고 말하였다.

베쭌은 히쭉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다.

미국사람은 저가락으로 그 고기를 꿰여들었다.

이렇게 되여 베쭌은 기꺼이 그 료리를 들게 되였고 연회상에는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였다.

3. 철학자, 과학자들의 기지와 일화

《과학적인 환상,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력이 없이는 과학의 미래를 그려볼수 없으며 과학자체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김 정 일

철학자, 과학자들은 고심어린 과학적탐구과정에 뛰여난 예지와 기발한 착상에 기초하여 놀라운 과학적발견들을 하였으며 자기의 연구성과들을 소개선전하고 옹호고수하는 과정에 능란한 해학과 유모아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재치있는 기지로 자기의 높은 인격과 도덕적품성도 발휘하였다.

1) 철학자, 과학자들의 예지

탈레스의 지향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향학열이 높고 다재박식한 사람으로서 천문학, 기상학, 기하학 등 모든 과학분야에 흥미를 가지고있었다.

그가 이룩한 과학적공헌과 정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남긴 업적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의 《7현》중의 한사람으로 일러왔다.

탈레스가 직심스럽게 학문을 탐구하자 사람들속에서는 그를 비웃거나 질투하는자들이 나타났다.

어느날 저녁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관찰하면서 천문학적문제로

깊은 사색에 잠겨 걷다가 그만 저도모르게 길가에 있는 남의 집으로 들어섰다. 방안에 있던 사람이 그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그 무슨 하늘꼭대기에 있는걸 연구한다더니 제 발밑에 있는게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려.

남의 집으로 뛰여들어온걸 보니 당신의 학문이 아주 알맞는데를 당신에게 대준것 같구만.》

탈레스는 대답하였다.

《높은 곳에 올라본 사람이라야 그 높은데서 뛰여내릴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거요. 당신처럼 지식도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내려올 권리도 자유도 없지요. 무식한 사람은 원래 바닥에 엎드려있기만 하고 언제한번 일어나본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수 있겠소?》

하다면 탈레스의 지향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가 지은 시 한수를 보자.

수다스러운것은 재능과 인연이 없거니
찾으라 그대여 오직 하나뿐인 지혜로운것을
고르라 그대여 오직 하나뿐인 아름다운것을
그때에만 그대는 비로소
수다스러운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리

탈레스가 말하는 《오직 하나뿐인 지혜로운것》, 《오직 하나뿐인 아름다운것》이란 바로 철학이였으며 그의 지향은 바로 철학자의 지향(자연비밀의 인식, 생활지혜의 장악)이였던것이다.

진실로 가난한자

어느날 한 상인이 탈레스를 보고 빈곤하게 사는데 대해 비웃으면서 철학이 쓸데없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상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한 철학가라고들 하던데 그래 그 지

식이 당신에게 뭘 가져다주었소? 돈이요? 아니면 빵이요?》
탈레스는 말하였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지식을 조롱하는것 같은데 그럼 후에 어떻게 되나 보기요!》
그는 풍부한 천문학적지식과 수학, 농업지식을 리용하여 다음해 올리브농사가 대풍작을 이룰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눅은 값으로 온 성안의 착유기를 몽땅 사들이였다.
수확계절이 오자 그가 예견한대로 례년에 없던 올리브풍작이 들었다.
급해맞은 사람들은 저마끔 착유기를 사려고 그의 집 문턱으로 쓸어들었다.
탈레스는 훨씬 비싼 값으로 착유기를 내주어 약차한 돈을 벌었다.
그러니 누가 진짜 가난한자인가!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 탈레스인가, 몇푼 안되는 돈을 가지고 흔들대는 그 상인인가. 탈레스는 지혜의 힘으로 그걸 증명한셈이다.

디드로에 대한 평가

디드로, 드니(1713－1784)는 18세기의 프랑스가 낳은 대표적인 유물론자이다.
디드로는 한평생 어용학자노릇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당국의 탄압을 받았고 책을 몰수당하여 불태워졌고 감옥생활도 하였으며 매우 가난하게 생활하였다.
이런 속에서도 그는 창조적인 사업을 해나갔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고 불굴의 투지를 지닌 사람이였다. 그는 언제나 맑고 참신한 사고와 사색으로 날을 보냈다.
그러기에 당시사람들은 물론 후세사람들까지도 《인간으로서 디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될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 맑게 하여주고 즐겁게 하여준다. 디드로는 인류의 〈마음의 보배〉이다.》라고

말하였다.

엥겔스는 말하기를 《만일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감격〉을 안고 한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디드로이다.》라고 한바있다.

맑스는 자기의 딸로부터 《아버님이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받고 《그거야 괴테이지.》라고 대답하였댔는데 딸이 재차 《그러면 좋아하시는 산문작가는요?》하고 묻자 《디드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디드로는 유물론철학자이지만 소설도 잘 썼다.

그에게는 《라모의 조카》라는 대화체의 철학적소설이 있는데 괴테(도이췰란드의 유명한 시인)가 그 소설을 읽고나서 디드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을 내렸다.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

엥겔스는 그 소설을 《변증법에 대한 산교과서이다.》라고 평하였다.

다방면적인 지식의 소유자 캄파넬라

캄파넬라, 똠마조(1568－1639)는 이딸리아의 승려직업을 가진 작가이며 철학자이며 사회활동가였다.

그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그가 얼마나 박식하였던지 사람들은 당신은 어찌하여 그리도 박식한가고 물으면 《나는 자네들이 마신 술량이상으로 등잔기름을 사용하였기때문》이라고 대답하군 하였다.

《캄파넬라》라는 말의 뜻은 이딸리아어로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지식의 종을 울려 사람들을 깨우치는것을 사명으로 한 그의 넋이 담겨져있다.

그는 1599년 에스빠냐의 지배로부터 이딸리아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단체에 가담했다가 배신자들의 밀고로 실패하여 1600년부터 27년간 감옥에 투옥되였다.

그는 감옥에서 공상적인 리상국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소설 《태양의 도시》를 집필하였다.

소설《태양의 도시》는 사람들사이의 평등을 주장한 나머지 개인소유를 완전히 철페하고 기계적인 생활을 강요하는것과 같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주장한 본질적약점들을 가지고있으나 불합리한 착취사회를 페절하고 누구나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사회에 대한 리상을 제기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진보적측면을 가지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다는 견해는 《태양의 도시》의 중요한 사상으로 제기되고있다.

캄파넬라는 과학적 및 기술적발전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그자신이 공상적인 비행기설계까지 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안목으로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명제에 찬동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 별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전체라는 한집단속에 둥지를 틀고있는 부분은 응당 전체보다 작고 협소하기마련이기때문이다. 또한 이 명제는 인류학문의 최초에 유클리드가 자기 저작의 첫머리에 일반공리로서 채택한바도 있다.

그러므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명제를 절대적진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무한》이라고 부르는 수학세계를 탐험한 사람이며 모임론을 내놓아 현대수학의 정교성을 보장한 칸트로는 이 명제를 새로운 안목으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체는 부분과 같거나 그 부분모임들의 합이 전체 모임의 합보다 클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탄과 깊은 사색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실 자연수의 전체 모임중에서 그와 농도가 같은 짝수모임과 홀수모임이 있는데 그의 합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보다 크다고 말

할수 있다.

칸트로의 모임론을 파고들면 흥미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놀라운 탐구심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의 어린시절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저녁 밥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깃들었는데도 에디슨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등불을 켜들고 에디슨을 찾아 마을앞 시내가에까지 나가보았다. 바로 얼마전에도 에디슨이 내가에서 다리놓는 장난을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것을 건져낸 일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에디슨은 내가에도 없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집으로 되돌아온 아버지는 이번에는 헛간속을 살펴보았다. 이 헛간은 에디슨이 살아있는 풀은 타지 않는데 마른 풀은 왜 타는가를 알아보려고 불을 질러놓았던 그 헛간이였다. 아니나다를가 나무를 쌓아둔 저쪽구석에서 사람기척이 났다. 그쪽으로 등불을 비쳐보니 에디슨이 땅에 배를 대고 엎드려있는것이였다.

《이런데서 무얼 하고있는거냐?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아버지, 떠들면 안돼요.》

《뭐가 안된단 말이냐?》

아버지는 에디슨의 뒤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그자리를 보니 짚이 잔뜩 깔려있고 그우에 닭알이 하나 놓여있는것이였다.

《얘야, 뭘 하고있었니?》

아버지가 의아해서 묻자 어린 에디슨은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병아리를 깨우려고요.》

아버지는 물론 그 말을 전해들은 어머니도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래일의 과학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의 교수였던 베이컨은 순수 공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과학발전의 추이를 타산하여 미래의 과학문명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놀라운 예언을 저서 《뉴 아틀란티스》에 발표하였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물속에서도 타는 불
· 하늘을 나는 사람
· 우주에 있는것을 보는 기구
·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것을 타게 하는 센 빛
· 미세한것을 보게 하는 유리
· 바다물을 마시는 물로 만드는 정제실
· 식물이 대단히 빠르게 자라나게 하는 땅
· 원래보다 동물을 크거나 작게 키우는 사육장
· 대단히 큰 과일
· 멀리 떨어진데서 목소리를 주고받게 하는 판
· 랭장을 위한 깊은 구멍
· 물속으로 가는 배》

지금으로부터 700여년전에 산 그가 레이자와 전화기, 비행기와 잠수함 등을 구상했다는것은 참으로 놀랍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막스웰의 예언

《전기마당이나 자기마당은 물결과 같이 세기를 바꾸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인데 빛도 다름아닌 전자기파의 하나이다.》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막스웰은 전자기파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막스웰이 이런 예언을 하게 된데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충분한

리론적연구가 안받침되여있었다.

막스웰은 선행한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기마당의 둘레에는 그의 그림자와 같은 자기마당이 함께 생기는데 이 두 마당 즉 전기마당과 자기마당은 서로 뗄수 없는 련관속에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막스웰은 이 두 마당을 전자기마당이라는 하나의 통일적인 마당으로 보았고 그것이 파동의 형태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전자기파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예언을 내놓았던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48살의 한창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막스웰은 자기가 예언한 전자기파의 발견을 볼수가 없었다.

막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1884년에 헤르쯔에 의하여 실제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것이 증명되였고 그것은 다시 뽀뽀브와 마르꼬니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낳게 하였다.

카발리예리의 착상

이딸리아의 문예부흥시대에 카발리예리(1598－1647)라는 수학자가 있었다.

당시까지는 그 누구도 극한의 개념을 자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그는 《모든 량은 미소량으로 분할할수 있다.》라는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극한의 역할을 써먹으면서 수학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는 늘 《직선은 무한히 많은 점으로 형성되여있다.》, 《평면은 무한히 많은 평행선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립체는 무한히 많은 평행평면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였다.

카발리예리가 이런 착상을 하게 된데는 이런 일화가 깔려있다.

그는 포도주를 즐겨마셨다. 어느 하루 식당접대원은 괴상하게 생긴 각이한 통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들고 들어왔다. 량도 같았고 포도주가 담긴 높이도 같았다. 기발한 착상이 그의 전신을 지배하였

다. 그는 너무 좋아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이렇게 가정하였다.

두 평행평면사이에 임의의 모양을 가진 두 립체가 끼워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두 립체를 처음 평면에 평행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할 때 자름면의 두 닫긴평면의 면적이 같다고 하자. 매번 평행자름면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같아지니 얇은 종이장을 쭉 쌓아올려 생긴 체적도 같을것은 뻔한 리치로 될것이다.

이것이 그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카발리예리의 원리이다.

사람들을 놀래운 멘델의 예지

멘델은 체스꼬의 유전학자였다.

멘델은 8년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연구결과를 1865년 2월 브륜자연과학연구회의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하였다.

40여명이 그의 보고를 듣고있었다. 대학교수, 의사, 관리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고있었으나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실지 실험을 해보면 어떨런지 듣기만 해서는 리해가 가지 않는구만.》

《의의가 있긴 한거요?》

간혹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뿐이였다.

보고가 끝나서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회의기록자는 회의록에 회의정형을 되는대로 갈겨써놓았다.

《질문자 없고 토론 없음.》

멘델에게 있어서 이 연구결과는 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첫 발표는 차거운 외면을 당한것이였다.

다음해에 멘델은 《식물잡종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론문을 발표하였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직 때가 이른가? 하지만 그 언제인가는 리해하게 되겠지.)

멘델은 이렇게 자기자신을 위안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단념하고말았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멘델의 연구결과를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연구결과는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서야 인정되였다.

1900년 봄의 어느날이였다.

(하, 그것 참 놀라운 일인데…)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대학 식물학교수인 프리스는 잡지를 뒤적이다가 감탄하였다.

《이 잡지가 1866년에 나온것이니 벌써 34년전에 내가 지금 하고있는 실험을 하여 발표를 했으니…》

프리스는 달맞이꽃을 가지고 식물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하여 유전의 법칙을 밝혀냈는데 우연히 잡지를 통해 이미 34년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 법칙을 내놓았다는것을 알게 된것이였다.

그런데 그때 같은 연구를 하다가 멘델의 론문을 알게 된 사람이 또 둘이 있었다. 한사람은 도이췰란드의 츄링겐대학 식물학교수인 코렌스였고 다른 한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농작물과 화초연구를 하고있던 체르마크였다.

그들 셋은 거의 같은 시기에 자기의 연구결과를 유전의 법칙으로 묶어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론문들에는 일치하게 멘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져있었다. 자기들이 연구한것을 34년전에 멘델이 먼저 연구발표하였다고…

학계는 떠들썩해졌다. 그들 세 학자에 의하여 34년동안이나 묻혀있던 멘델의 연구가 빛을 보게 된것이였다.

멘델의 예지는 수십년을 앞당겼던것이다.

멘델레예브의 예언

멘델레예브는 로씨야의 이름있는 화학자였다.

그는 원소주기표를 내놓으면서 빈 자리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성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비평하였다.

1875년 프랑스의 화학자 봐보드랑은 갈리움이라는 새 원소를 발견하였다.

멘델레예브는 봐보드랑의 발표를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예언한 《에까알루미니움》이라는것을 곧 알아맞혔다. 그런데 발표된 자료에는 갈리움의 밀도가 4.7로 되여있는것이 차이났다.

멘델레예브는 즉시에 봐보드랑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이 새 원소를 발견한 방법이나 분리하는 방법 또는 당신이 서술한 갈리움의 성질로 보아 새 금속을 에까알루미니움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라는것을 추측할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에까알루미니움의 예견되는 성질을 지적하고 갈리움의 밀도는 봐보드랑이 발표한것처럼 4.7이 아니라 5.9～6.0이 되여야 한다고 써보냈다.

편지를 받아본 봐보드랑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이미 4년전에 멘델레예브가 예언한 에까알루미니움의 성질과 자기가 발견한 갈리움의 성질이 완전히 일치했기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갈리움의 밀도였다.

봐보드랑은 즉시에 갈리움을 정밀히 정제하고 밀도를 다시 결정하였다. 결과 그 값이 4.7이 아니라 5.96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봐보드랑은 한번도 갈리움을 손에 쥐여본 일이 없는 멘델레예브의 예언이 그처럼 정확히 들어맞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2) 철학자, 과학자들의 놀라운 발견

올바끄에 대한 기소장

올바끄(1723－1789)는 18세기의 프랑스유물론철학자이다. 《올바끄》라는것은 프랑스발음이고 도이췰란드발음으로는 《홀바끄》이다. 원래 올바끄는 도이췰란드사람이였는데 25살때부터 빠리교외에 이사하여 한생을 마쳤다.

올바끄는 프랑스유물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철학자이다. 그에게는 《자연체계》라는 저서가 있다.

이 책은 교회와 국가로부터 금지당한것으로서 그것을 읽은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그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았다.

당시 빠리최고법원에서는 올바끄의 죄상을 밝히는 기소장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자유사상가의 목소리가 지금 세계의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고있다.

그들은 한손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다른 한손으로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있다. 그 불온행위를 지도하는 가짜철학자들은 종교의 공개적인 적들이다.

그들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와 승려계급은 일치단결하여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들의 저서들은 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우고있다.

자유사상이 빠리에 만연되고있고 지방에도 퍼지고있다. 인민들은 빈곤한 몸으로서 종래에는 단지 하나의 위안 즉 종교라는 위안에 의하여 구원되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민들은 로동에 의한 피로감을 느끼고 사회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종래에 인민들에게는 저세상이라는 종교세상이 부여되여왔다.

그러나 지금 인민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하고있다. 무신론은 프랑스 한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 현상이다.

본검사는 〈자연체계〉라는 책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책의 저자는 종교국가도덕을 비롯하여 숭고한 관념론의 기초를 허물고있다. 그 론법의 과격성에 있어서는 고대의 에피쿠로스나 근세의 스피노자의 무리들도 도저히 따를수 없을것이다.

지금까지 무신론자는 종교와 신에 대하여 고작해서 의심이

나 가지는 정도였지만 〈자연체계〉의 저자는 두려워함도 없이 어떤 신이나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다고 호언장담하고있다.

이런 무신론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크게 문란시킨다.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지금에 와서 이 파괴주의자들을 단호히 취급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립법권은 우매한 대중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상하가 없이 평등하게 되며 국왕의 절대권도 상실되고말것이다.

그리하여 무지막지한 대중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것이며 저주로운 혁명이 일어날것이다. 현실적으로 영국은 그 혁명에 의하여 상류계급이 불행에 빠지고있다. 방임하면 프랑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본검사는 그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한다.》

이 기소장은 올바끄철학의 기본내용을 명백히 밝혀준것이기도 한것이라고 보고있다.

《번개가 잡혔다!》

번개와 벼락처럼 우리 생활과 가깝게 련결된 자연현상은 흔치 않다. 그러나 그것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번개는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하여 사람들은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하늘을 째며 우뢰가 울고 벼락이 무섭게 내리치는것은 《하느님》이 노여워 벌을 내리는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있던 정전기를 깊이 연구하고있던 프랭클린은 그러한 허황한 생각을 믿지 않았다.

어느날 정전기현상을 연구하던 프랭클린은 우연히 떠돌아다니는 요술쟁이들이 하는 요술을 보게 되였다. 그들은 공처럼 생긴 동구두개를 들고 재주를 부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까이 하자 그사이에 퍼런 불길이 쭉 건너가는것이였다. 사람들은 그 신비함에 놀

랐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프랭클린의 머리에는 피뜩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이 있었다.

(저 구는 정전기로 대전시킨것들이다. 그렇다면 음극과 양극사이를 건너가는 저 푸른 섬광은 번개와도 비슷하지 않는가?! 그러면 사람들을 놀래우는 번개나 벼락은 결국은 전기의 방전현상이라고 볼수 있지 않는가?)

프랭클린은 자기의 이 생각을 대담하게 실험해볼 결심을 내렸다.

1752년이였다. 프랭클린은 비단천으로 큼직한 연을 만들었다. 그는 연에 끝이 뾰족한 바늘을 달아맨 다음 가는 쇠줄로 연줄을 만들고 번개가 칠 날을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여 기다리던 날이 왔다.

지평선우로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요란한 번개가 일고 우뢰가 온 하늘을 뒤흔들었다. 프랭클린은 연줄의 한끝을 검전기(라이덴병)에 련결해놓고 연이 될수록 번개가 치는 곳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마침내 번개가 일자 검전기의 석쪼각이 보기 좋게 벌어지는것이 보이였다.

(됐다. 번개가 잡혔다!)

프랭클린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번개의 전기가 연줄을 타고 자그마한 라이덴병속으로 흘러들었던것이다.

이로써 프랭클린은 번개나 벼락도 다름아닌 전기방전현상이라는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으며 벼락을 막을수 있는 피뢰침을 발명하였다.

지동설의 발견

꼬뻬르니끄는 뽈스까의 이름난 천문학자로서 1400여년동안이나 《절대적진리》로 군림해온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학자이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하여 제창된 천동

설은 그후 절대적진리로 간주되여왔고 교회에 의하여 신성화되였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천문학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지구가 돌고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주장하는 지구가 돈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가 돈것이다. 지구가 돌고있다고 생각하는것보다 하늘이 돌고있다고 보는것이 여러가지 사실을 설명하는데서 편리하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대로 지구가 하루에 한바퀴 돈다면 새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것이다.

지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면 하늘을 나는 새는 자꾸만 뒤떨어져서 서쪽으로 밀려날것이다. 결국 한번 둥지를 떠난 새는 다시는 둥지로 되돌아갈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아도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된다.》

아주 그럴듯하였다. 꼬베르니끄는 다음페지를 펼쳤다.

《우리가 아는것처럼 어떤 물체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 그 물체는 부서지고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지구가 하루에 한바퀴 돈다면 이미 오래전에 지구가 부서져 없어졌을것이다.》

여기까지 읽던 꼬베르니끄는 이런 의심이 생기였다.

(지구가 돌면 지구가 부서진다. …

그러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우주는? 훨씬 큰 우주는 지구보다 비할바없이 빨리 돌게 아닌가. 지구둘레를 도는 우주는 그런데 어째서 부서지지 않을가?)

이런 의심으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기발한 착상을 가지게 되였다.

(공기와 구름이 지구와 함께 돌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새도 지구와 같이 도는것이 자명한 리치이다.)

이러한 기발한 착상에 기초하여 오랜 천체관측과 연구를 통하여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였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주위를 돌고있으며 지구는 하루에 제돌기를 하면서 1년을 주기로 태양주위를 돈다는 과학적발견을 하게 되였다.

X선의 발견

렌트겐은 우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 기발한 착상을 가지게 되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명하는 과정에 X선, 다시말하여 렌트겐선을 발견하게 되였다.

1895년말 어느날이였다.

렌트겐은 음극선관에서 나오는 음극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있었다. 그는 음극관으로부터 형광이 나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는 그것이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때 음극관은 자그마한 틈도 없이 검은 천으로 싸여져있었고 또 아무런 빛도 새여나가지 않았기때문이다. 음극선에 의해 생긴것일가?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았다. 음극선이 공간에서의 운동거리가 겨우 몇㎝밖에 안되므로 1m밖의 형광판까지 가닿을리 만무한것이였기때문이였다.

이때 렌트겐은 음극선관에서 음극선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나오기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발한 착상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이러한 착상에 기초하여 음극선관과 형광판사이에 책을 가리워보거나 자기 손으로 막아보았지만 어느 경우나 형광판은 빛을 내였다. 그 어떤 이상한 방사선이 음극선관에서 나와 손도 책도 다 뚫고나가는것이 분명하였다.

렌트겐은 모든것을 잊고 그 이상한 빛에 대한 조사를 하여 마침내 X선을 발견하게 되였다.

《불의 공기》, 산소의 발견

산소는 도이췰란드의 유명한 화학자 쉘레에 의하여 발견되였다.

쉘레는 후라스코에 흰 린쪼각을 넣고 밀폐한 다음 후라스코를 초불로 데웠다. 그러자 흰 린은 곧 녹아버리고 밝은 빛을 내면서 타올랐다. 이것은 린이 탈 때 후라스코안의 공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에 대한 실험이였다.

쉘레는 후라스코가 식은 다음에 주둥이를 아래로 보내고 물이 든 그릇에 넣어 마개를 뽑았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 물이 일시 몰려들어왔는데 그 체적이 꼭 후라스코체적의 1/5을 차지하는것이였다.

쉘레는 후라스코에 다른 물질들을 차례로 넣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실험결과는 같았다.

(1/5,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것이 틀림없다.)

그의 추리는 계속되였다.

(물건이 탈 때 어떤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 공기의 일부가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꼭 1/5만 사라지는것인가?

불이 붙을수 있는 물질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의 공기가 없어지면 불이 왜 꺼지는것인가? 나머지 4/5의 공기속에서는 왜 불이 꺼지는가?)

이렇게 사색을 거듭하는 그의 뇌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후라스코속에 남아있는 공기와 물질이 탈 때 없어지는 공기는 서로 다른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해오던것처럼 공기는 하나의 원소인것이 아니라 어떤 두가지 원소로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1/5을 차지하는 불타는 공기를 얻는데 달라붙었다. 그는 화약의 주성분인 질석에서 바로 그 기체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오래동안 하나의 원소로만 알았던 공기에서 불이 붙는것을 돕는 공기—산소를 얻어냈다.

20세기의 대발견

1928년 여름이였다.

런던 쎄인트메리의학대학병원 연구실의 어느 한 창가에는 여러개의 실험용유리접시들이 놓여있었다.

이 유리접시는 젤라틴에다 세균을 기르고있는것이였다.

어느날 세균학자인 플레밍은 어느 한 접시의 젤라틴우에 푸른색

의 곰팽이가 씌워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연구사들도 이런 일에 부닥친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그들은 그것을 버리군 하였다. 플레밍도 젤라틴이 썩었다고 생각하고 그 접시를 버리려고 하였다.

그때 플레밍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젤라틴우에서 자라던 세균의 일부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것이였다.

(무엇이 세균을 녹여버렸을가?)

그의 눈은 밝게 빛났다. 세균을 그렇게 녹여버릴수 있는 물질은 아주 강한 살균력을 가진것이라고 볼수 있었다. 플레밍은 틀림없이 푸른 곰팽이가 내는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플레밍은 연구실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별로 큰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누구도 흥미가 있어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이 이상한 푸른 곰팽이의 비밀을 밝혀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팽이가 낀 유리접시를 덮개를 덮어 보관하고 그것을 조금씩 떼내여 배양하면서 실험을 다그쳤다.

그는 고기국물에 푸른 곰팽이를 접종시켜 배양한 다음 국물을 분리하여 세균에 작용시켜보았다.

그것도 꼭같은 살균효과를 나타냈다.

플레밍은 그것을 《페니실린용액》이라고 이름지었다. 페니실린용액은 사람의 피속에 주사를 하여도 효과를 나타냈고 위험한 요소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피부전염병에 그 용액을 써보았는데 고약보다 효과가 좋았다.

이러한 과정에 20세기 대발견의 하나로 되는 페니실린주사가 발명되게 되였다.

이처럼 플레밍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히 대하는 푸른 곰팽이가 살균작용을 한다는 착상을 하여 마침내 페니실린주사를 발명할수 있게 되였다.

담이 큰 탐험가

1855년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이 6개월에 걸친 험난한 탐험길에 아프리카의 오지로부터 루안다항구로까지 가는 길을 개척하고 아프리카의 동해안을 향해 떠났을 때였다.

어느날 잠베지강을 따라 길을 재촉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것이였다.

《당신의 나라에도 소리를 내는 연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리빙스턴은 놀라서 물었다.

《저기 들리지 않습니까? 저 소리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먼곳에서 우뢰소리같은것이 들려왔다.

《저 소리가 연기를 내고있답니다. 너무 무서워 연기가까이에 간 사람이 여태 없답니다.》

흑인들은 겁에 질려서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지요.》

이렇게 말하며 리빙스턴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흑인들은 덴겁을 하며 그의 앞길을 막았다.

《아니, 어쩌자고 그러시우. 저기엔 마귀가 살고있는데 …가까이에 갔다가 연기가 되고말려고 그러시우?》

리빙스턴은 웃으며 《내게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어 마술같은것엔 걸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나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다.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땅까지 흔들렸다.

과연 가보니 골짜기에서는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흑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연기는 다름아닌 폭포가 떨어지면서 내는 물보라였다.

이 폭포의 너비는 1 800m나 되였고 물보라는 80m나 치솟았다.

대지를 진감하는 폭포소리에 미신으로 가득찬 흑인들이 공포에 떠는것도 무리가 아니였다.

리빙스턴은 이 폭포에 영국녀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폭포》라고 하였다. 잠비아가 독립한 후 폭포의 이름을 모지라뚜리아대폭포로 명명하였다.

리빙스턴은 영국의 스코틀란드에서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로 태여난 사람으로서 미지의 대륙인 아프리카를 탐험할 구상을 무르익혀왔다.

이 탐험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난관을 이겨낼수 있는 담이 있음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였으며 이 과정에 니아사호와 루과호를 발견했으며 그후 닐강의 발원지를 해명하기 위한 탐험과정에 음유루호, 방꿰울루호 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프리카대륙의 횡단에 성공하였다.

리빙스턴에게 담이 없었다면 사람을 놀래우는 이러한 지리학적 발견은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축음기의 발명

축음기는 에디슨이 발명하였다.

축음기의 발명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에디슨은 딸들을 몹시 귀여워하였다. 에디슨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만들어주었는데 그가운데는 전화기의 진동판을 설치한 조그마한 인형이 있었다. 그 인형은 가까이에서 말을 하면 나무를 톱으로 켜는 시늉을 하는것이였다.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있는 모양을 바라보고있던 에디슨의 머리에는 갑자기 놀랄만한 령감이 떠올랐다.

(만약 사람의 목소리가 인형을 움직일수 있게 한다면 그와 반대로 어떤 움직임을 사람의 목소리로 바꿀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러한 착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축음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삐자의 사탑에서

삐자에는 1350년에 세워진 약 55m높이의 사탑이 있는데 기초가 좋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탑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도 오랜 세월 서있는것으로 하여 이름이 났을뿐아니라 이딸리아의 뛰여난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이가 의의있는 락하실험을 한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무거운 물체는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뒤늦게 떨어진다.》는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견해로서 교회의 지지를 받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되고있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갈릴레이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조소를 보냈고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사람들은 그걸 증명하라고 성이 나서 떠들어댔다.

갈릴레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공개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자 대학선생들과 학자들, 시민들이 탑밑으로 모여들었다.

갈릴레이는 사탑우에 올라가 쇠뿔 두개를 량손에 갈라쥐고 열변을 토하였다.

《여러분! 이 손의것은 질량이 4.5kg이고 다른 이 손의것은 질량이 450g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다면 4.5kg짜리 쇠뿔이 작은것보다 10배나 빨리 떨어질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동시에 떨구겠습니다. 주의하여 보아주십시오.》

드디여 갈릴레이의 손에서 두개의 뿔이 떨어졌다. 갈릴레이의 주장대로 두개의 쇠뿔은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모였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거참 이상하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도 거짓이 있다니…》

《갈릴레이의 말이 맞아. 쇠뿔 두개가 동시에 땅에 닿지 않았나.》

《아니야, 우리의 눈이 잘못된거겠지.》

갈릴레이는 다시 큰소리로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보신것처럼 질량이 서로 10배나 차이나는 두개의 쇠뽈이 거의 같은 시간에 땅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중에는 돌덩어리와 새의 깃털을 떨군다면 돌덩어리가 먼저 떨어질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돌덩어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의 저항이 있기때문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이라면 새의 깃털도 돌덩어리와 같이 떨어질것입니다.》

갈릴레이의 론리정연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 긍정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렇게 하여 갈릴레이는 2000년동안이나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되여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처음으로 뒤집어놓았다.

세계최초의 실험적증명

당시까지만 하여도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생물의 자연발생설》에 기초하여 개구리는 못이나 강의 진흙에서부터 해빛의 힘을 받아서 생겨나고 쥐는 닐강에서, 곤충은 이슬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심하기만 하여도 비웃음과 풍자를 퍼붓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생물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것에 의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적증명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딸리아의 유명한 의학자 레디였다. 그는 42살나는 해인 1668년에 자연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실험은 매우 간단하였다.

우선 입구가 열린 3개의 후라스코에 고기쪼각을 넣었다. 그런 다음 첫번째의것은 전혀 뚜껑을 덮지 않았고 두번째의것은 종이를 가지고 막았으며 세번째의것은 얇은 천으로 뚜껑을 덮었다.

얼마후 후라스코안의 고기가 썩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구린내가 나는 나쁜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수많이 모여왔다.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서 뚜껑이 없는 후라스코의 고기쪼

각에서 구데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종이로 막은 후라스코안에서는 고기쪼각이 썩기는 하였지만 구데기는 생겨나지 않았다.

얇은 천을 씌운 후라스코에는 그 천우에 많은 파리가 알을 쓸었다. 얼마후 그것이 까나서 반대쪽의 천 웃면에만 구데기가 생겨나기 시작한것이였다.

레디는 이 실험을 통하여 썩은 고기에서 구데기가 솟아나오는것은 파리가 알을 쓴것이 까나오기때문에 즉 바깥에서 생물의 종이 들어간데 있다고 결론하는데 이르렀다.

레디의 론문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하여 1668년부터 1688년사이에만도 5번이나 재판되여 출판되였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두꺼운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의 실험결과가 이처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된데는 그것이 네데를란드박물학자 슈완메르담(1637－1680)과 바리스니에르(1661－1730)에 의하여 재확인한데 있었다.

자연발생설을 부정한 그의 실험을 높이 평가하여 후날 영국의 이름난 생물학자 학슬리(1825－1895)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디의 그 실험법은 매우 간단한것이고 또 론의의 취지가 명백한것이여서 그 학설은 그 어디에나 미치여 세계가 다 아는것으로 되였다.》

《폴로니움》의 발견

뽈스까출신의 프랑스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큐리는 수업준비를 하고있는 남편곁에서 갓 태여난 딸인 이레느의 옷을 꿰매고있었다.

《아니? 이레느의 옷소매가 또 거꾸로 달렸구려.》

삐에르가 빙긋이 웃으며 퉁겨주었다. 벌써 두번째나 바느질한다는것이 옷소매를 거꾸로 달고있었기때문이였다.

큐리는 낮에 있었던 이상한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렇게 실수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낮에 큐리가 일을 끝내고 기구를 정리하다가 문득 검전기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닫겨져있었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검전기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열리는것이였다. 그곁에는 우라니움을 뽑아낸 시료만이 있었기때문에 방사선이 나올데는 없었는데 검전기에 전류가 흘렀다는것은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였다. 줄곧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던 큐리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여보, 나는 아까 참 이상한 사실을 보았어요. 우라니움을 완전히 빼낸 시료였는데 우라니움이 있는 시료와 꼭같은 작용을 하는것 같으니 말이예요.》

삐에르는 소리내여 웃었다.

《주부님, 그런것쯤이야 간단히 설명할수 있지 않소. 즉 당신이 우라니움을 완전히 뽑아냈다고 하는 시료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는거요.》

《아참 그런가요?》

큐리는 계속 머리를 기우뚱거렸다.

《그렇지만 여보, 난 틀림없이 거기서 우라니움을 다 빼냈어요. 그러니…》

큐리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것이 롱담이 아니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그건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요.

래일 한번 더 실험을 해보는것이 어떻겠소?》

큐리는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가 실수하여 우라니움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을가? 아니면? 혹시 시료안에 우라니움이 아닌 다른 방사성원소가 있는것이 아닐가?)

아직 동트기 전이였다. 큐리는 더 누워있을수 없어 이레느가 깨여나지 않게 살짝 방을 빠져나왔다.

(실험하여보자. 한번 더 우라니움을 뽑아내자. 그래도 또 방사선이 나온다면 나의 생각은 틀림없이 맞는것으로 되리라.)

큐리는 봄날의 새벽거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삐 걸어갔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그는 곧 실험에 착수하였다.

(침착하라, 침착하라.)

그는 우라니움을 뽑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자, 이것으로 우라니움은 틀림없이 모두 뽑아냈다. 미타한 점이 없는가? 없다.)

큐리는 긴장되여 시료를 조심스럽게 검전기가까이로 가져갔다.

《아!》

신중하게 우라니움을 뽑았으나 시료에는 아직 강한 방사능이 남아있었던것이다.

큐리는 멍하니 서서 검전기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래 실험은 어떻게 되였소?》

남편인 삐에르 큐리가 실험실로 들어서며 조급히 물었다.

큐리의 설명을 들은 그는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 시료에는 우라니움과는 다른 그 어떤 방사성원소가 들어있었던것이다.

그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이 바로 큐리가 발견하여 자기 조국의 이름을 단 《폴로니움》이였다.

트로이성을 찾아서

도이췰란드의 고고학자인 쉴리만은 1863년에야 학문을 위해 영업을 그만둘수 있었다.

1866년 그는 학자들이 트로이가 력사상 틀림없이 있었다고 믿고있는 뛰르끼예의 보잘것 없는 푸나르바시마을뒤에 있는 언덕에 섰다.

(트로이가 여기란 말인가? 어딘가 이상하다.)

쉴리만의 가슴에 이런 의혹이 물결치듯 갈마들었다.

《일리아스》에서는 그리스병사들이 바다가에 있는 배에서 성새도시인 트로이까지 하루에 몇번이나 왔다갔다했다고 적혀있다. 그

런데 바다가에서 이 언덕까지 걸어서 4시간이나 걸리지 않는가. 그러니 바다가에서 여기에 왔다가 다시 바다가로 돌아가자면 하루해가 저물어야 하는셈이다.

쉴리만은 《일리아스》를 꺼내여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하루를 노래하고있는 호메로스의 시구절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다시한번 머리속에 펼쳐보았다.

아침부터 격전을 벌린 끝에 그리스병사들은 트로이사람들을 쫓아서 스카이아문까지 갔다. 다음에는 반격을 받아 그리스병사들은 밀려 배로 재빨리 되돌아온다. 또한 그리스의 용사 파트로클로스가 세번 트로이의 성벽으로 기여오르려 한것도 그날이였다. 트로이병사들은 자기들의 성벽에 되밀리여갔다. 그리하여 스카이아문근처에서 해가 질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였다.

그것은 모두 하루동안에 일어난 일이였다. 더우기 이 하루동안에 그리스병사들은 밀고밀리여 도시와 바다가사이를 세번이나 오고갔던것이다.

(무엇인지 잘못되여있다. 호메로스가 지나치게 과장한것일가? 그러나 모든것을 미루어보건대 그럴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쉴리만은 《푸나르바시가 바로 트로이이다.》라고 하는 력사학자들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0년에 걸쳐 뛰르끼예의 히사릭언덕에서 《트로이성새》를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쥐와 행성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고 달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하자 천문학계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천문학자들은 달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물질로 되여있는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러니 달도 지구와 같이 산이나 골짜기로 되여있다는 소리에 어찌 놀라지 않았겠는가.

(달이 지구에서처럼 돌이나 바위로 되여있다면 과연 어떻게 돌가? 그리고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밝혀보느라고 연구를 거듭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천문학자 케플레르도 여기에서 례외로 될수 없었다.

케플레르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행성들이 음악에서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태양둘레를 아름답게 도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도 레 미 화…》라는 음계의 리론을 바탕으로 해서 별의 운동을 연구해보자.)

그는 곧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행성의 운동은 음계와는 달랐다.

그는 연구방향을 바꾸어 행성을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운동법칙을 밝히기로 하였다.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잠도 휴식도 잊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보았다. 그는 결국 《지구와 화성 같은 행성은 태양둘레를 둥근원을 그리며 운동하는것이 아니라 타원을 그리며 운동한다.》는 케플레르의 1법칙을 발견하게 되였다. 케플레르의 기쁨은 컸다.

그러나 이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풀기 어려운 의문이 생겼기때문이다.

(행성이 타원운동을 한다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와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것이 아닌가? 그 힘은 어데 있을가? 과연 무엇이 타원운동을 하게 하는가?)

또다시 탐구의 밤을 새우는 긴장한 나날이 흘렀다. 생각을 아무리 굴려보아야 그 원인을 알수 없었다. 케플레르는 착잡한 생각에 잠긴채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섰다.

싱그러운 바람이 그의 볼을 스쳐지나갔다.

그는 산보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느라고 발이 내가에 빠지는것도 몰랐다.

《에그머니! 야참 싫어싫어.》

소녀의 웨침에 케플레르는 명상에서 깨여났다.

소리난 곳을 바라보니 한 소녀가 얼굴을 가리우고 쪼그리고앉아있는데 사내애들이 줄에 매단 쥐를 소녀의 얼굴앞에 내흔들며 좋아라 웃고떠들고있었다.

《이녀석들!》

케플레르는 한 아이의 손에 있던 줄을 나꿔채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혼쭐이 나서 달아났다.

케플레르의 손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쥐를 매단 줄이 들려있었다.

《참 녀석들도…》

그는 쥐를 멀리 던지느라고 머리우로 빙빙 돌렸다.

(그렇지. 쥐를 행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태양이라고 하자. 쥐는 내가 줄을 잡아휘두르니까 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행성들을 돌리는게 틀림없다. 만일 태양이 행성을 돌린다면… 옳지, 행성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하는만큼 행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때에는 태양이 행성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연히 행성의 운동이 떠질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끔찍스러운 쥐를 손에 든채 집으로 달려갔다.

놀란것은 갓 시집온 그의 안해였다.

《여보, 놀라긴 왜 놀라우.》

《손에… 아이, 스산하기도 해라.》

《뭐 손에… 아, 행성 아니 쥐.》

그는 당황하여 쥐를 버리고는 책상으로 달려갔다. 행성이 태양둘레를 어떻게 도는가 계산해보았다.

결과 예상한바대로 태양에서 행성이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운동속도가 떠지는것이였다. 그는 그 속도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것이 케플레르의 2법칙인것이다.

본때있는 실험

데이비, 함프리는 영국의 이름있는 화학자였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의 최고과학연구기관인 런던왕립연구소

의 교수가 된 데이비의 관심을 끈것은 알카리였다.

그는 실험과정에 전류를 화학물질에로 흘려보낼 때 물질이 분해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혹시 우리가 원소라고 생각하고있던 물질이 어떤 원소들의 화합물일수 있지 않는가? 그래, 원소라고 생각하는 물질에 전기를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는 먼저 그때까지 한개 원소로 알았던 가성카리부터 실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첫 실험대상으로 가성카리를 택하게 된데는 가성카리의 여러가지 화학적특성으로 보아 그것이 한가지 원소가 아니라는 의문이 생겼기때문이다.

데이비는 자기 조수이며 사촌인 에드문드에게 연구소에 있는 전지를 몽땅 걷어모아다가 련결하도록 하였다.

유리그릇에 정제를 잘한 가성카리용액을 넣은 다음 전원을 넣었다.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전극둘레에 거품이 일더니 부글부글 끓는것이였다.

데이비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뿐 가성카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옳지, 물이 방해된다면 물없이 실험하면 되겠군.)

그는 은으로 만든 그릇에 가성카리덩어리를 넣고 불로 녹였다. 그리고 은그릇에는 양극을, 다른 은막대기에는 음극을 걸어 녹은 가성카리에 밀어넣었다.

가성카리에서 알릴듯말듯 김이 서리더니 작은 방울들이 튀여나왔다.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된 데이비는 뜨거운 방울들이 자기 얼굴에 튕겨오르는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분해될것인가, 안될것인가?)

그의 머리에는 이 생각뿐이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은막대기둘레에 아름다운 붉은 기운이 도는 보라색 불길이 일었던것이다. 이 불길은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는 계속 타올랐지만 전원을 끄면 곧 꺼져버렸다.

《만세! 에드문드, 자 보라구. 가성카리가 분해되는걸!》

그러나 새 물질을 분리하는 일은 결코 헐치 않았다.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지만 성공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다.

데이비는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놓고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처음에는 물때문에 실패하였고 다음번에는 분명 가성카리가 분해되였지만 곧 불길이 되여 사라지고말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분리된 물질이 타지 않게 하려면 온도를 높이지 말아야 하겠는데 가성카리덩어리는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으니 어차피 덩어리상태로는 안되고…

그렇지, 가성카리는 공기속에 있는 물기를 기막히게 빨아들이지. 이 성질을 리용해보자.)

데이비는 가성카리덩어리가 공기속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여 축축해진 다음 전류를 흘려보냈다.

《식—식—》소리를 내며 가성카리덩어리가 녹기 시작하였다.

그는 손에 땀을 쥐고 실험장치안을 들여다보았다. 가성카리가 완전히 녹더니 이어 음극둘레에 은백색 윤기가 도는 수은방울같은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떤 방울은 소리를 내면서 튀여올랐고 또 어떤것은 연보라색 불길을 내면서 타올랐다. 그리고 불붙지 않은 방울들은 뭉쳐서 그릇에 고여 층을 이루었다.

드디여 새로운 원소가 자기의 어엿한 자태를 드러낸것이였다.

데이비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없이 컸다. 얼마후 마음이 좀 가라앉자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실험일지를 펼쳐들고 실험내용을 세세히 써넣었다.

그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실험실을 나섰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던지 되돌아와서는 다시 실험일지를 펼쳐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일지의 여백에 굵은 글자로 《본때있는 실험!》이라고 써넣는것이였다.

데이비는 1807년에 칼리움을 발견한데 이어 그 이듬해에 나트리움을 발견했으며 바리움, 칼시움, 스트론티움, 마그네시움을 금속으로 갈라냈다.

교탁에서 지은 미소

어느날 단마르크의 물리학자였던 에르스테드는 책을 읽다가 흥미를 끄는 대목을 발견하였다.

《…큰 배인 〈퀸〉호가 1681년 7월 어느날 번개가 치고있을 때 크드갑으로 다가가고있었다.

번개의 한 충격이 배에 떨어져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밤이 되여 배의 위치를 판정하자고 라침판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발견되였다.

3개의 라침판가운데서 2개는 북남을 정확히 가리키고있었으나 세번째것은 웬일인지 서쪽을 가리키고있었다. …》

여기까지 읽고난 에르스테드는 《그것 참 흥미있는걸!》하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는 이 사실을 놓고 두고두고 생각을 굴려보았다.

(어째서 번개가 쳤는데 라침판의 자침이 머저리가 되고말았는가? 번개를 전기현상으로 본다면 자성을 띤 그 무엇이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래동안 서로 큰 관계가 없다고 보아온 전기와 자기현상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지 않는가?)

이로부터 에르스테드는 이 미묘한 자연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기로 결심하였다.

탐구의 나날은 흐르는 물과도 같이 지나갔다.

1820년 어느날이였다.

강의를 하려 길거리를 걸어가던 에르스테드에게는 갑자기 놀라운 착상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까지 전기와 자기사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정전기를 띤 물체를 자석가까이에 가져가면서 변화가 생기는가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거기서는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두고두고 사색을 무르익히고있었는데 좋은 생각이 길거리에서 떠올랐던것이다.

그 생각이란 정전기와 자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볼따전지에서 나오는 《흐르는 전기》와 자석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에르스테드는 조바심을 가지고 대학으로 향했고 급히 강의실로 들어갔다. 기다리고있던 청강생들은 곧 강의가 시작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책들을 펼쳐놓았다.

그런데 에르스테드는 강의안이 아니라 볼따전지와 라침판을 교탁우에 펼쳐놓는것이였다.

그는 전지의 두 극에 전기줄을 이은 다음 라침판을 그 가까이에 가져다 대보았다.

순간 북남을 가리켜야 할 라침판의 자침이 전기줄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것이였다.

그러자 에르스테드의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지, 생각했던대로구나.)

에르스테드는 그것이 전기가 내는 열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기줄과 라침판사이에 두터운 종이를 끼우고 실험을 반복하였다.

그래도 라침판은 전기줄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였다. 그는 곧 전지의 극을 바꾸어보았는데 그랬더니 자침의 다른 끝이 전기줄을 향하는것이였다.

드디여 그처럼 찾던 전기와 자기사이의 관계를 그가 밝혀낸것이였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감추지 못해 그는 교단에 선채로 한껏 미소를 지었다.

강의를 할것도 잊고 교단에서 무엇인가 하다가 웃고있는 에르스테드를 보며 청강생들은 그가 연구에 너무 몰두하다나니 미쳐버린것이 아닌가 하여 수군거렸다.

이윽하여 강의가 끝났다는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청강생들은 선생이 미치면 야단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모두 강의실에서 나갔다.

그래도 에르스테드는 여전히 교단에 서서 미소를 짓고있었다.

《시골뜨기의사》의 놀라운 발견

코흐, 로베르트는 도이췰란드의 세균학자이며 미생물학자였다.

코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농촌에서 의사로 일하였다. 그래서 그를 《시골뜨기의사》라고 하였다.

그때 코흐가 살던 주변의 농촌마을들에서 탄저병이 돌아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집짐승들이 무리로 죽어나갔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여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아, 어떻게 하면 탄저병의 원인을 밝혀 저런 일을 막을수 있겠는가?)

코흐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태웠다. 그러던 어느날 탄저병으로 죽은 집짐승들을 돌아보다가 코흐는 그것들이 죽으면서 토한 검붉은 피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혹시 저 피에 무슨 실머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죽은 집짐승이 토한 피를 채취하여다가 현미경으로 조심스레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현미경으로 피를 살피던 코흐는 그만 깜짝 놀랐다. 현미경의 시야에는 파괴된 피알들과 함께 작은 막대기모양의 세균들이 욱실거리고있는것이 보였던것이다.

(바로 이것이 농민들에게 그처럼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는 탄저병을 일으키는 괴물이 아닌가?)

코흐는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피를 다른 건강한 집짐승의 피속에 넣어주었는데 그 집짐승은 마침내 탄저병에 걸려 죽고말았다.

이렇게 하여 코흐는 200년전 네데를란드의 레웬후끄가 미생물의 세계를 발견한이래 처음으로 실제 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발견하였다.

코흐는 이 결과를 1876년 도이췰란드의 브레스라우대학 강당에서 발표하게 되였다.

모임에는 이름있는 학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적지 않은 사

람들이 《시골뜨기의사》가 무슨 큰것을 내놓겠는가고 생각하고있었다.

코흐는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진 탄저병이 다름아닌 작은 막대기모양의 탄저병균에 의해 생긴다는것을 자신의 실험적 자료를 가지고 론증하였다.

코흐는 자기의 론문발표를 끝내면서 청중들에게 힘있게 호소하였다.

《여러분, 인류의 복리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원성미생물과의 싸움을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청중은 요란한 박수로 그에 호응하였다.

코흐의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것으로서 질병과의 투쟁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코흐의 연구론문은 과학계를 뒤흔들어놓았고 《시골뜨기의사》는 학계와 세계가 아는 유명한 미생물학자로 되였다.

606번의 실험

매독이라는 무서운 병이 온 유럽땅을 휩쓸고있었다. 그러나 병을 고칠 방도가 없었다.

도이췰란드의 의학자였던 에를리흐는 의학자로서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연구방법인 염색법을 여기에 적용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미 대학실험실에 있을 때 염색이 그 종류에 따라 생체조직을 선택적으로 물들인다는것을 밝혀내여 학계의 주의를 끈 일이 있었고 생체조직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리파노조마라는 병원균만을 죽이는 염색법을 발견하여 노벨의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물감은 생체조직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체조직에는 물들이지 않고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만 물드는 물감을 만들고 거기에 병균을 죽이는 독소를 붙여 몸에 넣어주면 그것이 병균만을 찾아가면서 죽이게 될것이다.)

에를리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곧 매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스피로페터를 죽일수 있는 염색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에를리흐는 수백종의 유기물감을 합성해가면서 매독균으로 감염시킨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00번, 200번, 300번!…

실험회수는 수백의 계선으로 계속 뛰여올랐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가 반복되였다.

(아, 이게 될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

지칠대로 지친 에를리흐는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안깐힘을 써가며 용기를 내여 또다시 실험에 달라붙었다.

606번! 그는 606번만에야 드디여 토끼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매독균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화합물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605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한 의지와 정열로 미지의 과학요새를 점령한 그의 불굴의 투지는 만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당시 신문들은 그가 발견한 약을 묘하게도 병원균만 골라죽인다는 뜻에서 《요술의 탄환》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 약이 바로 《606호》였다.

라인강반에서

옴은 도이췰란드의 이름있는 물리학자였다. 어느날 저녁 옴은 자기가 즐겨찾는 라인강반의 유보도를 거닐고있었다. 다른 사람이 얼핏 보면 한가로이 산보를 하는것 같았으나 그는 《흐르는 전기》에 대한 실험을 다시금 머리속에서 분석해보고있었다.

《흐르는 전기》란 1799년에 이딸리아의 학자 볼따가 발명한 축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전기를 뜻하는 말이였다.

(흐르는 전기?)

몇번이고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이던 옴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흐르는 강물에 시선을 던졌다.

저녁노을을 받아 반짝이며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저 강물의 흐

름을 전기의 흐름과 견주어볼수 있지 않은가?

옴은 급기야 떠오른 이러한 생각을 더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것은 분명 강의 상류와 하류의 높이차이때문이다. 전기도 바로 그런 높이차가 있기때문에 흐르는것이 아닐가? 즉 전지의 한쪽 극이 다른쪽 극보다 전하의 수준이 높기때문에 그 수준이 낮은쪽으로 전기가 흐르는것이 아닌가?)

옴은 계속하여 전기의 힘을 강물의 힘과 비교하여 생각해보았다.

(강물의 힘은 단위시간동안에 강의 가로단면을 지나는 물의 량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전기의 힘(전류의 세기)도 단위시간동안에 도선의 가로단면을 지나는 전기량으로 결정할수 있지 않겠는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옴은 깊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우리들이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전기학의 중요한 기초법칙의 륜곽적인 모습을 강물의 흐름을 통해 그려낼수 있었던것이다.

등잔의 흔들림을 보고

어느날 이딸리아의 뛰여난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갈릴레이가 교회당안의 걸상에 앉았을 때였다. 그곳은 시원하고 조용하여 생각하기에 아주 좋았다.

그때 마침 신부가 벽에 매달아놓은 등잔에 불을 붙이였다. 그런데 그가 손을 놓자 등잔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던 갈릴레이에게는 문득 등잔이 흔들리는 시간을 재여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한것은 그것이 꼭 흔들이와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인차 갈릴레이는 자신에게 시계가 없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러나 곧 그의 머리속에는 심장도 하나의 시계와 같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맥박으로 점차 진폭이 작아져가는 등잔의 흔들리는 시간을 재여보던 갈릴레이는 그만 눈이 둥그래지고말았다.

진폭이 점차 작아져도 등잔이 한번 흔들리는데 드는 시간은 언

제나 같았기때문이였다.

갈릴레이는 벌떡 일어나 선생에게로 달려갔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갈릴레이와 가까운 그 선생은 갈릴레이가 무엇이든 수학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내면 곧 흥분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선생님! 저는… 저는…》

갈릴레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이는 주머니에서 끈과 열쇠를 꺼내 흔들이를 만들어가지고 흔들이의 주기가 진폭에 관계되지 않고 일정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이 발견에 너무 감동한 선생은 궁전의 의사를 찾아가 이것으로 맥박을 재는 기구를 만들수 있다고 말해주면 의사로서의 갈릴레이의 앞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뒤걸음질쳤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은 그뿐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되고싶은것은 수학자이지요.》

3) 철학자, 과학자들의 인격과 도덕적품성

내 명성과는 무관

어느날 한 친구가 아인슈타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명성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소. 내가 대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봉투에 그저 〈아인슈타인앞〉이라고만 썼다는거요. 그런데 결국 당신이 그 편지를 받았단 말이요!》

《그렇소. 그런 편지를 받았소. 하지만 그것은 우편국에서 일을 잘한것이지 내 명성과는 무관한거요!》

대통령직을 거절

1952년 11월 이스라엘대통령(당시)이 사망한 후 대통령직은 한동안 비여있었다.

11월 중순 어느날 미국주재 이스라엘대사는 자기 나라 수상이 보내여온 한통의 긴급전신을 받게 되였다. 내용인즉 대사가 아인슈타인교수를 찾아가 이스라엘대통령직을 맡아보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타진해보라는것이였다.

당시 73살고령의 이 자연과학자는 대사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와하면서 그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나는 자연에 대해서는 좀 알고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낡은 외투

리론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자기를 나타낼줄 모르는 소박하고 겸허한 품성을 지닌 과학자로서 평생 화려한 치장이나 요란한 옷차림같은것을 모르고 살았다. 하루는 아인슈타인이 뉴욕의 큰거리에서 오래전의 제자를 만난적이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낡은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새 외투를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진심으로 권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빙그레 웃으며 《일없소. 뉴욕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라고 대답하였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저명한 과학자로 되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전에 입던 낡은 외투를 입고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아인슈타인은 그 제자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전의 낡은 외투를 그대로 입은채로 자기를 껴안는 아인슈타인에게 제자는 눈물이 글썽하여 간청하였다.

《선생님,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선생님께서 이게 어디 될말입니까? 제발 새 외투를 바꿔입으십시오. 제가 하나 장만해드릴테니 그것을 꼭 입고다니십시오.》

《말만 들어도 고맙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소. 이젠 여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있는데 낡은 외투면 뭐라오!》

아인슈타인은 소탈하게 웃었다.

곱절로 요구한 학비

고대그리스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들을 가르치면서도 돈을 받은 일이 없었다. 그는 말이 다사하고 실속이 없는 현상을 매우 경멸하였다.

어느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강연술을 배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청년은 쉬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다음 자기의 언변이 평가를 받으리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쳐다보았다.

말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한참동안 생각하던 소크라테스는 첫마디에 학비를 곱절이나 내라고 요구하였다.

아연하여 눈이 휘둥그래진 그 청년이 《아니 선생님, 어째서 나는 학비를 두배나 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자 소크라테스는 대뜸 말하였다.

《그것도 모르겠나. 그건 내가 자네에게 두가지를 가르쳐주어야 하기때문이야.

첫째로는 어떻게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를 대줘야 하고 둘째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겠으니 품이 곱으로 먹지 않겠나.》

그 말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린 청년은 기가 죽어 머리를 숙이였다.

소크라테스의 최후

소크라테스가 사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친구들은 그

를 구원하고 석방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소크라테스의 벗들과 제자들은 관리들을 전부 매수하고나서 옥중의 그에게 탈출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의 권고를 조용히 거절하였다.

70고령의 소크라테스는 《지금은 죽을 때이다. 이렇게 유익하게 죽을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하고있던 중이라고 했다.

슬퍼해마지않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그는 《즐거워하시오. 그리고 내 시체를 매장해주겠다는 약속만 해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날의 정황에 대하여 플라톤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였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부탁을 하고 일어나 벗인 클라이트와 함께 목욕실로 들어가면서 우리들더러 기다리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참을수 없는 슬픔을 나누며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우리는 아버지같은이를 잃어버리고 한평생 고아로 남게 된 비운에 직면했던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목욕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미 석양이 가까와졌다. 이윽고 목욕실에서 나온 소크라테스는 다시금 우리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앉았다. 그러나 피차 말은 별로 없었다.

얼마쯤 지나자 옥졸이 들어왔다. 그는 소크라테스옆에 와서 서더니 〈소크라테스선생님! 선생님은 이때까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온유하며 어지신 어른입니다. 상급의 명령에 따라 죄수들에게 독약이 든 잔을 주면 그들은 나를 저주하고 욕하지만 선생님은 나에게 노여워하지 않으실줄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죄과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어쩔수 없는 일이니 너무 괴로와마십시오. 나의 직무가 이렇지 않습니까?〉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나갔다.

소크라테스는 나가는 옥졸을 보고 〈호의에 감사하오. 당신의 말대로 하리다.〉라고 말하고는 우리들을 둘러보며 〈참으로 얼마나

인정깊은 사람이냐. 그는 늘 나를 보러 오군 하였으며 지금 또한 나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가 보라.

그러니 클라이트군, 우리는 그의 말대로 해야 될것이다. 만일 그 약이 준비되였거든 잔을 가져오게 하고 아직 채 되지 않았으면 준비하라고 하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때 〈아직도 해는 서산에 걸려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조급해하시지 마십시오.〉하고 클라이트가 대답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가 그 잔을 조금 늦게 마신다고 나에게 무슨 리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지체시키는것은 곧 이미 가버린 생명을 붙들려고 시도하는데 불과한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니 내가 말한대로 해주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고 클라이트가 곁에 있는 하인을 보고 눈짓을 하니 그는 안으로 들어가 옥졸과 함께 약잔을 들고나왔다.

소크라테스는 옥졸을 보고 〈친구여, 그대는 잘 알고있을터이니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말하였다. 옥졸은 〈별게 없습니다. 약을 마시고 이 방을 거니시다가 다리가 무거워지면 인차 침대에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효가 나는것입니다.〉하며 소크라테스에게 잔을 주었다.

그는 조금도 안색을 달리하지 않고 안정된 기분으로 잔을 받았다. 그리고는 옥졸에게 〈종교의식대로 이 잔의 약을 조금 땅에 쏟아도 좋으냐?〉하고 물었다. 옥졸은 〈한번 마실 분량만 준비합니다.〉라고 대답하니 소크라테스는 〈알았다. 그러나 여기서 저세상까지 무사히 가게 하여주시기를 신들에게 빌어야 한다. 신들이여, 내 소원을 들으소서.〉하고 온화한 얼굴로 잔을 기울이였다.

이때까지는 우리들이 눈물을 머금고 참아왔으나 소크라테스가 막 잔을 기울며 음독하는것을 본 다음부터는 더 참아낼수가 없었다.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쏟아져내리므로 나는 얼굴을 가리우고 마침내 흐느껴울었다. 물론 나는 소크라테스를 위하여 운것이 아

니라 그처럼 훌륭한 스승이며 벗인 그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나의 불행을 두고 운것이였다.

나만 그런것이 아니였다. 클라이트는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울고있는 우리들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이게 무슨 일들이냐?! 사람은 평온한 가운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가 념려하여 녀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것이였는데 마음을 안정하고 참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소크라테스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하면서 옥졸의 말대로 침상에 반듯이 누웠다. 약잔을 준 옥졸이 소크라테스의 다리와 발을 살펴보고 발을 누르며 감각이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다리와 몸은 점점 식어가며 굳어졌다. 그것을 안 소크라테스는 〈약기운이 심장에까지 미치면 그만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아래배부분이 식어지자 그는 얼굴까지 덮었던 이불을 제끼며 마지막유언을 하였다. 〈클라이트군, 내가 아스클레피어스한테서 닭 한마리를 가져온것이 있으니 그 빚을 갚아주려마.〉 클라이트가 〈갚으리다. 딴 부탁은 없겠습니까?〉하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잠시후 몸을 움직이므로 하인이 이불을 제끼니 벌써 눈이 꺼져있었다. 클라이트는 눈을 감기고 턱을 고였다.

이것이 내가 아는 사람들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며 가장 훌륭한 어른이라고 진심으로 말할수 있는 우리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최후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제관계

일찌기 맑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켜 《고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하였다.

사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누구보다도 뛰여난 학자였다.

서양철학사에 의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8년간을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서 20년간이나 배웠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사제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하게 흥미를 끌고있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그들은 다 자기의 스승에 대하여 두터운 경모의 정을 가지고있었다.

그렇지만 일단 철학이라는 학문이 문제로 되였을 때 그들은 스승의 학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다. 즉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학설을 엄하게 비판하고 학문을 전진시켰다.

만일 이러한 인간관계, 사제관계에 기초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철학도 발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관료적인 판에 박은 사제관계는 학문의 발전을 방해하는것이다.

어린 플라톤의 기질

고대그리스의 관념론철학의 대표자인 플라톤의 어린시절에 있은 이야기이다.

《옛날에 저 넓디넓은 대서양의 한가운데 넓은 대륙이 있었단다. 〈아트란티스〉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면서 바다밑으로 가라앉고말았지. … 숱한 사람이 죽고.》

플라톤의 할아버지인 크리티아스가 어린 플라톤에게 흥미를 끄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플라톤은 생각하였다.

(그 대륙이라는것이 실제로 있었던것일가? 할아버지야 아직 100살도 못살았는데 어떻게 1만 2천년전의 일을 알고있을가?)

보통아이들은 그저 흥미있게 듣고 스쳐지낼 이야기였으나 플라톤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플라톤은 할아버지에게 따지고들었다.

《할아버지, 그 대륙이 있었다는게 사실이나요?》
《사실이 아니구. 그럼 내가 그걸 지어냈겠니?》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어버렸다. 그러자 플라톤은 물러서지 않고 또 파고들었다.
《사실이란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라고 한다면 오래전에 산 사람들을 통해 내가 전해들었다는거지.》
《누구한테서 말인가요?》
재미나는 옛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번져지자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탐구심이 강한 손자임을 잘 알고있는 그였기에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답을 해주었다.
《내가 이 말을 들은것은 솔로몬한테서였단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 이야기를 닐강의 삼각주에 있는 옛 도시의 신관에게서 들었다고 하더라.》
할아버지는 이것으로 손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주어졌으리라고 여기면서 자리를 고쳐앉았다. 하지만 손자에게서는 또 질문이 쏟아져나왔다.
《그 신관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했나요?》
플라톤의 머리에는 그것을 꼭 확인해보고싶은 생각이 솟구쳐올랐다.
후일에 플라톤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의 출처를 캐였고 신전에도 찾아가 옛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저서에 《아트란티스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넣었다.
이처럼 플라톤은 무엇이건 파고들기를 좋아하였으며 자기로서 다 확인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을 책으로 써내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정신력을 믿었기에

18세기가 낳은 수학의 거장인 스위스수학자 오일레르는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진 소경과학자였다.

오일레르는 28살에 오른쪽눈이 멀고 58살에 왼쪽눈이 멀어 완전한 소경이 되였다.

아마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과학연구사업을 끝장냈을것이다. 그러나 오일레르는 오히려 더 왕성한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달라붙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강의한 의지와 표상능력, 비상한 기억력을 믿었기때문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정신력을 믿었다.

그가 실명한 후 맏아들과 제자들이 그의 눈과 손발이 되여 연구사업을 도와나섰다. 글을 받아쓰는 일은 그들이 대신해준다 해도 그 방대한 계산수치와 공식들을 어떻게 남들이 대신하여 산출해낼수 있었겠는가? 그 모든것은 오일레르자신이 자기의 머리속에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람의 뇌수가 아무리 발달되였다 하더라도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오일레르의 기억력과 암산력, 판단력과 재생능력은 끝없이 넓은 대양과도 같았다.

그가 일생동안 내놓은 수학론문 750여건가운데서 절반이상은 소경이 된 다음에 발표한것들이다.

그의 정력과 탐구력은 그야말로 인간의 보통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잠자는 시간외에는 단 한순간도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오일레르는 해석수학을 체계화하고 변분학을 발전시켰으며 함수의 개념을 제기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류해놓았다.

오늘 우리가 쓰고있는 삼각함수의 기호를 처음 내놓은 사람도 그였고 자연로그의 밑수표시법을 내놓은 사람도 그였다. 뉴톤과 라이브니쯔에 의하여 개척된 미적분학도 결국 오일레르에 의하여 완전한 면모를 갖추어 오늘과 같이 된것이다.

오일레르는 달의 운동과 천왕성에 대한 력학적연구도 하였으며 빛의 파동설에 기초하여 에테르매질에 관한 가설도 내놓았다. 이밖에도 무색렌즈의 발명, 수력학의 연구, 타빈리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소경인데다가 76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부터 의학, 식물학, 화학 등 여러 분야의 지

식을 습득하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참으로 오일레르는 불사조와 같은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과학의 높은 상상봉을 톺아오른 맹인과학자로서 세상사람들속에 영원한 추억을 남겼다.

의사의 의무감

1883년의 어느날이였다.

도이췰란드의 세균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코흐는 신문을 보고있었다. 신문을 보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갔다.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실려있었다.

《엘이스칸다리아에 콜레라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하고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끊임없는 구토설사로 몸안의 수분이 다 빠져 처참하게 죽어가고있다. 그러나 손을 써볼 아무런 방도도 없다.》

코흐는 흥분하여 방안을 오고갔다. 이윽하여 그는 조수에게 짐을 꾸리라고 지시하였다.

《갑자기 어디로 가시렵니까?》

조수가 의아해서 묻자 코흐는 신문을 내보이며 말하였다.

《에짚트에로 가야 하겠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콜레라로 죽어가고있단 말이요.》

《아니, 전염병이 퍼진 곳에 어떻게 가신다고 그럽니까?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조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코흐는 몹시 흥분되여 웨치다싶이 말하였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병을 피해 그곳을 떠날수는 있어도 의사인 나는 우정이라도 그곳을 찾아가야 하오.》

그리하여 코흐는 에짚트로 떠나갔다. 그의 높은 정신세계가 무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곳도 서슴없이 찾아가게 하였던것이다.

끝내 코흐는 바나나모양으로 허리가 꼬부라진 콜레라병원균을 찾아내고 예방대책도 일정하게 세워놓았다.

생명이 지는 순간까지

《세계발명의 왕》인 에디슨이 생일 80돐을 맞을 때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에디슨씨, 당신은 언제까지 발명을 계속하시렵니까?》

그 신문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데는 리유가 있었다.

20년전에 에디슨의 생일 60돐을 쇠는 날에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일만 하였는데 바로 그날 이 신문기자가 《에디슨씨, 당신은 언제면 손에서 일감을 놓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글쎄 일흔이 되면 멋진 단추가 달린 양복이나 입고다니며 일흔다섯살이 되면 기타나 배우고 그다음 여든이 되면 녀자들과 실없는 롱담이나 하고 여든다섯살을 넘겨산다면 아침저녁 례복을 입고 식당출입이나 하고 그다음 90이 되면… 아니요. 나는 30년 앞날의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겠소.》

에디슨이 한 이 말은 인차 신문에 게재되여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지가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70살이 되고 80살이 되도록 에디슨은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여전히 작업복차림으로 자기 집과 실험실사이를 오갈뿐이였다.

그는 20년동안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그 신문기자는 20년전에 한 질문을 오늘 또다시 반복하여 제기했던것이다.

기자가 준 질문서를 받아쥔 에디슨은 그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돌려주었다.

《나의 장례식 있기 2～3일전까지!》

팔십이 된 그날에도 남은 여생을 과학탐구에만 바치려는 관록있는 발명가의 소박한 글씨를 들여다본 신문기자는 다시한번 깊이 머

리를 숙이였다고 한다.

《그래도 역시 지구는 돈다!》

이딸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갈릴레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1609년에 달표면이 고르롭지 못하다는것, 은하계가 항성들로 이루어져있다는것, 태양의 흑점이 자전운동에 따라 이동한다는것, 목성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것, 금성에도 이지러짐현상이 있다는것 등을 발견하였다.

갈릴레이의 이 발견은 꼬뻬르니끄의 태양중심설과 지동설이 매우 과학적이고 정당하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그러나 관념론만을 숭배하던 교회는 갈릴레이의 유물론적견해에 겁을 먹고 그의 주장이 교리에 씌여진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는 허황한 리론이라고 악랄하게 공격하면서 교리를 반대한다는 리유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갈릴레이는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1610년 그는 도이췰란드천문학자 케플레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진리를 자연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써놓은 책에서 찾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후 갈릴레이는 20여년동안 《별세계사절》, 《태양흑점에 대한 생각》 등을 비롯한 여러권의 천문학에 관한 책들을 집필하여 자기가 발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꼬뻬르니끄의 태양중심설과 지동설의 정당성을 증명하였다.

1633년 2월 로마법왕 우르만은 교회가 갈릴레이를 중상모독하여 꾸며낸 고소장을 읽고 69살난 로학자를 재판정에 끌어내다가 꼬뻬르니끄의 학설을 부인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강박하였다.

갈릴레이는 강요에 못이겨 그들이 부르는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그는 《반성문》을 다 쓴 다음에도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그래도 역시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였다.

진리에 대한 로학자의 신념은 확고부동하였다.

이에 탄복한 우르만법왕은 《목성의 빛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릴레이를 잊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언장

예순이 넘은 노벨은 자주 일어나는 심장발작으로 괴로와하였다. 갑자기 심장이 조여드는것처럼 아픔이 와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게 되였다.

《노벨씨, 발작이 일어나면 이것을 드십시오.》

의사가 이러며 노벨에게 준 물약은 다름아닌 니트로글리세린이였다.

(참 운명도…)

노벨은 오랜 세월 화약을 발명하고 생산하면서 늘 다루던 니트로글리세린에서 나오는 성분때문에 머리를 앓아 괴로와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약으로 먹게 된것이다.

노벨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을 느끼자 생각을 하였다.

(나는 언제든지 갑자기 죽을것이다. 엄청난 내 재산을 그대로 남겨두면 큰 소동이 날지도 모른다. 유언장을 만들자.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 보람있게 쓰자.)

1895년 11월, 노벨은 믿을만한 4명의 사람을 불러 유언장의 증인으로 세웠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기금으로 삼아 해마다 다음과 같은 상과 상금을 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 물리학상—물리학에서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스웨리예과학원이 뽑을것.)

• 화학상—화학에서 중요한 발명이나 개량을 한 사람(우와 같음.)

• 의학생리학상—생리학, 의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스톡홀름의학연구소가 뽑을것.)

• 문학상—문학에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고상하게 해주는 우수한 작품을 쓴 사람(스웨리예문학협회가 뽑을것.)

• 평화상—나라사이의 화목을 도모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이룩하는데 힘을 기울인 사람(노르웨이국회에서 5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뽑을것.)

유언장에는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주라는 말이 덧붙어있었다.

다음날 노벨은 유언장을 스톡홀름은행에 맡기고 자기가 죽은 다음 발표해달라고 하였다.

이듬해 12월에 노벨은 쓸쓸히 눈을 감았다.

노벨의 유언대로 노벨상이 제정되여 제1차 노벨상시상식이 1901년 노벨이 죽은 날인 12월 10일에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과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챠나(오늘의 오슬로)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과학과 그 학도들이 다 나의 자식들입니다》

영국의 화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돌턴이 만체스터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일이다.

어느날 한 제자가 예순이 넘은 돌턴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평생을 독신으로 사십니까?》

《그거 참 까다로운 질문이군. 뭐라고 해야 할가?… 아마 그럴 사이가 없었던탓이겠지. 다른것을 생각할 짬이 없이 이날까지 흘러왔구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왜 나에게 자식이 없단 말이요?

과학과 그 학도들이 다 나의 자식이 아니겠소!》

하기에 생애의 전기간 모든것을 과학 그 하나에 바쳐 줄달음치며 살아온 돌턴이 조용히 눈을 감고 생을 마쳤을 때 그의 옆에는 바로 전날까지 기상관측한 결과를 적어놓은 일지가 놓여있었다.

《나라에 바치는 복무》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로씨야의 화학자 멘델레예브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군 하였다.

그는 여러 기회에 과학자로서의 자신이 《나라에 바치는 첫번째 복무》는 과학활동이라고 말하였다.

사실상 그는 자기의 진지한 과학활동으로써 조국의 명예를 떨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멘델레예브는 50여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의 과학원과 과학협회의 성원으로 선출되였다. 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48년이 지난 1955년에도 다른 나라의 물리학자들은 101번 화학원소를 합성하는데 성공하고 로씨야학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원소에 멘델레예브의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그는 실지 과학활동으로 자기의 전생을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멘델레예브는 자신이 《나라에 바치는 두번째 복무》는 교육활동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뻬쩨르부르그의 여러 대학과 오데싸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들을 키우는데 전심하였다.

또한 그는 《화학의 기초》라는 교과서의 저자였는데 이 책은 그가 살아있는 기간 8판이나 출판되였으며 외국어로도 여러번 출판되였다.

멘델레예브는 자신이 《나라에 바치는 세번째 복무》는 경제발전에 실지로 이바지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원유채취를 위한 수많은 방안들을 제기하였으며 석탄지하가스화에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경제분야에서 멘델레예브의 권위는 대단하였는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에는 어디서나 그를 초청하군 하였다.

그는 사망하기 직전에 《로씨야의 인식》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는 생산력발전에 관한 방대한 계획이 반영되여있었다.

능란한 해부학강의솜씨

벨지끄의 의학자 베쌀리우스가 1537년 이딸리아의 빠도바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을 때였다.

이곳에서 정력적인 연구사업으로 이미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은 그는 외과강좌를 맡으면서 동시에 해부학의 강의도 하게 되였다.

강의를 할 때 그는 직접 인체해부를 하면서 실물로 인체의 매 기관들을 설명하는가 하면 외과림상과 관련시켜 설득력있게 납득시키군 하여 강당은 언제나 학생들로 짝 들어차군 하였다.

한번은 어느 한 나이든 선배가 그의 능란한 해부학강의에 대해 질투하면서 《젊은게 인체해부를 얼마나 했다고 능란한체 하는지 원! 동물의 뼈다귀를 몇번 만져보아도 저쯤은 할수 있는거야. …》라고 뒤소리한적이 있었다.

이 소리를 무심히 스쳐보낼수 없었던 그는 다음번 강의에 200여개로 이루어진 인체의 골격을 빠짐없이 들고나와 그것을 비슷한 동물의 뼈다귀와 뒤섞어서 교탁우에 쌓아놓았다.

강당을 메운 학생들앞에서 그를 야유한 선배에게 검은 천댕기를 주면서 자신의 눈을 힘껏 동여매여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한 다음 단 10분도 못되는 사이에 200여개로 이루어진 인체의 뼈를 모조리 갈라놓았다.

경탄의 환성과 폭풍같은 박수갈채의 요란한 소용돌이속에 눈을 싸맨 천댕기를 풀고나서 그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이다.

남이 해부하는것을 몇번 보고 해부학을 다 배웠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자신이 직접 보고 해부하면서 정통한 사람만이 수술칼을 잡을 자격이 있으며 산 사람의 질병을 다스릴수 있는것이다.》라고 하며 강당을 나섰다고 한다.

건망증아닌 건망증

뉴톤의 건망증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물론 그 건망증이라는것이 연구에 열중하여 딴일에 전혀 무관심한데서 나온것이기는 하지만…

어느날 뉴톤은 벽난로앞에 앉아 사색에 열중하고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한참 참고있다가 뉴톤은 참을수가 없어 하인에게 말하였다.

《더워서 도무지 견딜수가 없네, 어서 벽난로에서 불을 끌어내주게.》

그러자 하인은 이상하다는듯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대답하였다.

《주인님, 더우시면 걸상을 좀 멀찍이 놓고 앉아계시면 될텐데요?》

그 말을 듣자 뉴톤은 걸상을 벽난로에서 멀찍이 떼여놓으면서 말하였다.

《아참, 그렇게 하면 될걸…》

그리고는 다시 무엇인가 깊은 사색에 잠겼다.

4) 철학자, 과학자들의 해학과 유모아

《나에게는 가설이 필요없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였던 라쁠라스는 《천체력학》이 출판되자 그 책을 들고 당시 황제였던 나뽈레옹에게 찾아갔다.

책을 받아본 나뽈레옹은 라쁠라스를 희롱해보려고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당신은 우주의 체계에 대하여 이처럼 방대한 책을 써냈는데 우주의 창조자에 대해서는 어째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소.》

나뽈레옹의 이 물음은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군주인 자신에 대한 찬양이 한마디도 없는데서 나온 일종의 불만의 표시였다.

그러나 권력앞이라 할지언정 고개를 숙일 라쁠라스가 아니였다. 그는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페하, 나에게는 그와 같은 가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술가의 모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인이였지만 공명심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한번은 채플린의 요청에 의해 영화 《도시의 빛》상영식에 참가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이 명인들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탄 승용차를 물샐틈없이 둘러쌌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군중의 이러한 행동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아 채플린에게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고 물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알려진 후 기자들은 늘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그를 성가시게 굴었고 화가와 조각가들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였다.

한번은 려행도중에 한 낯선 승객이 그에게 직업을 묻자 아인슈타인은 어쩔수 없다는듯 유모아적으로 《저는 예술가의 모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느 한 사교모임에서 아인슈타인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젊었을 때 생활에 대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다만 남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한적한 구석에서 사업하는것이였소. 그렇지만 당신도 보다싶이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되고말았소.》

51살나던 해에 아인슈타인은 한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상대성리론연구를 자신의 필생의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나는 사실 구멍땜이나 하는 한갖 림시로력에 불

과하다.》

그의 최대의 기쁨은 과학연구였고 다음은 음악이였다. 때로는 피아노를 치다가도 느닷없이 큰소리로 이렇게 웨치군 하였다.

《끝내 비결을 찾아냈군!》

사실 그가 찾아낸것은 과학문제의 답이였다.

꼭같은 감각

추운 겨울 어느날 얼음이 깔린 길을 걷던 아인슈타인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부축해 세우면서 물었다.

《아인슈타인선생, 상대성원리의 술어로 말한다면 선생이 넘어졌다고 하지 않고 지구가 갑자기 기울어졌다고 해도 되겠지요?》

아인슈타인은 헐떡이며 대답하였다.

《선생의 론법에 동의합니다. 다행히도 서로 다른 론법이 나에게 준 감각은 똑같습니다.》

로모노쏘브의 림기응변

로씨야의 과학자였던 로모노쏘브는 검박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옷치레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한번 도이췰란드사람이 로모노쏘브의 옷소매에 구멍이 난것을 보고 이렇게 골려주었다.

《선생, 당신의 그 옷소매에 난 구멍을 통해 나는 당신의 박식을 봅니다.》

이에 대해 로모노쏘브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즉시 반격을 가했다.

《선생, 나는 이 구멍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가가 보여집니다.》

이리하여 옷의 구멍을 보고 시까스르던 도이췰란드사람은 도리

여 조롱거리로 되였다.

기름투성이의 일생

세계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어낸 스티븐슨이 유명해지자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듣군 하였다.

어느날 한 청년이 사치한 옷차림을 하고 스티븐슨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스티븐슨은 청년을 한참 쳐다보다가 대답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안됐지만 자네같이 좋은 옷을 입어서는 안되네. 나는 자네만한 나이때에는 언제나 기름투성이옷을 입고있었다네.》

결혼하지 않은 행복감

영국의 저명한 화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달톤은 해마다 시간을 내여 자기가 태여난 농촌마을에 가서 고향사람들을 만나보군 하였다.

고향사람들은 언제나 혼자몸으로 오는 그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되여 물었다.

《달톤선생, 당신은 왜 부인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안해가 없답니다.》

《서른이 넘었는데도 안해를 맞을 생각을 안하시오?》

《예, 안합니다.》

《아니 그건 왜요?》

《전 시간이 없답니다. 이 머리엔 삼각, 화학공정과 물리실험 등 문제들로 꽉 들어찼답니다. 그러니 무슨 시간이 있어 그런 사랑따위의 허무한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전 줄곧 결혼하지 않은 행복감에 살지요.》

공정하게 분배된것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몽떼스큐가 어느날 한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게 분배된것은 아마 량심밖에 없는것 같소.》

《왜 그렇게 생각하오?》

《사람들은 모두 자기한테 이것도 없소 저것도 모자라오 하고 불평을 부리지 않나? 그렇지만 자기한테 량심이 없다거나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신사란 무엇인가

18세기 미국과학자 프랭클린의 집에 한 흑인노예가 있었다.

어느날 그는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주인님, 신사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요?》

《그것은 한가지 생물로서 먹고 마시고 살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생명있는 물건이다!》

프랭클린이 이렇게 가르쳐주었다.

잠시후에 노예가 달려와 프랭클린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이제야 신사란 무슨 물건인지 알았어요. 사람은 사업하고 말은 일하고 소도 로동하는데 유독 돼지란 놈이 먹고 자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한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돼지가 바로 신사예요!》

에디슨이 택한 《휴양지》

에디슨의 안해가 그의 건강을 념려하여 휴양지에 가서 휴식할것을 권고했을 때였다.

《어델 가서 휴양을 한단 말이요?》

에디슨이 이렇게 반문하자 안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상냥스럽게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곳?!…》

두손가락으로 이마를 다독거리며 한참동안 생각하던 에디슨은 시원스레 대답을 했다.

《좋소, 내가 좋은 곳을 하나 골랐소. 여보, 래일 곧 떠나겠소.》

《그래요? 이런 씨원한 마음에 드는 대답은 처음 받아보는구려.》

안해는 너무 좋아 그의 행장을 차리느라고 부산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준비를 다 갖춘 안해는 에디슨을 바래주려 찾았으나 어디에 갔는지 통 알수가 없었다.

반나절이나 이리저리 땀을 흘리며 에디슨을 찾아다니던 안해는 자그마한 외딴 실험실에서 실험에 여념이 없는 에디슨을 찾아냈다.

억이 막혀 말도 못하는 안해에게 에디슨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여기가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요.》

《최대》의 발명품

어느날 에디슨은 만찬회에 초대받아갔다. 워낙 이날의 만찬회는 에디슨이 발명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해서 마련된것이니 거절할수 없었던것이다.

먼저 사회자가 일어나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어찌나 에디슨의 성과를 춰올리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에디슨의 낯이 붉어질 정도였다. 게다가 얼마나 지루한지… 일장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흐뭇한듯 싱긋 웃더니 에디슨에게 한마디 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에디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기간 적지 않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최대〉의 발명품이라 할수 있는것은 축음기입니다. 그것은 축음기는 자기가 듣기 싫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꺼버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말에 사회자의 얼굴은 수수떡처럼 붉어지고 장내에는 폭소가 터졌다.

지적성장이 늦었기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리론을 발표했을 때였다.

《선생님, 위대한 발견은 어디에서 왔다고 봅니까?》

기자들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적성장이 늦었기때문에 커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만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5) 토막이야기

림종시의 계산

프랑스의 수학자 보렐은 한평생 수학연구에만 몰두해왔다.

그자신도 수학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고 썼다.

그러던 그가 앓아눕게 되였다.

림종전 친척들과 벗들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한동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아마 운명하시는것 같구만.》라고 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의 침상으로 몰려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안해는 그를 가볍게 흔들면서 《눈을 뜨고 절 좀 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돼요.》라고 했다.

그래도 보렐은 꼼짝하지 않았다.

《어디 제가 좀 봅시다.》라고 하면서 보렐의 친구가 나섰다.

그는 보렐의 귀에 대고 《12의 평방은 얼마요?》라고 했다.

그러자 보렐은 인차 가냘픈 목소리로 《144》라고 띠염띠염 대답했다.

한생에 그렇게도 사랑해온 수학, 보렐은 생명의 마지막불꽃도 계산속에서 태워버렸던것이다.

교두에서의 수학계산

궂은비가 내리는 어느날 아인슈타인은 교두에서 한 학생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리론을 중력이 있는 공간에 적용했을 경우 그 타당성여부와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 사색하고있던중이였다.

그것은 벌써 며칠동안이나 고심해오던 문제였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령감이 떠올랐던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얼른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장을 하나 꺼내여 그것을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그가 비를 맞으며 무엇인가를 쓰고있는것을 본 한 친구는 그한테 달려와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다.

《친애하는 아인슈타인선생,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있소?》

《한 학생을 기다리고있는중인데 아직 오지 않는구려.》

《그런데 비를 맞으며 뭘 그리도 부지런히 쓰오? 길가에서 시간을 보내는것이 그리도 아깝소?》

《아니, 아니요. 난 오늘 수확이 대단하오. 방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소. 수수께끼가 풀렸단 말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에 흠뻑 젖은 종이쪽지를 조심스레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거기에는 먼 별로부터 오는 빛이 태양결면을 가까이 지날 때 강한 중력마당에서 얼마만큼 굴절되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수식이 적혀있었다.

마차뒤판에 쓴 수식

프랑스의 물리학자 암뻬르는 순전히 독학으로 공부하여 44살에 빠리대학 교수로 되였고 그 다음해에 유명한 암뻬르법칙을 내놓은 사람이다.

암뻬르는 수학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침식을 잊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날 빠리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수학문제를 풀어볼만한데가 없었다.

때마침 길옆에는 마차 한대가 서있었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백묵을 꺼내들고 마차뒤판에 수식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마차가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차를 따라가며 부지런히 수식을 써내려갔다. 길을 가던 사람들모두가 암뻬르와 마차를 번갈아 쳐다볼뿐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랐다.

제일 큰 발견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 데이비는 어느날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과학에 일생을 바치고싶어하는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적혀져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데이비선생의 강연을 듣고 정리한 학습장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니, 이 청년이 어떻게 내 강연을 들을수 있었을가?)

이 시기 데이비는 런던왕립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강연에 출연하군 했는데 인기가 대단했다.

그래서 데이비가 강연을 할 때마다 강연회장은 터질듯이 청강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실정이 이러하니 강연참가증을 얻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청년이 보낸 학습장을 번져갈수록 데이비의 눈은 더욱더 커갔다. 학습장에는 강연내용이 얼마나 조리있게 정리되여있는지 강연출연자인 그로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정리한 강연을 얼마나 읽었던지 글줄마다에는 여러 줄의 표식이 되여있었다.

데이비에게 이런 편지와 학습장을 보낸 청년은 파라데이였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던 파라데이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로동을 해야 했다.

가난한탓으로 배움의 길이 막혔던 그는 남달리 배움의 갈망이 컸다.

이런 때 소문난 화학자인 데이비가 강연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데이의 가슴은 실현하기 어려운 희망으로 해서 찢기는듯이 아팠다.

그런데 마침 그가 다니는 제분소에 단골로 다니는 한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는 학계에 드나드는 사람이였다. 파라데이는 그 신사에게 지꿎게 달라붙어 강연참가증을 얻어달라고 졸라댔다.

그리하여 그는 푼푼이 모아둔 돈으로 넉장의 참가증을 사는데 성공하였다. 바로 그는 자기의 땀과 노력이 스민 돈으로 지식을 얻기 위한 길을 열었던것이다.

파라데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데이비의 강연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강연내용을 되새기고 학습장을 정리해나갔다. 그리고는 밤새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파라데이는 데이비의 강연에 심취되여 과학자가 될 결심을 굳게 가지였다. 그리고 자기의 절절한 소원을 적어 데이비에게 보낸것이다.

그리고 데이비의 편지를 가슴을 조이며 기다렸다. 며칠이 지났으나 회답편지는 오지 않았다.

(참 나같이 알지 못할 청년에게 데이비같은 큰 학자가 회답을 써보낼리 만무하지.

그래도 혹시… 아니야 그럴수 없어.

늘 바쁘신 선생이다나니 회답할 짬이 없어 그런지도 모르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고있던 어느날 갑자기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야! 어데다 정신을 팔고있니?

네가 파라데이지. 자, 편지다.》

그는 뜻밖의 일에 당황하여 우편배달부에게 미처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다.

덮칠듯이 편지를 받아든 그는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편지에는 보내준 편지와 학습장을 잘 받아보았다는것과 언제 찾아오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파라데이는 이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을 독차지한 심정이였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후 데이비는 파라데이를 자기 조수로 데려갔다.

파라데이는 결코 자기를 과학의 길로 이끌어준 데이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는 전기문명의 길을 여는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인 전자기유도현상을 발견했으며 물리학과 화학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하기에 파라데이를 찾아낸 데이비를 가리켜 그의 벗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군 했다.

《데이비의 수다한 발견가운데서 가장 큰 발견은 파라데이를 발견한것이다.》

4. 창작가들의 기지와 일화

《생동하고 인상깊은 생활속에서 철학적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형상하는것이 작가의 재간이다.》

김 정 일

창작가들은 정열적인 창작활동과정에 창작적예지와 슬기를 발휘하였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부정의를 증오하였다. 그리고 창작가들은 기발한 착상과 령감에 기초하여 가치있는 창작품들을 내놓았으며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해학과 유모아로 생활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1) 창작가들의 예지와 슬기

부자집며느리를 깜짝 놀래운 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였던 리백은 어렸을 때 집안이 하도 가난하여 한때 부자집인 장씨네 집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한적이 있었다. 부자집에서 마른일, 궂은일에 몰리다나니 책을 읽거나 글을 지어볼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리백은 밤마다 하루일의 피곤을 무릅쓰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으며 그 이튿날에는 낮에 일하면서 읽은 책의 내용을 되새겨보군 하였다.

어느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길을 따라 소를 몰고가던 어린 리백은 흥에 겨워 자기도모르게 시를 읊었다.

바로 이때 부자집며느리가 소리쳤다. 《흥, 길거리에서 노래

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담. 좀 조용히 다녀버릇해라.》

그 녀자의 거동에는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시는 무슨 시냐 하는 멸시가 스며있었다.

슬그머니 화가 난 리백은 소를 세우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머리에는 언뜻 한 생각이 떠올랐다.

(시를 지어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는 더한층 목청을 돋구어 시 한수를 읊었다.

《부드러운 목소리
가는 길 멈추게 했소
그대는 직녀인가
견우를 부르니》

이것은 자기자신을 언제나 소를 몰고 다녔다는 견우에 비유한것으로서 주인집며느리를 견우의 안해인 직녀에 비겨 조소한것이였다. 이 시의 뜻을 헤아려본 그 녀자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러나 그는 선자리에서 훌륭한 시를 척척 지어내는 리백의 재간에 대하여 놀랍게 생각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리백은 그 며느리의 귀염을 받게 되였고 책도 빌리고 책읽을 시간도 얻을수 있게 되였다.

그를 왜《시습》이라 불렀는가

15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학자였던 김시습은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였다고 한다.

그의 재능이 하도 놀라와 외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을 가르치기에 앞서 글자부터 배워주었다.

글자를 배워준 다음 그에게 글자를 내보이며 무슨 글자인가고 물으면 말을 못하여도 그 뜻을 실물이나 그림 같은것을 가리켜 보여주군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다놓고 시를 읊어주었다.

꽃은 란간앞에서 웃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러자 시습은 제꺽 일어나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병풍에 그려져 있는 꽃을 가리켰다. 외할아버지는 너무도 기특하여 이번에는 이런 시구를 읊었다.

새는 수풀에서 울건만
눈물을 볼수 없노라

시를 듣고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시습은 인차 마루끝으로 걸어나가 처마밑에서 우짖는 새를 가리키며 방긋이 웃었다.

병풍에는 새가 없고 마침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던것이였다.

어느날 이 소문을 들은 어느 한 학자가 김시습을 찾아왔다. 그는 말도 채 번지지 못하는 어린 시습을 여러가지로 시험해보고 나서 외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배우면 즉시 익히는 총명한 아이요. 그러니 이름을 〈때 시〉자와 〈익힐 습〉자를 써서 〈시습〉이라고 하는것이 어떻겠소?》

그 이름이 하도 그럴듯하여 이후 그의 이름은 김시습으로 되였다 한다.

치마폭에 그린 포도그림

리조 전기의 녀류시인이며 화가였던 신사임당은 포도를 심어 가꾸며 포도를 그리기 좋아했다.

어려서 그림공부를 할 때 앞뜰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청신

한 열매가 주렁져 달리던 포도를 즐겨 그렸다. 출가한 후에도 고향집 어머님이 그리울 때면 시원한 포도송이를 어머님께 올리고싶은 심정을 담아 소담스럽고 싱그러운 포도를 그림에 옮겼다.

어느때인가 신사임당은 친척집잔치에 간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집일손을 도와 잔치음식상차리기에 분주하게 돌아치고있었다.

그런데 말쑥한 옷차림을 한 한 녀인만은 주방 한쪽구석에서 치마폭을 감싸쥐고 주밋거리는것이였다.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그늘이 잔뜩 실려있었다.

무심히 그옆을 지나치던 신사임당은 그 녀인의 울상이 된 얼굴을 보았다.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라도 생긴것일가?)

사려깊고 인정많은 신사임당은 녀성다운 심정으로 그 녀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혹시 몸이라도 불편하신가요?》

신사임당의 친절한 물음에 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채 《아, 아니예요.》하며 대답하기를 피하는것이였다.

《무슨 일인지? 혹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나 아닌지요?》

녀인은 신사임당의 물음에

《저 사실은 이 치마를 못쓰게 만들어서…》하며 겉치마를 펼쳐보였다. 녀인이 펼쳐보이는 치마는 새로 지은 비단치마인데 몹시 덟어져있었다.

녀인은 《잔치집에 오느라고 남의 치마를 빌려입고 왔는데 이렇게 망쳐놓았으니… 새것으로 장만하여주려고 해도 집안형편이 어려워 그럴 힘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하며 근심하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은 가난한 집 녀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든지 녀인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그 비단치마를 다시 살펴보았다.

신사임당은 재능있는 화가의 안목으로 그 비단치마폭에 그림을 그려 덟어진 곳을 지워줄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사임당은 녀인의 치마를 벗겨 말기를 뜯어 주름을 펴고 덞어진 곳을 깨끗이 씻어놓게 한 다음 주인집에서 붓과 색감을 빌려다가 치마폭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간사이에 비단치마우에는 소담하고 싱싱한 포도송이들이 주렁지게 열렸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걱정을 안고 신사임당의 그림그리는것을 지켜보던 녀인의 얼굴에는 점차 놀라움과 감탄의 빛이 어렸다.

신사임당의 붓길이 휘둘러질 때마다 치마폭에 생긴 얼룩이 지워지면서 생동한 포도넝쿨이 뻗어나갔다.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녀인은 끝없는 선망과 존경이 어린 눈길로 신사임당을 쳐다보았다.

소박하고 수수한 차림새를 한 이 녀인이 어쩌면 이렇듯 훌륭한 그림을 그릴수 있는것일가 하는 의혹을 감출수 없었다.

신사임당은 녀인에게 권했다.

《이 그림을 저자에 내다 팔면 새 치마감과 바꿀수 있을것입니다.》

녀인은 그림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갔는데 저저마다 이 그림을 보고 다투어 사겠다고 값을 높이 불렀다. 그리하여 새 치마감을 사고도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았다.

그후 녀인은 신사임당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신사임당은 여전히 소박하고 진실한 웃음을 담고 《댁에서 기뻐하니 저도 마음이 놓이는군요.》라고 할뿐이였다.

닭의 화를 입을번한 《풀벌레》

신사임당보다 후세기 사람들속에는 한 그림애호가가 있었다.

그는 당대의 명화로 알려진 여러장의 그림들을 보관하고있었다. 그의 그림들중에는 신사임당의 그림 《풀벌레》도 있었다.

어느해 여름철이였다.

그림애호가는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가 걷고 해빛이 뜨겁게 비치는 날 비단족자에 올려 걸어두었던 그림들을 누기를 말리고 바

람을 쏘이려고 마당으로 내왔다.
주인은 마침 포도나무그늘밑에 놓인 상이 있어 거기에 의지하여 《풀벌레》족자를 걸어놓았다.
그는 족자를 걸어놓고 멀찍이 물러서서 다시금 그림을 감상하였다. 방안에 걸어놓고 볼 때보다 자연풍경속에 내다걸어놓고보니 그 그림의 풀벌레는 마치 살아서 그림옆에 서있는 포도나무를 향해 기여가는듯 하여 그 생동한 형상이 실물처럼 보였다. 《과시 명화로다!》
주인은 새삼스레 감탄을 하며 그림을 감상하다가 마음이 흐뭇하여 코노래를 부르며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병풍을 내다 바람을 쏘이려는것이였다.
때마침 마당에는 올봄에 갓 까나온 병아리들이 중닭이 다되여 오구구 모여서 분주히 모이를 쫏고있었는데 울타리에 훌쩍 날아오른 수닭이 금빛깃털을 호기있게 푸드덕거리며 목청을 돋구어 《꼬끼요!》하고 울었다.
그러더니 문득 날아내려 쏜살같이 포도나무밑으로 달려가며 암닭들을 부르는 꾸국국국 소리를 연방 질렀다.
좋은 먹이가 있으니 어서 와 먹으라고 찾는것이였다.
병풍을 안고 방안을 나서던 주인은 암닭들이 달려가는쪽을 무심히 돌아보다가 그만 화닥닥 놀랐다.
그는 들고나오던 병풍을 그자리에 놓고 다급히 소리치며 닭들이 달려가는쪽으로 뒤쫓아갔다.
《후여! 이놈, 이놈들!》
포도나무밑으로 달려가면서 주인은 닭떼를 사정없이 휘몰아 쫓아버렸다.
일은 참으로 맹랑하게 될번 하였다.
능청스러운 수닭이 울바자우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포도나무로 기여가는 먹음직스러운 《풀벌레》를 보았던것이다.
수닭은 그것을 노리고 암닭들을 부르는 한편 껑충한 두발을 건성건성 디디며 그림쪽으로 다가들고있었다.
이제 한발자국만 더 가면 그리고 그 우악스러운 부리로 사정없

이 《풀벌레》를 쫓는 날에는 귀중한 그림에 구멍이 나고 족자가 찢어질판이였다.

바로 이찰나에 주인은 손에 땁을 쥐고 엎어질듯 다가가며 닭들을 쫓았던것이다. 닭들을 쫓아버린 주인은 구원된 《풀벌레》를 보고 안도의 숨을 크게 쉬였다.

《하마트면 이 〈풀벌레〉가 닭의 화를 입을번 했구려, 허허허, 하하하. …》

주인은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그림의 풀벌레가 얼마나 신통히 실물같았으면 자연속의 벌레를 가려보는데 능수인 저놈의 수닭이 진짜 벌레인줄 알고 달려들려 했겠는가. 지내놓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림을 닭의 피해에서 건져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주인은 그후 송상기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여 다시금 그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녀류시인 리옥봉

리옥봉은 16세기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이였다.

옥봉은 문자그대로 옥처럼 아름다왔으며 사람됨이 슬기로왔다 한다.

남편인 조원도 의젓하게 생기고 글도 잘 지었다.

이들 두사람은 서로 이런 점에서 뜻이 통하여 부부가 되였다.

옥봉은 시집간 뒤에도 여느집 가정부인들처럼 집안살림살이에만 파묻히지 않고 많은 시작품을 창작하였다.

리옥봉에게는 주옥같은 시들이 많았으나 그가운데서도 《이웃집 녀인을 위하여》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리옥봉의 이웃에는 가난하고 무던한 내외가 살고있었다. 하루는 그 이웃집녀인이 옥봉을 찾아왔다.

이날 울면서 찾아온 이웃집녀인은 순박한 자기 남편이 남의 소를 훔쳤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관가에 잡혀갔으니 이 천만부

당한 루명을 벗을수 있도록 진실을 밝힌 글을 한장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녀인의 하소연을 주의깊게 들은 옥봉은 두말없이 붓을 들었다.

그는 먼저 서두에 이웃집녀인의 남편이 죄없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있음을 쓰고 그뒤에 시 한수를 지었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거울이 없어
소랭이물에 얼굴 비쳐보고
기름도 없어
물을 발라 머리를 빗습니다
나같은 촌녀자가
무슨 직녀성이라고
저의 남편이
견우성이겠습니까

옥봉은 시의 앞부분에서 거울이 없어 소랭이물에 얼굴과 몸가짐을 비쳐보고 기름대신 물을 발라 머리를 단정히 빗을망정 남의 물건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넘겨다보지 않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생활형편과 정직한 마음씨를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뒤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남의 소를 훔치는짓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을 의미깊고 예리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견우성과 직녀성은 전설에서 나오는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를 념두에 둔것이다. 그들은 사랑한탓에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은하수를 사이에 둔 하늘 량쪽에 갈라져 살면서 애를 태우다가는 한해에 단 한번 7월 7석날 저녁에야 잠간 만난다고 한다.

옥봉은 바로 이 전설을 인용하여 옥에 갇힌 남편을 만날수 없는 녀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남편이 소도적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견우는 소를 끌고간다는 뜻이니 견우성이 아니라는 말은 곧 소도적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녀인의 남편이 견우성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 그의 안해도 직녀성이 아니라고 한것이다.

옥봉이가 써준 그 글과 시를 본 관가에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어 이웃집 녀인의 남편을 옥에서 내놓았다.

진리의 목소리, 진실한 시의 힘은 무지막지한 관가의 권력도 어쩌지 못할만큼 이렇게 힘있고 예리하였다.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봉의 남편 조원은 량반집 녀자가 시를 지어 남의 죄를 풀어주는것은 그릇된 행실이고 집안망신이라고 하며 노발대발하며 안해를 집에서 내쫓았다.

옥봉은 원통하였다.

가난한 이웃이 불행을 당한것을 풀어준것이 무슨 잘못이며 녀자라고 시를 짓고 글을 써서 진실을 밝힌것이 어떻게 죄로 된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죄아닌 《죄》를 들씌워 집에서 쫓아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하여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는 처지였다. 그 시기의 녀자는 사람값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빚진 종이요 치마두른 녀자라는 속담이 생겨나기까지 하였다.

어쩌는수가 없어 친정에 간 옥봉은 그곳에서 남편이 마음을 돌리기만 바랐다. 무정한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였다. 그래도 남편은 찾을념을 안했다.

옥봉도 인정세계에서는 남들이나 다름없는 녀인이였다.

그는 한번 정을 주었던 남편이 그리웠다. 집에서 내보낸 후 전혀 돌아보지 않을만큼 차거운 남편이였으나 연약한 녀인은 애끓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옥봉은 이런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 《운강에게》를 시집에 보냈다. 운강은 그의 남편 조원의 호였다.

요지음 우리 님
편안하신지요

창문에 달 비치면
시름이 많습니다
오고가는 꿈길에
발자취가 있다면
님의 문전 돌길이
절반나마 모래가 되였사오리…

님을 그리는 녀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진 이 시는 곧 조원에게 전해졌다. 안해를 집에서 내보내면서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던 조원이였으나 그도 시를 읽어보고는 넋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앉아있었다. 그러나 도덕군자로 자처하는 그에게는 안해의 사랑보다 량반의 체면이 더 중하였다. 얼음장같이 차디찬 그 마음은 매정하게도 안해의 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로 돌아갈수 없었던 옥봉은 참으로 불행하였다. 그래도 이 녀인은 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다가 임진조국전쟁을 맞이하였다. 그가 전쟁때 어떻게 되였는지 그후 소식은 알길이 없었다고 한다.

노래로 량반들을 조소한 황진이

황진이는 16세기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이였다. 1516년에 개성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용모와 남다른 재능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는 아름답고 정서가 깊은 서정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세상에 그 꽃다운 이름을 빛내였다.

하지만 기생으로 한생을 보내야 했던 그는 불행하였다.

그의 서정시로는 시조 여섯수와 한시 네수가 겨우 전해지고있다.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시조가 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말아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어떠리

이 시조를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보면 이러하다.

푸른 산골의 맑은 물아 거침없이 흐른다고 자랑말아
네 한번 푸른 바다에 이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라
밝은 달빛이 저 산에 가득하였으니 쉬여감이 어떠리

이 시조를 말그대로 새기면 별로 깊은 뜻이 없고 순전히 자연풍경의 한 토막을 읊은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는 위선적이고 교만한 봉건량반의 고약하고 역겨운 모습을 재치있게 발가놓은것으로 하여 시인 황진이의 시적재능을 오랜 세월 전해주고있다.

이 시는 하나의 일화와 결합되여있다.

당시 서울에는 벽계수라고 하는 임금의 친척이 있었다. 그는 사람됨이 아주 교만하였다. 어느날 벽계수와 그 친구들이 모여앉아 한담을 하던중에 화제가 문득 송도(개성)명기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였다. 황진이 말이 나오니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용모와 재능이 탄복할만 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명기를 한번 보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말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교만한 벽계수만은 입가에 조소를 띠우며 그 어떤 미인도 자기의 눈섭 한오리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고 장담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벽계수에게 황진이를 직접 만나보는게 어떤가고 하였다. 그는 이에 쾌히 응했다.

그래서 벽계수는 하늘소에 몸을 싣고 호기있게 길을 떠나 개성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별빛 총총한 어느날 밤이였다. 둥근달은 동산우에 두둥실 떠올라 밝은 빛을 뿌리고 산골물은 조잘거리며 쉬임없이 흘러내리는데 벽계수는 거들먹거리며 하늘소를 몰아 산모퉁이를 돌아가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시조를 읊는 녀인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녀인이 다름아닌 유명한 송도명기 황진이였다. 황진이는 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벽계수가 개성에 온다는것을 알고 그

곳에서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가 읊은 노래가 우에서 언급한 바로 그 시조였다.

벽계수는 맑고 랑랑하게 노래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녀인이 황진이라는것을 곧 알수 있었다.

그것은 《청산리 벽계수》가 푸른 산골안의 맑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는 동시에 사람인 벽계수를 가리킨다면 《명월이 만공산》은 온 산에 가득한 밝은 달빛이라는 뜻과 함께 황진이를 의미하기때문이였다. 《명월》은 황진이의 호였다.

황진이가 오만한 벽계수와 자기자신을 비유하여 노래한 그 시조를 다시 풀이하면 《그대 벽계수여, 미인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시라. 한번 이 순간을 놓치고나면 다른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니 그대 아름다운 곳에서 이 황진이를 만나봄이 어떠한가.》라는 뜻으로 새길수 있다.

벽계수는 황진이가 부른 노래의 뜻을 음미해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달빛아래 조용히 서있는 미인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소등에서 내려 밝은 달보다 더 환하고 하늘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황진이의 자태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여 황진이의 아름다움과 시적재능도 자기의 굳센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고 장담하던 벽계수의 오만성의 껍데기는 산산쪼각이 나서 흩어지고말았다.

《우린 저애에 비하면 아직 젖먹이군》

정지상은 5살때에 벌써 뛰여난 시적재능을 나타내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가 5살 잡히던 해 류두날이였다. 평양의 제노라하는 선비들이 대동강가에 모여앉아 시짓기로 한창 흥을 돋구고있었다.

때는 화창한 계절이라 훈훈한 바람에 버드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자랑삼아 흐느적이고있었고 양각도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물결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며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버들꽃 날리는 강변의 버드나무밑에 자리잡은 선비들은 제가끔

자기의 재주를 뽐내며 시짓기에 열을 올렸다.

이때 웬 자그마한 총각애 하나가 그들의 곁에 다가와 아까부터 열심히 그들이 시짓는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넌 웬 앤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 엄마가 찾겠다. 어서 가거라.》

그래도 총각애는 들은둥만둥 그들이 시쓰는것을 열중해서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쪼꼬만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별 녀석 다 보는군, 하하하. …》

그러자 총각애는 당돌하게 입을 열었다.

《나도 시를 볼줄 아나이다.》

그 모습이 하도 대견스러워 그중 나이 지숙해보이는 한 선비가 물었다.

《그래 몇살이냐?》

《다섯살이옵니다.》

《그래 누구의 자손이냐?》

《난 흥부에서 삽니다. 아버님은 정록사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정지상입니다.》

점점 말마디가 맺혀돌아가는게 여간 기특하지 않았다.

《오늘은 류두날이여서 모두 이렇게 시를 지으며 즐기고있는데 그래 류두날이란 무엇인지 알고있느냐?》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던 다른 선비들도 소년의 당돌한 행동에 눈길이 끌려 모두 시짓기를 멈추고 소년의 입만 주시했다.

앵두알같이 빨간 입술이 방싯 열리더니 거침없이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소년의 류창한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허허. 참, 정말 똑똑하기 이를데 없군.》

《이렇게 총명한 애는 지금껏 처음 보오.》

저마끔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속에 아까 말을 건 선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를 볼줄 안다니 시를 지을줄도 알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우

리 함께 시를 지어보자꾸나. 그래 지을수 있겠느냐?》

소년은 영민하게 반짝이는 눈에 반가운 웃음을 짓고 머리를 까딱까딱했다.

《자, 시제목은 〈강상백조〉즉 저기 저 강우에 떠가는 흰새다. 운자는 물결 〈파〉로 하고 어디 한번 시를 지어보아라. 우리도 함께 짓겠다.》

선비의 말이 떨어지자 다른 선비들은 그쯤이야 못짓겠느냐는듯 흥흥거리며 시짓기에 달라붙었다.

붓대를 꼬누어들고 대동강을 바라보며 시상을 잡기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어떤 축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글귀를 맞추어보기에 애썼다.

그런데 한참이나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던 정지상이 냉큼 남먼저 일어섰다.

《그래 다 지었느냐?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아라. 벌써 시를 짓다니…》

선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머리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자 소년은 한걸음 오뚝 나서며 오돌차게 대꾸했다.

《다 지었소이다.》

《그럼 어디 한번 읊어보아라.》

소년은 강우에 떠서 노는 백조를 가리키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하인장백필
을자사강파
(그 누가 하얀 붓을 가지고
새 을자(乙)를 강물결에 그렸을가)

《참, 기가 막힌 문장이요.》

《우린 저애에 비하면 아직 젖먹이요. 아직도 시를 짓지 못했으니 허참!》

그도그럴것이 하얀 붓이라는 한마디 표현으로 백조의 색갈을 나

타냈고 새《을》자로서 백조가 물에 발을 잠그고 날개와 몸의 웃부분을 물우에 띄운채 목을 길게 뽑고 헤염치는 모양과 새라는 뜻을 생동하면서도 의미깊게 형상해냈으니 얼마나 기발한 시적표현인가.

모두들 다섯살밖에 안되는 정지상을 둘러싸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평양에 신동이 태여났군!》

《앞으로 평양의 이름을 크게 떨칠거요. 평양의 자랑이요.》

130년만에 출판된 소설 《20세기의 빠리》

이 작품은 1828년에 출생하여 19세기에 창작활동을 벌린 프랑스의 소설가 쥴 베른이 100년후의 빠리를 상상하여 쓴 야심적인 과학환상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19세기 사람들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미래의 과학적발전모습들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었다.

《공중에 매달려 질주하는 기차》를 예언하였는가 하면 《자동경보장치》, 《거리전기장식》, 《전기결상》, 《전자음악》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적인 성과들을 그때 벌써 내다보고 그려냈으니 그 풍부한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놀라운 기지의 발현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모든것은 단순한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자기나름대로 철저한 분석과 계산을 한데 기초하여 설정한것이였다.

쥴 베른은 완성된 원고를 들고 당시 프랑스에서 제일 영향력있는 한 출판사를 찾아갔다. 출판업자는 원고를 다 보고나서 《친애하는 베른, 당신은 예언자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당신의 예언을 리해하지 못할거요.》라고 하면서 점잖게 원고를 돌려주었다. 그는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으나 거기서도 거절당하였다.

작품을 리해하지 못하는 출판업자들이 무지하고 가련한 존재로 보였지만 그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베른은 원

고를 출판하려던 결심을 포기하고 집구석에 집어넣고는 다시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종이는 누렇게 색이 바랬고 먼지가 두텁게 쌓였다. 원고는 세월의 망각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울분에 찬 베른은 죽을 때까지 그 원고에 대하여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쥴 베른의 증손자가 옛집을 팔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금고를 정리하다가 누렇게 퇴색된 그 원고를 발견하게 되였다.

처음에는 휴지인가 하여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작품원고인것을 알고 호기심에 끌려 읽어보니 오늘의 빠리를 상상하여 쓴 소설이였다.

그는 곧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쥴 베른의 소설은 당장에 출판되였다.

소설《20세기의 빠리》는 인기작으로 되여 온 빠리의 화제거리가 되였고 그 소식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였다.

이렇듯 오래동안 금고속에 묻혀있던 소설은 130년만에야 그 진가가 밝혀져 빛을 보게 되였으며 《세계문학선집》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과작으로 평가되였다.

풋내기강도

동무의 생일연회에 참가하였던 영국의 《현대추리소설의 녀왕》으로 불리우는 아가타 크리스티가 연회장을 나설 때는 새벽 2시경이였다.

《밤이 깊었는데 너 혼자 가면 우리가 마음을 놓겠니. 혹 강도라도 만나면… 우리가 바래워줄게.》

동무들은 차를 불러 크리스티를 바래주려고 나섰다.

《고마와. 모두들 지쳤는데 괜찮아. 아무렴 이 탐정소설가가 강도를 무서워하겠니.》

이렇게 말한 크리스티는 웃으면서 동무들의 바래움을 거절하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밤 진짜강도를 만날줄이야 크리스티자신이 생각이나 했겠는가. 크리스티가 한적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음침한 고층건물의 모퉁이에서 복면을 한 키가 꺽두룩한 사나이가 번뜩이는 칼을 손에 들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한 크리스티는 저도모르게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어쩌자는거예요?》 크리스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귀걸이를 뽑아.》강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귀걸이를 달라는 강도의 말에 크리스티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그는 외투깃을 추켜올리면서 귀에서 귀걸이를 뽑아 땅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나는 그럼 가도 되겠어요?》

크리스티가 귀걸이를 순순히 내주면서 외투깃으로 목을 감추려고 하는것을 본 강도는 그의 목에 분명히 값진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강도는 귀걸이를 주을념을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다.

《목걸이도 벗어놓아.》

《저…이건 눅거리인데…이것만은…》

《잔말말고 빨리!》

강도는 칼을 크리스티에게 바싹 들이댔다.

크리스티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목걸이를 벗었다.

강도는 목걸이를 크리스티의 손에서 잡아채더니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강도가 멀리 도망쳤을 때에야 크리스티는 안도의 숨을 쉬며 땅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주었다.

그 목걸이는 가짜이고 귀걸이는 진짜였다.

방금 그가 취한 행동은 강도의 주의를 귀걸이에서 따돌리기 위한것이였다. 그 금강석귀걸이의 값은 480￡이고 강도가 가지고 간 목걸이는 6￡밖에 안되는 유리제품이였던것이다.

《강도치군 풋내기강도군.》 크리스티는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가던 길을 걸어갔다.

《몹시도 대왕을 닮았소이다!》

고려말—리조초의 학자이며 시인이였던 원천석은 고려가 망하고 리왕조가 서자 치악산의 깊은 골안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영영 세상을 등질 각오를 하였다.

그리고 한때 리성계의 아들 리방원에게 글을 가르친것을 후회하면서 심산속에서 제 손으로 농사를 지어 량식을 마련하였고 전과 다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러던중 왕이 된 리방원의 초청을 받았다.

태종(리방원)은 옛정을 구실로 삼아 원천석을 궁궐에 청한것이였다.

원천석은 마지못해 가면서 흰 옷을 차려입고 태종앞에 나타났다. 원천석을 보는 순간 태종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그가 흰 옷을 입은것은 고려왕조가 망한것을 애도하는 뜻이였던것이다.

눈치빠른 리방원이 그것을 모를리 없었으나 애써 감정을 누르고 원천석을 그전과 다름없이 웃으며 맞아들이였다. 리방원은 어떻게 하나 원천석을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고싶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원천석은 궁중의 식사에 초대되였다. 이제껏 본적없는 희귀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있었지만 원천석은 기분이 좋지 않아 먹는둥마는둥 하였다. 한창 거나하게 술기운이 오르자 리방원이 여러 손자들을 불러들여 원천석앞에 쭉 세워놓고 자랑삼아 물었다.

《그래 우리 손자들이 어떠하오?》

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태연한 자세로 손자들을 훑어보던 원천석은 이윽고 그중의 한명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몹시도 대왕을 닮았소이다.》

방원이 그 의미를 알수 없어 넌지시 떠보았다.

《건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요?》

《그저 대왕을 몹시 닮았다 그 한가지뿐이오이다.》

원천석이 가리킨 손자가 바로 수양대군, 후날의 세조였다.

원천석은 다시금 눈길을 돌려 수양대군을 훑어본 후 그에게 시름깊은 어조로 한마디 덧붙였다.

《앞으로 형제를 몹시 사랑하시옵소서.》

옆에서 듣고있던 방원은 그만에야 분기가 치미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결국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의미가 그것이였단 말인가. 일찌기 정권쟁탈을 위해 동생 방석 등 형제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방원으로서는 속이 찔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분기를 터뜨리며 해보았댔자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폭로하는 행위로밖에 되지 않겠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씩씩거리기만 하였다. 그의 꼴을 지켜보던 원천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오이다. 이젠 그만 돌아갈가 하오이다.》

마지막인사말을 남긴 원천석은 몸을 돌려 곧추 대문으로 향하였다.

이날 원천석이 수양대군에게 던진 예언은 꼭 들어맞아 후에 어른이 된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 단종을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였으며 자기 할아버지가 형제들까지 무참히 살해하였던것처럼 자기 동생들을 죽여버리고 나아가서 조카 단종까지도 죽였던것이다.

왕궁이라는데를 벗어져나온 원천석의 심정은 내가 저따위 방원을 가르쳤단 말인가 하는 수치감과 후회로 가슴이 답답했다.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우는데 고려를 생각하는 원천석의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없었다.

리방원이를 아예 배척한 원천석은 그길로 치악산 초가마가리를 향해 떠나고말았다.

영창안의 소년독서가

프랑스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였던 발자끄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무척 즐기였다.

일단 필요한 책을 손에 쥐기만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탐독하였다.

발자끄가 방돔신학교에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가 10살나던 해인 1809년 6월 5일 고대력사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고있었다.

선생이 갈리아전쟁사를 흥미없이 가르치고있었던것이다.

앞에서부터 세번째 줄에 얼굴이 불깃한 학생이 앉아있었다. 손으로 턱을 고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에 정신을 팔고있는 학생에게 있어서 고대사는 아무런 흥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발자끄, 무슨 생각을 해? 정신이 어디에 가있어?》

선생의 메마른 목소리에 학생들의 눈길은 방금 이름을 불리운 학생에게로 쏠리였다.

《장군각하, 아니, 저 신부님…》

교실안에 폭소가 터졌다. 신부가 그에게 다가왔다.

《언제 봐도 그 꼴이거든. 게다가 선생을 놀려대기까지 하구. 넌 영창이다.》

영창이라는 소리에 학생의 얼굴은 오히려 더 환해졌다.

《알겠습니다, 신부님.》하고 벌떡 일어서려는데 선생이 계속 말하였다.

《어디 쓴걸 보자.》 발자끄는 얼굴이 벌개지며 책을 내밀었다.

《발자끄는 게으름뱅이인 주제에 야심은 끝이 없는걸.》 선생은 메마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발자끄가 무슨 장난을 하고있었는지 다들 봐라. 제 이름은 황제의 이름과 나란히 놓으면서 옹근 한페지를 이렇게 썼다. 〈쥴리어스 케자르, 보나빠르뜨 나뽈레옹, 발자끄…〉채찍맛을 좀 봐야겠다. 건달뱅이같으니. 베르딩씨, 이녀석을 영창으로 데리고 가시오.》

이리하여 어린 발자끄는 학교에서 가장 음침한 곳에 있는 영창에 갇히게 되였다.

얼마후 도서실주임 르페부르신부가 영창에 들어왔다. 그는 20권

이나 넘는 책을 안고와서 발자끄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또 벌을 받았구나.》 발자끄가 태연한것을 보고 그는 말하였다.

《내가 책을 자꾸 가져다주니까 몰래 책읽는 재미에 우정 그러는게 아니냐?》

《아니예요, 신부님.》 발자끄는 아닌보살을 하였다.

《하긴 네가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좋아하는것이라야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거니까. 옛다.》

책을 받은 발자끄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찼다.

학교도서실에 만여권의 책이 있었는데 발자끄는 그것을 전부 읽을 작정이였다.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발자끄는 일종의 쾌락을 느끼며 책속에 파묻혀 정열적으로 읽었다. 영창안에 어둠이 깃들어 글줄이 보이지 않으면 책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하염없이 명상에 잠겼다. 그때로부터 네해가 지나 14살난 발자끄는 무리한 독서로 몸이 허약해져서 선생들의 근심거리가 되였다. 몹시 여윈데다가 얼굴은 백지장같았고 늘 멍청해있는 모습이였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6년이 걸려도 라틴어웅변대회에서 상 한번 타보지 못한 게으름뱅이로 간주하였다. 오죽했으면 교장까지도 《그 게으름뱅이 학생이 어디에 정력을 쏟는지 정말 모를 일인걸.》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발자끄는 6 000여권의 책을 탐독하였다. 그자신도 몸이 나날이 쇠약해지고있음을 알고있었으나 근심할 대신 오히려 재미나는 책을 그처럼 많이 읽은것을 커다란 행운으로 여겼다. 후날 발자끄는 소설《루이 랑베르》에서 이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독서를 통해 여러가지 사상을 섭취하는 과정에 그에게 있어서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 그의 눈은 단번에 7～8줄씩 내려읽을수 있었고 머리도 역시 그 눈길과 같은 속도로 그 뜻을 척척 해득해내였다. 하나의 글줄을 보고서도 그 문구의 진수를 깨닫군 하였다.》

놀라운 글재주

후기신라의 학자이며 작가였던 최치원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류학을 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시짓기내기를 하지 않겠는가고 말을 걸어왔다.

최치원은 아무 대답도 없이 싱긋 웃어보였다.

《정 소원이면 어디 한번 겨루어봅시다.》라는 말없는 대답이였다.

도전자는 자신이 있다는 태도로 시를 지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매달려있는가

그 시절에는 글방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갖은 방법으로 골려주며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시짓기도 그런 방법의 하나였다. 이런데서 축잡히면 매사에 기를 못펴는지라 상대가 시구를 토하자마자 제꺽 받았다.

산천은 땅에 실려있는데
땅은 어디에 실려있는가

모두가 최치원의 시짓는 재주에 깜짝 놀랐다.

능란한 림기응변

어느해인가 고려의 충선왕이 원나라에 가있을 때 있은 일이였다.

책과 학문을 몹시 좋아한 충선왕은 원나라 학자들과 문인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옛글이며 고금의 력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군 하였다.

어느날 문인들이 시를 지어 충선왕에게 주었는데 왕도 그들에게 답례로 시 한수를 지어주었다.

그런데 왕이 쓴 시에 《닭소리는 흡사 문앞의 버들이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사실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어설픈 시구였다.

아니나다를가 시를 읽어본 그 나라 문인들은 그 문구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글은 옛글의 어느 구절에서 가져다 쓰신것이온지 가르쳐주셨으면 하옵니다.》

왕은 대답이 궁했다. 그 시행은 어느 옛글이나 유명한 이야기에서 따온것이 아니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써갈긴 글귀였던것이였다.

그나마 의미가 잘 통하지 않으니 그 어떤 고사나 경구인줄 알고 묻는 모양이였다.

이때 이 장소에 함께 있던 고려의 관료이며 학자였던 리제현이 왕의 딱한 처지를 인차 눈치챘다. 시급히 사태를 수습해야 했고 그러자면 눈깜짝할 사이에 모든 지혜를 다 발동하여 림기응변할수 있는 명답변을 찾아내야 하였다.

그렇다고 리치에 닿지 않는 생뚱같은 거짓말을 꾸며낼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비상한 사색의 한순간에 리제현은 드디여 그 명답을 찾아냈다.

문인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난 리제현은 겸손하면서도 의젓하게 말꼭지를 뗐다.

《우리 나라에는 이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지붕우에 해가 뜨니
누런 닭이 울음 운다
꼬끼요 길게 뽑는 소리
늘어진 버들가지처럼 길구나

이 시에서는 닭의 울음소리를 버들가지의 가늘고 긴 모습에 비기고있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지으신 시의 구절이 바로 여기서 따온것입니다.》

이 말이면 문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리제현은 다음 통장을 불렀다.

《옛날 당나라시인 한유도 거문고를 노래하면서 〈뜬구름 버들꽂은 뿌리도 꼭지도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거문고소리를 버들꽂에 비긴게 아니겠소.》

리제현의 이 말에 문인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해박한 지식과 사리정연한 론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리제현의 덕분에 결국 충선왕은 창피를 면하고 《시 잘하는 임금》으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이 일화를 기록하고있는 《청비록》의 필자는 이런 시가 실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임금의 궁색함을 풀어주고 가히 나라를 빛내였다고 할만 하다.》고 평하였다.

9살때 지은 《상사곡》

고려 말기의 관료이고 학자였던 정몽주는 어릴 때 벌써 시를 기지있게 잘 지어 그가 살고있던 동네는 물론 린근에까지 소문이 났다.

어느날 아홉살밖에 안된 정몽주가 외가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외가집에서 심부름하는 한 젊은 녀인이 그를 찾아왔다.

녀인은 반갑게 인사를 했으나 어인 일인지 쭈밋쭈밋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

정몽주는 인차 그 녀인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앉으시오. 무슨 긴요한 일이 있어 오신것 같은데 어서 말씀하시오.》

다소 마음이 풀린 녀인은 용기를 내여 어린 정몽주에게 청했다.

《사실은 딱한 청이 하나 있사온데 들어줄수 있겠사온지…》

이미 가정을 가진 녀인이지만 상대가 비록 나이어리다 할지라도 량반가문의 도련님인지라 매우 조심히 입을 열었다.

《그리 미안해하거나 망설일것없이 어서 말씀하시오.》
녀인은 결심이 선듯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편지 한장 써주시오이다.》
《편지요?》
이때 글공부에 한창 재미를 붙이고있던 정몽주는 자기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싶어 녀인의 청에 선뜻 응해나섰다.
《그야 그리 어렵겠소. 그런데 어디다 무슨 사연으로 편지를 쓰려는건가요?》
정몽주의 말에 녀인은 대뜸 얼굴이 붉어졌다.
아마 부끄러움을 몹시 타는 녀인인듯.
《무슨 편지이기에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하시오?》
약간 웃음기어린 어조가 녀인의 얼굴을 더욱 빨갛게 달구어놓았다. 한참이나 옷고름을 손가락에 감아끼고 만지작거리면서 수집음을 타던 녀인은 결심한듯 말꼭지를 뗐다.
《멀리 가있는 저의 서방님께 문안편지를 보내고저…》
《그런 좋은 일을 가지고 왜 그다지도 말하기 힘들어하시오?》
《호호호…》녀인의 소리없는 웃음…
정몽주는 곧 붓과 벼루를 꺼내들고 녀인이 들고온 종이말이를 받아 펼쳐놓았다. 그리고 손에 익은 붓놀림으로 몇자 힘차게 써갈긴 다음 곧 녀인의 손에 쥐여주었다.
《자, 됐소이다.》
순간 녀인은 실망했다. 자기의 애타는 마음을 다 쓰자면 천장, 만장을 써도 모자랄텐데 단 몇글자밖에 안쓰다니…
무척 실망한 기색으로 말없이 서있던 녀인은 내친김에 말은 하고 볼판이라는듯 성큼 앞에 나섰다.
《다문 몇글자라도 더 써주시오이다. 이렇게 짧게야 어떻게…》
녀인의 말뜻을 리해한 정몽주는 다시한번 웃고나서 글쓴 종이말이를 다시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익숙된 솜씨로 붓을 달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꼭 2줄밖에 더 쓴것이 없었다.
(아직 글을 잘 몰라서 그럴가. 아니면 나이어려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럴가?…)

더 청하기도 뭣해난 녀인은 제딴에 이렇게 생각하며 할수없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보내였다. 그런데 몇줄밖에 안되는 그 글의 내용이 기막힌 명문장으로 인정되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질줄이야…

구름은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달은 찼다가도 비지만
안해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나이다

이것은 정몽주가 써준 글의 첫번째 문장이였다.

사실 이 정도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수없이 순박하고 충실한 녀인의 심정을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두번째 더 써준 문장은 더우기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봉한것을 다시 뜯고 한마디만 더 쓰오니
세상에 병 많은들 상사병만 하오리까

정몽주가 9살때 쓴 이 문장은 그후 유명한 시구가 되여 사람들속에 《상사곡》으로 전해졌다.

2) 창작가들의 사랑과 증오

없는것이 있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였던 하이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영국에서 국빈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

그는 려행이 거의 끝나갈무렵인 1794년 어느날 뜻밖의 제의를 받게 되였다.

그것은 영국에 영주해줄것을 바라는 간절한 청이였다.

《대가선생님,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서양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헨델은 젊어서 영국에 넘어와 음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못하실것이 있습니까? 선생님에겐 호화로운 저택과 별장, 후한 보수가 차례지게 되겠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세상에 유명한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 명예도 있고 거기에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싶어하는 수많은 청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가선생님을 흠모하는 녀성들은 얼마나 많다구요. 마음만 먹으신다면 희한한 로맨스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거절하시는겁니까?》

《없는것이 있네.》

《없는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모르시겠소? 나의 조국 오스트리아가 이 섬나라 영국에는 없다 그 말이요.》

이처럼 하이든은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을 끝없이 사랑한 애국자, 음악가였다.

오늘도 오스트리아에서는 하이든의 명곡을 국가로 하고있다.

베토벤은 하나

도이췰란드의 음악가 루드위히 베토벤은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언젠가 한 공작의 집에 《존귀한》 손님들이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 손님들은 당시 윈을 점령하고있던 나뽈레옹의 장교들이였다.

그때 공작의 집에는 베토벤이 와있었다.

장교들은 그가 바로 이름높은 베토벤이라는것을 알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양을 떨었다.

공작은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베토벤더러 한곡 연주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평민음악가로서 애국심이 높았던 베토벤은 침략자들에게 한곡도 연주해주고싶지 않았으므로 공작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공작이 더 강력히 요구하자 베토벤은 격분하여 펄펄 뛰면서 응접실문을 박차고나와 억수로 퍼붓는 폭우속으로 사라졌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베토벤은 공작에게서 받았던 훈장을 박살이 나도록 내동댕이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공작, 당신이 공작으로 된 까닭은 우연한 출신때문이고 내가 베토벤으로 된 까닭은 순전히 나의 노력때문입니다.

공작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것이지만 베토벤만은 하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렇다. 력사는 공정한것이다. 공작은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지만 베토벤은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운것이다.

녀공과 결혼한 재상

자서전적소설《젊은 웨르테르의 번민》의 주인공 웨르테르와 같이 일찌기 사랑의 쓴맛을 체험한 괴테는 독신생활을 해오다가 나이 40살이 거의 되여서야 플피우스 크리스찌아네라는 처녀와 결혼하였다.

크리스찌아네는 괴테가 이딸리아려행에서 돌아와 알게 된 꽃방녀공으로서 이를데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녀자였다.

어느날 괴테는 새들의 지저귐과 미풍에 나무잎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공원을 산책하고있었다.

산뜻한 옷차림을 한 처녀가 정향나무밑 걸상에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있었다.

괴테가 걸상에 앉자 그 처녀는 수집은듯 책을 덮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그 책은 내 책이 아니요?》

괴테는 엉겁결에 그 처녀에게 불쑥 물었다.

《이것은 저의 책인데요.》

처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손에 든 책을 내보였다. 책은 괴

테가 청춘시절에 쓴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이였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괴테는 쑥스러운듯 뒤통수에 손을 갖다댔다.
《책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그 책은 내가 쓴겁니다.
하도 반가와서 그만…》
《어마나, 그러면 선생님이 괴테시나요?》
처녀는 깜짝 놀라 하마트면 책을 떨어뜨릴번 하였다.
괴테는 빙그레 미소를 지을뿐 대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둘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사랑이 맺어질줄 누가 알았으랴.
그러나 신분이나 문벌관계를 엄격히 따져가며 결혼을 하였던 당시로서는 작센—와이마르공국의 재상이며 귀족인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한갖 비천한 녀공에 지나지 않는 처녀와 결혼한다는것이 실로 놀라운 사변으로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주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괴테의 결혼을 반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한 나라의 대신인 귀하가 이름없는 녀공과 결혼한다니 됨직이나 할 말입니까. … 귀하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인것만큼 아무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이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져 먼곳의 친구들까지 찾아와 결혼을 당장 취소할것을 괴테에게 충고도 하고 설복도 해보았다.
워낙 직위와 신분, 명예따위 같은것은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은 괴테에게는 그들의 충고가 모기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어떤 친구들이 크리스찌아네에게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괴테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주제넘은 행동을 그만두라고 욕설까지 할라치면 괴테는 격분을 참을수 없어 이렇게 반박하군 하였다.
《크리스찌아네는 자네들도 모르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있는 녀성일세. …그 녀자는 진실과 진심, 고결성과 순결성 그리고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있는 처녀란 말일세. 우리의 사랑이 참될진대 그가 녀공이건 내가 재상이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렇듯 강인하고 결단성있는 괴테였지만 정식 크리스찌아네와 결혼하지 못하고 망설이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을 둘러싸고 사회적비난과 조소, 험담이 너무나도 가혹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괴테는 결심을 굽힐수 없었다.

한번은 그의 결혼을 만류하려고 무리지어온 친구들과 벗들에게 괴테는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다.

《자네들도 아다싶이 여태껏 나는 무슨 일에서나 자네들의 충고를 단 한번도 귀담아듣지 않은적이란 없었네. 이번만은 자네들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수 없네. 그러니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물론 내가 자네들의 말을 듣는다면 고관대작의 신분을 가진 녀성과 벌써 결혼했을거네. 나는 그걸 바라지 않는단 말일세. 명예와 인간을 바꿀수 없지 않나.》

백이면 백이 다 괴테의 결혼에 머리를 내저었으나 그의 편을 들어 결혼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몇달전 이곳 와이마르에서 괴테와의 첫 상봉을 통하여 우정을 더욱 두터이한 쉴레르였다.

재상 괴테와 꽃방처녀 크리스찌아네의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맺어졌다.

《진정한 사랑이란 심장속에 있습니다》

장편소설 《도박군》을 완성한 도스또옙스끼는 장편소설 《죄와 벌》의 마지막부분의 속기를 위해 11월 3일 저녁에 처음으로 스니뜨끼나의 집을 찾아갔다.

령리하고 리지적인 그 녀자를 마음에 두었던 도스또옙스끼는 7월 8일에 청혼하였다.

이들사이의 사랑은 참말 우습게 이루어졌다.

이날 스니뜨끼나는 여느때처럼 도스또옙스끼를 찾아왔다. 그런데 작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다.

스니뜨끼나는 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새로운 장편소설을 구상하고있는데 마지막마무리가 잘되지 않아 여간만 애를 먹고있지 않소.》라고 도스또엡스끼가 말하였다.

이 소설에는 한 작가와 젊은 녀자가 등장하는데 젊은 녀성의 심리를 잘 그릴수 없다는것이였다.

도스또엡스끼는 새 장편소설의 줄거리를 스니뜨끼나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은 신통히도 도스또엡스끼의 생활경력과 같았다. 소설에 나오는 작가는 도스또엡스끼자신이였고 젊은 녀성은 스니뜨끼나였던것이다.

도스또엡스끼가 성격과 나이의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어떻게 결합될수 있겠는가고 묻자 스니뜨끼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나이와 재산, 외모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장속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1869년 2월 15일 뜨로이쯔끼사원에서 그들은 혼례식을 하였다. 그때 도스또엡스끼의 나이는 48살이였고 스니뜨끼나의 나이는 23살이였다.

스니뜨끼나는 남편의 창작과 출판사업을 적극 도왔고 그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그러한 안해이기에 도스또엡스끼는 그 녀자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은 나의 미래, 나의 전부요. 희망도 신앙도 행복도 그리고 복리도 모두 당신에게 달려있소.》

도스또엡스끼는 마지막장편소설《까라마조브형제》를 안해에게 바치였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도스또엡스까야에게 이 책을 드린다.》

도스또엡스끼는 1869년 4월 4일 안해를 데리고 두번째로 외국려행을 떠났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도박놀음에서 진 빚독촉의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도박을 즐겼던 그는 려행길에서도 도박에 빠져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지만 그는 4년이라는 려행기간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고 매일 로씨야잡지를 읽었고 고국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에 관심을 두었으며 창작적구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기간에 장편소설《백지》와 《악령》, 중편소설《영원한 남편》의 초고를 썼다가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두 불태워버리였다. 그것은 그가 귀국할 때 엄격히 조사검열할데 대한 지령이 오데싸헌병초소에 내려졌다는 무기명의 편지를 받았기때문이였다.

려행기간에 그는 게스쩬과 뚜르게네브와 상봉하였으며 《벨린스끼와의 나의 상봉》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글들을 집필하였다.

귀국후 도스또옙스끼는 장편소설《미성년》을 썼으며 그후 오늘까지도 세계문단에서 《난해한 소설》로 알려진 유명한 장편소설《까라마조브형제》를 창작완성하였다. 1880년 5월 28일 모스크바작가들의 주최로 도스또옙스끼환영연이 있었다. 이 축하연에 참가한데 뒤이어 그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뿌슈낀동상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해가 갈수록 무리한 창작과 어려운 물질생활이 그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었으며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안해의 극진한 간호가 있었지만 전간병이 더욱 악화된데다가 페병까지 겹쳐 병상에서 신음하던 도스또옙스끼는 1881년 2월 9일 각혈을 하고 쓰러진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레브 똘스또이가 《심장의 인간》이라고 한 로씨야의 사실주의작가 도스또옙스끼는 60살을 일기로 뻬쩨르부르그에서 곡절과 불행이 겹쌓였던 인생행로를 끝마치였다.

요석궁의 깊은 밤

이 일화는 신라의 중이며 학자였던 원효가 요석공주에게 장가들때 있은 이야기이다.

원효가 노래를 지어서 온 도읍지의 거리바닥을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부르다나니 이름높은 원효대사가 이상한 구절

의 소리를 하면서 지낸다는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원효가 부르면서 다닌다는 그 노래를 적어오너라.》 이렇게 령을 내린 왕이 적어온 노래구절을 받아본 다음 한참동안 성이 났는지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도저히 알길 없는 무표정한 안색으로 앉아있더니 이윽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온전각(왕이 사는 큰 집)이 떠들썩하게 큰소리로 웃었다.
간이 콩알만 해졌던 신하들도 영문을 모르면서 덩달아웃었다.
왕은 여전히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못하면서 입을 다물고 전각 란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금 신하들에게도 말 못할 생각을 하는중이였다. (원효가 정말 엉뚱한 사람이거든. 이 임금보고 공주의 중매를 서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이런 우스운 노래를 지어부른 모양이야. 나라의 기둥감을 깎을만한 도끼가 자루빠진거라면 과부가 된 공주를 념두에 둔것이고 아무리 공주라도 과부야 과부이고 숫처녀는 아닌게 사실이지. 사람들은 과부공주가 수절해야 마땅한것으로 여기는데 원효는 그 공주에게 장가들어 쓸모없이 녹쓸고있는 도끼에 자루를 맞춰서 나라를 받드는 후대를 낳겠다니 그걸 어떻게 나무랄수 있겠나. 그런데 어쩐다? 이번통에 공주를 시집보내주고싶은데 임금이 나서서 중매설수도 없는게고 그렇다고 모르는척 하면 신하들이 임금은 과부가 된 공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게 아닌가. 원효가 이 임금의 목대를 바싹 조이는군…)
한참만에 왕은 공주가 살고있는 요석궁에서 일보는 믿음성있는 관리 하나를 불렀다.
《네가 원효대사를 아느냐?》
《예.》
《그러면 이제 곧 나가서 대사를 찾아 요석궁에 모셔들이도록 하여라.》
관리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으나 왕의 령인지라 덮어놓고 《어명을 시행하겠나이다.》하고 답변하고 나왔다.
그는 왕궁문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거리를 모조리 훑어내려가다가 문천내물을 건너서야 원효를 만났다.

원효는 여기서도 미친 사람처럼 목청을 돋구어 《누가 나에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요석궁관리가 원효앞에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왕명을 전했다. 능청스러운 원효는 짐짓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무슨 까닭으로 부르시던가고 물었다.

원효의 속심을 알리없는 관리는 사실그대로 《그 까닭은 알수 없으나 대사를 공주궁으로 모시라는 왕명이오니 어서 가십시다.》라고 하였다.

왕의 뜻을 대뜸 알아차린 원효는 또 한가지 엉큼한 수를 생각해냈다.

그는 공연히 송구한척 하면서 문천나무다리를 건느다가 일부러 시내물에 첨벙 빠져서 옷을 몽땅 적시고말았다.

궁전관리가 물에 빠진 원효를 안내해서 들어온것을 안 공주가 왕명까지 전해듣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고 그다음은 어쨌으면 좋을지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의 가슴은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듯 하였고 그의 얼굴은 누가 볼가봐 두려워서 공연히 홍당무우처럼 새빨개졌다. 그렇더라도 물참봉이 된 사람을 그냥 서있으라고 할수 없어 건넌방에 들게 하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입고있던 젖은 옷을 깨끗이 말려서 잘 다려주게 하였다. 그러느라니 어느덧 하루해가 다졌다.

그사이에 공주의 마음도 차츰 진정됐다가 심부름하는 시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호방하고 대담하고 유식하고 인정있는 원효의 인품에 차츰차츰 끌려들게 되였다.

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여 밤이 깊어지자 원효를 자기 방으로 안내해오게 하였다.

《변 명》

한스까야부인이 뜨거운 애정을 담아 프랑스의 소설가인 발자끄에게 쓴 편지가 남편에게 발견되였다. 안해의 배반을 당한듯한 분

기를 참을수 없어 남편인 늙은 백작은 그 편지를 가지고 발자끄를 찾아왔다.

《여보시오. 발자끄씨, 당신은 나의 안해와 무슨 짝자꿍이가 있었기에 그녀이 당신한테 이런 편지를 쓴단 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있었다.

《일류문장가로 일컫는 당신이 유부녀와 도덕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가지는게 창피스럽지도 않소? 여론이 무섭지도 않구? 난 당신을 세상에 고발할테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발자끄가 태연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말이 옳소. 하지만 당신은 부인을 뜨겁게 사랑하고있소? 그가 그런 편지를 쓴데는 두가지 까닭이 있소. 하나는 뜨거운 사랑이 그리워서일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명성의 빛나는 날개에 실리워 날아보자는 허영심일게요.

부인에게 뜨거운 애정을 퍼부어주시오. 그리고 부인에게 전해주오.

이 발자끄는 허영심에 들뜬 녀자를 제일 증오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당신의 부인은 다시는 나한테 그런 편지를 쓸념을 안할게요. 예로부터 이르기를 백성은 한 임금을, 녀자는 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 있소. 남편이 있는 부인이 남편을 배반하구 그런 편지를 써서 여론을 환기시키면 이 발자끄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다구 전해주시오.》

발자끄는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였다.

시를 사랑하는 짝맞는 《원앙새》

소년 최치원은 숙성하였다.

최치원은 후기신라의 학자이며 작가였다.

나이는 방금 열살을 넘겼지만 딸가진 부모가 보면 누구나 탐낼만큼 총각꼴이 잡혔다.

몸집만 그런것이 아니라 마음도 인생의 봄시절에 대해 예민하였다.

그가 줄곧 시골집에 박혀 글만 읽다가 한번은 도읍지의 성안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때는 봄이라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 거리와 벌에도 꽃들이 만발하였다.

최치원이 봄흥취에 겨워 명시들을 흥얼거리면서 어느 집 담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높지 않은 담너머로 떨기떨기 꽃송이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치원이 저도모르게 울긋불긋 피여있는 그 집후원의 꽃들에 끌려 가까이 보이는 일각쪽문(대문짝의 한편에 만든 작은 문)을 밀었더니 어떻게 된셈인지 스스로 문이 열려 그안으로 들어갔다.

후원의 꽃들에 넋이 끌려 구경을 하고있는데 안채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는 아차하고 생각하면서 꽃포기사이에 웅크리고앉아 몸을 가리웠다.

이 집은 라씨성을 가진 승상의 집이였는데 그에게는 어여쁜 딸이 있었다.

그 딸이 꽃을 사랑하여 지금도 후원으로 나온것이였다. 최치원이 꽃잎사이로 바라보니 꽃같은 처녀였다. 최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였다.

에라 될대로 되라 하고 숨어있는데 처녀는 그런줄도 모르고 화원의 봄기운에 취해 이리저리 거닐면서 랑랑한 낮은 음성으로 시한수를 읊었다.

꽃들은 피여 웃고
나비들은 춤을 추네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최치원은 자기가 어디에 웅크리고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 처녀가 읊은 시구의 뒤를 이었다.

꽃과 나비 한쌍인데
나 어찌 홀로인가

처녀가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꽃포기사이를 살펴보았다.

최치원은 할수없이 그자리에서 일어났다.

처녀의 눈앞에 신선같은 소년의 름름한 모습이 나타났다. 귀에서는 방금전에 들려오던 그 열정적인 시읊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처녀는 두손으로 달아오른 얼굴을 가리우더니 황급히 돌아서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최치원은 우두커니 그자리에 서있다가 슬그머니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시를 사랑하는 두 젊은이는 《원앙새》(암수의 정이 특별히 뜨거운 새)부부가 되였다. 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여 이들부부는 정이 점점 더 깊어졌다.

최치원이 외국류학을 떠날 때였다.

안해는 선창에 나와 배전에 오르는 남편에게 시 한수를 읊어드렸다.

백조는 쌍쌍이 바다우를 떠도는데
이 몸은 외로이 돛배를 바래운다
저기 저 수평선 저 멀리로
사랑하는 님 떠나보내니
이제 집으로 돌아간들
반가울것 없어라
오랜 세월 시름에 잠길 이 몸
밤이 온들 어찌 잠들수 있으리오

천만마디 사설보다 더 간절한 심정이 실려있는 안해의 시를 듣고 최치원은 정이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화답시를 읊었다.

밤마다 슬퍼하고 괴로와마오
비취같은 그 눈섭 꽃같은 얼굴
어지로워질가 두렵노라
이 몸이 공명을 버릴지언정
그대와 함께 부귀를 누리려니
이 아니 가정의 복일소냐

세월이 흘러흘러 20년가까이 최치원과 그 안해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었어도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이날 주고받은 시를 외우며 제 할 일을 성실히 하였다.

최치원이 수만리 타향에서 조국을 그리워한 밑바탕에는 이와 같이 시로써 인연을 맺고 사랑을 가꾸어온 《원앙새》부부의 사랑도 놓여있었다.

3) 창작의 비결

짐승들에게 말을 시켜야

안데르쎈은 단마르크의 이름난 동화작가이다.

하루는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열성독자가 안데르쎈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쓴 소설에는 왜 짐승들만 나오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말이요. 짐승들에게 말을 시켜야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나한테 와서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없기때문이지요!》

샘물한테 물어보오

프랑스의 이름난 작가 듀마(아버지)의 작품창작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빨랐다. 그는 62살까지 살았다. 말년에 그는 자기가 일

생동안 도합 1 200편의 작품을 집필하였다고 말하였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하루종일 글을 고되게 쓰고 어떻게 다음날에도 계속 맑은 정신으로 일할수 있습니까?》

그러자 듀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나는 고되게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많은 글을 빨리 써낼수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샘물한테 가서 어떻게 쉬임없이 흘러나올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창작과 자료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환상소설가 베른은 일생동안 많은 작품을 써냈다.

소설만도 104편이나 된다.

한번은 누군가가 베른이 창작회사를 가지고있는데 회사에 많은 작가와 과학자들이 있으며 베른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점유할뿐이라는 말을 내돌린적이 있었다.

이 소문을 듣고 한 기자가 특별히 베른을 취재하러 왔다.

베른은 기자가 찾아온 사연을 다 듣고나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자기의 창작실로 안내하고는 여러줄로 된 궤짝들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우리 회사의 전체 자료들은 다 이 궤짝안에 있습니다. 어서 참관하십시오!》

궤짝안에는 각종 과학기술자료들과 카드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성공작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다문박식의 저장고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4) 창작가들의 도덕과 인품

인사불성에 대한 대답

《나는 샤또브리앙이 되련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련다.》

어린시절 유고는 이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문학을 지향하였다.

그처럼 우상해오던 샤또브리앙(프랑스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을 처음으로 만난것은 유고가 소년티를 갓 벗어난 때였다.

《자네가 15살에 한림원상을 받았고 17살에 〈문화아까데미야〉콩클 1등상을 받은 유고인가.》 샤또브리앙이 유고를 치떠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빅또르 유고입니다.》

《좀 기다리라구. 내 목욕을 하고 나올테니까.》

샤또브리앙은 목욕실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그토록 내가 제왕처럼 존경해오던 샤또브리앙이란 말인가.)

그의 인사불성에 유고는 여간만 불쾌하지 않았다.

유고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종이 한장을 찢어내여서는 몇자 글을 써서 책상우에 놓고 훌쩍 밖으로 나가버렸다.

《존경하여마지않는 샤또브리앙선생, 외람된 행동입니다만 머리 깎으려 리발소로 갑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에서 사람의 도덕적행동을 볼수 있으니 명예가 귀중할수록 수양을 쌓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더우기 상대가 아래사람일수록 높이 대하여야 한다. 이것이 유고의 일화에서 찾게 되는 또하나의 교훈인것이다.

《공당문답》

세종왕시기 우의정으로 있던 맹사성이 온양땅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다.

룡인이라는 곳에 이르러 갑자기 큰비를 만난 맹사성은 할수없이 하인과 함께 어느 주막에 들어가 하루밤을 묵게 되였다.

맹사성이 저녁상을 물리고 방 한구석에 앉아있는데 먼저 들어와 있던 젊은 선비 한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여보 로인장, 어디서 오시오.》

시골의 젊은 선비는 행색이 수수한 맹사성을 보고 보통행인으로 짐작한 모양이였다.

《온양에서 오는 길이요.》

두사람은 이렇게 한담을 하다가 잠시 침묵을 지키였다. 갑갑증을 견딜수 없었던지 젊은 선비가 《이야기나 좀 해보는게 어떻겠소?》

이렇게 말꼭지를 뗀 젊은 선비는 말을 할 때마다 그끝에 《공》자와 《당》자를 반드시 붙여가면서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을것이라고 덧붙이였다. 나이로 보나 직위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시골 젊은 선비의 우습강스러운 제의였으나 맹사성은 빙그레 웃으며 쾌히 승낙하고 먼저 말을 시작하였다.

《젊은이는 어디 가는공?》

《벼슬 구하려 서울에 간당!》

《무삼 벼슬인공?》

《록사벼슬 응시하러 간당!》

《그 벼슬 내가 주겠공.》

《별소리 다한당!》

《믿어보라공.》

《어처구니없당!》

두사람은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저들도 우스운지 와하 큰소리로 웃어댔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록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시골의 젊은 선비는 사뭇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앉았다.

이때 정청(봉건사회에서 6조에 속하는 리조의 전관이 정사를 보는 곳)안 높은 단우에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던 최고시관인 정승 한 사람이 젊은 선비를 내려다보더니 느닷없이 말을 붙이였다.

《그동안 어떠한공?》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젊은 선비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정승인즉 며칠전 주막집에서 만났던 그 늙은이였다.

젊은 선비의 등골에서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러내리였다. 나라조정의 정승을 보고 버릇없이 놀아댔으니 명색없는 시골선비로서는 눈앞이 아뜩할 지경이였다.

젊은 선비는 속으로 그날밤의 일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엎지른 물이라 맹사성이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할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죽어지당, 죽어지당.》

젊은 선비가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맹사성은 빙그레 웃으며 그냥 말을 건네였다.

《그게 무삼 죄가 되겠는공?》

《죽을 죄를 지었습당!》

《록사벼슬 자신있는공?》

《천부당 만부당.》

정청에 앉아있던 시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한 눈길로 맹사성과 젊은 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맹사성은 그제서야 크게 웃으며 수일전에 주막집에서 젊은 선비와 롱담하던 이야기를 시관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맹사성은 주막집에서 우연히 만난 시골의 젊은 선비와도 친구처럼 어울려 사귀는 소탈한 품성의 작가였고 재상이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날 시험장에서 있은 그들의 대화를 《공당문답》이라고 부르며 즐겨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가장 못생긴 작가

소설가 씽클래어 레비스가 노벨상을 수여받은 날 그의 작품 발행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드디여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작가가 노벨상을 수여받았소.》

당시 레비스는 빠리에 가있었는데 어느 한 기자가 그에게 이 어처구니없고 생동한 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레비스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나의 책 발행인들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들이요.》

30여년세월을 랑비

35살난 마크 트웨인은 1870년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녀성과 결혼하였다. 결혼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유모아적으로 이렇게 썼다.

《만일 결혼후의 모든 생활이 이처럼 행복하다면 난 30년생활을 랑비한셈이요. 가령 모든것을 처음부터 생활할수 있다면 난 잡담이나 장난질을 하느라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것이 아니라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애때에 결혼할것이요.》

결혼의 느낌

발자끄는 젊었을 때 줄곧 결혼하지 않았다. 33살이 되던 해에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온 《생소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씌여진 편지 한통을 받았다. 후에 그는 그 편지가 백작부인 엘레나 한스까야가 보낸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사랑은 점차 깊어졌으며 18년동안이나 지속되였다. 발자끄가 세상을 떠나기 석달전에야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누군가가 발자끄에게 왜 그처럼 늦게야 결심을 내리였는가고 묻자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가끔 가다 한번 뭔가 지혜있는 말을 하기보다는 온종일 지력과 기지를 발휘하기가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단순한 리유로 하여 남편으로 되기보다는 애인으로 되기가 한결 더 헐한 법이다.》

최고의 남편감

아가사 크리스티는 유명한 녀류추리소설가이다.

그는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을 쓴 작가로 세계기록집에 올랐다. 그가 쓴 78편의 추리소설은 44개 나라말로 번역출판되였는데 지금까지 대략 20억부나 된다고 한다. 그는 늦게야 결혼하였다.

어느날 한 손님이 그에게 결혼소감을 물었다.

《고고학자와 결혼한 선생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고고학자는 녀성에게 최고의 남편감이지요. 녀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남편이 더 흥미를 가질테니까요.》

얼굴이 붉어질수밖에

한 로파가 어느 소학교 학생이 쓴 작문책을 가지고 발자끄를 찾아왔다.

《존경하는 발자끄선생, 이 작문들을 선생에게 보여드리고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선생과 같은 작가가 될 재능이 있는지…》

발자끄는 송구스러워하는 로파를 치떠보고는 작문책을 읽어보았다.

《부인님은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애는 작가가 될 재능이 없습니다. 무재간둥이입니다.》

《그렇습니까.》

녀인은 저으기 놀라는것 같았다.

《참, 별일도 다 있군요. 세계가 다 아는 작가가 되시더니 자신의 필적도 몰라보시는군요. 이 작품들은 선생이 소학교 다닐 때 쓴 거랍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소학교시절의… 선생님께서 여직껏!》

발자끄는 소학교시절의 자기의 작문책을 선생이 여태 보관해두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확 붉어졌다.

《나에겐 자신을 너무도 과신하는 버릇이 있어.》

그는 깊이 자책하였다.

아들을 손님처럼 맞이한 황희

황희는 리조 세종왕시기 관료이며 작가였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아들이 황수신이다. 황수신은 말년에 벼슬의 최고관직인 령의정에 이르러 아버지 황희와 함께 부자가 다 령의정을 한 집안으로 소문을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몹시 책망을 들은 일이 있었다.

황수신이 젊었을 때 한 기생을 몹시 사랑하였다.

그때 세월에 한다하는 재상네 집 젊은이치고 기생집출입이 잦은 것쯤은 례상사였으나 황희는 아들의 방탕한 행실을 두고 매우 근심하였다.

한번은 아들을 불러다가 꿇어앉혀놓고 준절하게 책망하였다. 1년내내 성내거나 근심하는 빛없이 언제나 웃는 얼굴인 황희가 음성은 높지 않아도 책망을 해놓았으니 온 집안에 큰일이 난것 같았다.

당사자인 수신이도 아버지앞에서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맹세는 이렇게 했지만 녀자를 두고 하는 이런 맹세는 쉽게 실천되기 어려웠다.

살뜰한 애정을 단칼에 베여버리기가 쉽게 되지 않아 황수신은 아버지에게 죄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기생집에 다니였다.

하루는 황수신이 관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생을 만나보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대문안에 들어서는데 황희가 복장을 갖추고 갓까지 쓰고 기다렸다가 얼른 마당으로 나오더니 아들을 정중히 맞이하는것이였다.

황희의 행동은 자기 아들을 대하는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와 같았다.

황수신은 무슨 영문인지 도저히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그는 땅바닥에 풀썩 꿇어앉아 두손바닥을 땅에 붙이고 빌었다.

《아버님,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이 아들이 노여움을 끼쳐드렸다면 차라리 곤장을 치십시오.》

《내가 너를 아들로 알고 충고했더니 너는 듣지 않았구나. 이는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손님을 맞는 례의로써 너를 대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제야 황수신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후로 황수신은 기생집에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미인의 청혼편지를 거절한 리유

영국의 극작가 버너드 쇼의 명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던 1880년대 중엽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간밤에도 서너시간 눈을 붙이고 작품을 창작한 그는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마주앉았다.

《깍깍깍…》

열려진 창문으로 까치의 울음소리가 아침의 맑은 공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런던과 같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들을수 없던 까치의 울음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쇼는 하도 신기하여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의 담장너머 키높이 자란 나무우에 앉은 까치 한마리가 꽁

지를 달싹거리며 아침의 그윽한 정서를 자아내며 여전히 울어대고 있었다.

《어디서 난데없이 날아와 저렇게 울가? 오늘 무슨 희소식이라도 있으려나.》

쇼는 혼자말로 중얼대며 창문을 닫고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후 우편배달부가 두터운 편지 한통을 가져왔다.

《버너드선생, 이 편지는 보통편지 같지 않수다. 무슨 희소식을 담은 편지같수다.》

그는 웃으며 편지를 주고는 가버렸다.

편지를 받아쥐고 정말 보통편지가 아님을 육감적으로 느낀 쇼는 곧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씌여져있었다.

존경하여마지않는 버너드 쇼씨!

나는 당신을 끝없이 사모하는 빠리극장 무용배우입니다.

버너드씨가 지니고있는 영예가 저로 하여금 깊은 애정을 담아 고명하신 당신에게 이 글을 올리게 합니다.

저는 당신의 비상한 문학적두뇌에 감복한 나머지 아연해지군 한때가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못생긴 당신이 그처럼 뛰여난 두뇌를 가지고계신다는데 대해서는 참말로 신비스럽게 여겨집니다. 당신의 두뇌가 그처럼 저의 마음을 휘잡고 저로 하여금 당신을 련모하게 하였는가봐요. 빠리바닥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밉지 않은 용모와 춤으로 하여 저는 빠리의 뭇사내들의 끊임없는 추격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춤에서는 막히는데가 없지만 머리가 좋지 못한 석두랍니다. 당신의 명석한 그 두뇌와 저의 용모, 당신의 못생긴 얼굴과 저의 둔한 머리, 우리 량자는 서로 우단점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결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를테면 천상배필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할런지요.

저와 결혼하면 우리 둘사이에는 당신의 두뇌와 저의 용모를 타고난 자식이 생길거예요. 그는 정말 리상적으로 사교계의 별로 빠리와 런던, 아니 전세계에 빛을 뿌릴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믿어의심치 않아 당신에게 청혼을 하니 곧 회답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쟝느

1885년 5월 21일 빠리

《흥, 별 싱겁고 건방진 년을 다 보겠군. 내 얼굴이 어떻다구? 편지를 쓴 몰골을 보니 분명 머저리군. 흥.》

쓴웃음을 지으며 방을 오락가락하던 그는 거울속에 비낀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좀 때이르게 벗어진감은 있으나 예지로운 이마에 광대뼈가 좀 세게 나오고 눈이 특별히 작을뿐 그닥 못나지는 않았는데…

쇼는 히물히물 웃으며 돌아서서 원고지 한장을 쥐더니 장난질하듯 답장을 썼다.

쟝느양, 못난 나에게 보여준 열화같은 청혼편지를 받아보고 나는 감동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씁니다.

너무 행복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비상한 머리와 당신의 둔하고 천한 두뇌, 당신의 미모와 나의 못난 얼굴이 서로 상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량자간의 이러한 우단점이 당신의 말처럼 우리의 결합을 방해하는 아무런 조건과 구실로 되지 못할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만 없다면 저는 당신의 청혼에 완전히 찬성하였을것입니다. 그것은 결혼후 당신의 생각대로 자식이 태여난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리상적이겠지만 혹 반대로 나처럼 못난 얼굴에 당신처럼 둔하고 천한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여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당신의 리상을 담보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영국땅에까지 청혼편지를 쓰는 수고를 그만두고 그 빠리사교계에서 미남자중의 한사람을 골라잡는것이 빠르고 안전한 길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쟝느양,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쇼

쇼의 짧은 편지는 부르죠아사회가 만들어놓은 기형적인 허영심에 대한 심각한 풍자와 조소였다.

5) 도발적인 질문과 대답

마야꼽스끼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질문: 《난 당신의 유모아를 알아듣지 못하겠소.》

대답: 《당신은 기린이군요. 기린은 월요일에 발이 젖은것을 토요일에 감촉한다던데…》

땅딸보의 질문: 《마야꼽스끼씨, 당신한테 상기시킬것이 있소. 나뽈레옹이 말하기를 위대한것과 가소로운것은 한발자국차이밖에 없다고 하였지요.》

마야꼽스끼는 자신과 그 땅딸보를 번갈아 손가락질하며 대답하였다.

《물론이지요. 위대한것과 가소로운것사이에는 불과 한발자국차이지요!》

쪽지질문: 《마야꼽스끼씨, 당신은 왜 제 자랑을 좋아합니까?》

대답: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권고하기를 〈자네는 자신의 우점에 대해서만 말하게. 결함은 친구들이 말하도록 하라구.〉라고 하였지요.》

질문: 《당신은 때가 앉은 낡은 전통과 관습을 씻어버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럼 매일 세면하는 당신도 결국은 어지러운 사람이라는 결론에 떨어지지요.》

대답: 《당신은 세면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럼, 당신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마야꼽스끼씨, 당신은 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대답: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그럼 발가락에 끼라는 겁니까?》
질문: 《마야끕스끼씨, 당신은 오늘저녁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답: 《그건 당신이 흥미를 가질 일이 아니겠는데요. 당신은 돈을 한푼도 내지 않을것이고 나는 돈을 당신과 나누어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

버너드 쇼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질문: 《선생님은 꽃을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였군요. 집에 꽃이 없는걸 보니…》
대답: 《나는 꽃뿐아니라 아이들도 무척 사랑하지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방안에 놓아둘수야 없지요.》
질문: 《존경하는 쇼선생, 불교와 그리스도교중에서 어느쪽이 더 좋은가요?》
대답: 《당신은 이 두개의 젖을 빨아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의문도 인차 얼음녹듯이 풀릴수 있을거요.》
버너드 쇼가 꾸바에 갔다가 아바나거리에서 령리하게 생긴 꾸바소녀와 사귀였다.
그는 헤여질 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말하거라.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너드 쇼와 놀았다고.》
그러자 소녀도 불쾌하여 말하였다.
《당신도 집에 돌아가면 오늘 꾸바소녀와 놀았다고 하세요.》

모빠쌍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질문: 《당신의 소설은 별로 대단한것이 못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수염만은 멋들어져요. 당신은 어떻게 되여 수염을 길게 길렀는가요?》

대답: 《적어도 문학에 전혀 무식한 사람들에게 나를 칭찬할 근거를 주어야 하겠기에…》

안데르쎈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질문: 《당신머리우의 물건은 도대체 뭐요? 모자라고 할수 있소?》

대답: 《당신모자 아래의것은 뭐요? 머리라고 할수 있소?》

하이네에게 한 질문과 그의 대답

어느날 밤 길모퉁이에서 한 려행가가 유태인인 하이네를 야유하였다.

《내가 려행하다가 자그마한 섬을 발견하였는데 그 섬에는 아직까지 유태인과 하늘소가 없더구만!》

하이네: 《그것 참 안됐구려. 보건데 나하고 당신이 그 섬에 가 살았으면 그 결함이 메꾸어지겠소그려. 어떻습니까?》

괴테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명성높은 시인인 대문호 괴테에게 질투와 앙심을 품고있던자가 외통길에서 도발을 걸어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보〉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성미요.》

괴테: 《나는 정 반대입니다. 나는 머리에 털이 돋은이래 비켜서기는커녕 아예 되돌아서는 성미이지요.》

크릴로브에게 제기한 질문과 그의 대답

검은 옷을 입기 좋아하는 크릴로브(로씨야우화작가)가 공원에서 산보하는 두 귀공자와 맞다들게 되였다. 그중 한 젊은이가 그를 보고 우정 큰소리로 《여보게,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군!》라고

말했다.

크릴로브는 그 말에 곧 대꾸하였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좋아라고 주절대는군!》

6) 창작가들의 유모아와 해학

태양이야말로 행운아

버너드 쇼가 중국 상해에 갔다.

며칠째 구질구질 비가 내리다가 그가 도착한 날 아침 날이 개이고 해가 밝게 비쳤다.

누군가가 버너드 쇼에게 롱조로 말하였다.

《버너드 쇼씨, 당신은 참 행운아군요. 상해에서 태양을 보았으니까. …》

버너드 쇼가 익살조로 대답하였다.

《아니, 태양이야말로 행운아지요! 상해에서 버너드 쇼를 보았으니까요. …》

로씨니와 동상

로씨니가 힘들게 쓴 가극 《세미라미데》가 이딸리아에서 랭랭한 반응을 받자 그는 화가 나서 다시는 이딸리아사람들을 위해서 작곡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후 그는 1823년 프랑스의 빠리교외에 영주하게 되였다. 거기에는 로씨니숭배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2만Fr이라는 많은 돈을 모아 그의 동상을 세워주려고 하였다. 그 말을 듣자 로씨니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럴것없이 그 2만Fr을 현금으로 나한테 주구려. 그러면 그대신에 내가 동상대우에 올라가 서있을테니.》

《당장 다시 초대해주시오》

로씨니는 어느날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프랑스의 귀부인한테서 점심식사초대를 받았다. 평소부터 대식가로서 호화로운 식사에 배가 터지도록 먹는것에 익숙된 로씨니였다. 그런데 그 집 점심식사는 고급한 례의에 맞추어서인지 음식들이 모두 조금씩만 식탁에 올라있어 로씨니의 큰 배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하는수없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름다운 귀부인은 상냥하게 이야기하였다.

《대가선생님, 인츰 다시 모시겠으니 식사하려 또 찾아와주세요. 네?》

로씨니는 쌀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댁에서 괜찮으시다면… 그런데 부인, 지금 당장 초대해줄수는 없을가요?》

유혹혐의와 자기 변호

프랑스 부르죠아혁명때였다. 유명한 웅변가 마라보가 한창 젊은 나이에 모니후작의 부인을 유혹한 죄로 기소되여 재판정에 나서게 되였다. 그때 그는 자신을 변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법관제씨들, 나를 유혹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항변으로 탁상우에 나의 초상을 놓아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발하고도 재치있는 그의 이 말은 법관들을 리해시켰으며 결국 그의 무죄가 선포되였다.

마라보는 당시 못생기기로 이름난 세사람중의 하나였다.

내가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영국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거리에서 뜻밖에도 15년만에 옛 애인

을 만났다. 그런데 그 녀인은 못본체 하고 길을 비켜가려고 하였다.

와일드는 녀인앞에 나서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하느님맙시사! 부인, 용서해주십시오. 부인을 인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많이 달라졌기때문인가 봅니다.》

서로 틀리게 말하였을뿐

프랑스의 대문호 프레데리끄는 어느날 동년배의 한 작가를 한바탕 찬양하였다.

며칠후 친구가 프레데리끄를 찾아와서 어지간히 불만조로 말하였다.

《자네가 그를 그처럼 찬양하는것을 보고 나는 유감을 금할수 없네. 그 작가는 뒤에서 늘 자넬 혹평하고있단 말일세! 이거야 어디 참을수가 있나.》

프레데리끄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뭘 그다지 그러나. 그와 나는 서로 틀리게 말했을뿐인데.》

세 수자를 합쳐보라

반백이 넘은 멋쟁이녀인이 버너드 쇼를 만났다.

《존경하는 버너드 쇼선생, 선생보기에 제 나이가 얼마로 보여요?》

《부인, 부인의 하얀 이발을 보니 열여덟살 같고 곱실곱실한 머리칼을 보니 열아홉살을 넘긴것 같지 않군요. 그리고 부인의 허리와 연지바른 붉은 얼굴을 보니 기껏해야 마흔이 될것 같습니다.》

버너드 쇼가 정색하여 말하였다.

귀부인은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을 꺼내가지고 이리저리 비쳐보다가 이어 물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몇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방금 말한 세 수자를 합쳐보십시오.》

리발사와 면도칼

하이든의 현악4중주 61번은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로씨니가 쓴 《쎄빌랴의 리발사》중에 현악4중주의 일부 선률을 옮겨놓은 부분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친구가 그것을 비난하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여, 〈쎄빌랴의 리발사〉중의 딴 따 따 따… 그 선률말이야. 하이든의 현악4중주 〈면도칼〉에서 슬쩍 갖다쓴것이지? 맞지?》

《맞았어! 갖다썼다. 그래, 리발사가 면도칼을 좀 썼기로서니 뭐 이상할게 있나?》

한가지조건

《버너드 쇼선생,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선생의 이름을 우리 공장의 구두상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생의 명성은 더 알려질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구두공장주의 속심을 꿰뚫어본 쇼는 정색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나의 이름을 빛내여주시려는 당신의 기발한 착상에 몹시 감동되여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헌데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구두상표로 파는 대가로 런던 네거리 한복판에 나의 금상을 세워줄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동의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의 근원

어느 한 뚱뚱보자본가가 키가 크고 비교적 몸이 여윈 버너드 쇼를 떠보느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당신을 보면 마치도 지금 영국사람들이 모두 기아에 허덕이는 것 같구만요.》

버너드 쇼는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즉석에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영국사람들의 기아의 근원을 제꺽 알수 있구만요.》라고 야유하였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속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 뚱뚱보자본가는 눈 흰자위까지 뻘개져가지고 황황히 뺑소니치고말았다.

비만증을 고치는 방법

어느 한 연회에서 버너드 쇼는 백만장자의 부인과 나란히 앉게 되였다.

《버너드 쇼씨, 당신은 비만증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있습니까?》

부인은 비대한 몸집을 제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버너드 쇼는 수염을 내리쓸면서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한가지 방법을 알고있기는 한데 당신에게 어떻게 번역해줘야 할지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로동〉이라는 단어가 당신한테는 외국어처럼 들릴테니까요.》

《강아지와 미리 의논했을걸 그럽니다》

어느날 버너드 쇼는 대부르죠아가정출신의 한 처녀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버너드 쇼씨,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여마지않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예요. 당신에 대한 나의 열렬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당신의 이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귀여운 강아지에게 달아주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버너드 쇼는 즉시에 회답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아가씨! 나는 십분 당신의 희망에 동의를 표시합니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애완동물인〈존경하여마지않는 강아지〉와 이 문제를 미리 의논하여 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지 않을가요?》

어리석은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

어느날 마크 트웨인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숨에 유명한 작가로 될것을 몽상하고있는 한사람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였다.

《…듣건대 물고기뼈에는 많은 린이 포함되여있어 뇌의 보양제로서 대단히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물고기를 좋아하며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당신도 역시 물고기를 많이 잡수셨을것입니다. 당신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많은 물고기들가운데서 어떤것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즉시에 답장을 썼다.

《제가 보건데 당신은 한쌍의 고래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7) 토막이야기

18번째 생일

한 음악평론가가 72살이 되였어도 혈기가 왕성한 로씨니를 찾아왔다.

《대가선생님, 여전하십니다. 아직도 젊은 사람들의 뺨을 후려갈길만 하군요. 정력이 넘쳐있습니다.》

로씨니는 그 소리에 껄껄 웃으며 말했다.

《뭐 그리 놀라실거야 있습니까. 나는 요 며칠전에 18번째 생일을 쇠였는데요.》

《대가선생님, 18번째 생일이라니? 무슨 롱담의 말씀을…》

《하 여보게, 내가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윤년의 해 2월 29일 생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나? 거 참 안됐구만.》

실지로 로씨니의 생년월일은 1792년 2월 29일이였다.

로신의 리발값

1926년 가을 어느날,

아모이의 한 리발관에 허름하게 차린 중년사나이가 나타났다.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다부산자, 물날은 신발, 어느모로 보나 초췌해보이는 사나이는 리발걸상에 올라앉자마자 조는듯 깊은 상념에 잠겨버렸다.

그가 바로 군벌당국의 탄압을 피해 아모이에 이주하여 일시 아모이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국의 로동계급혁명작가 로신이였다. 이 순간에도 로신의 머리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군벌당국의 사환군노릇을 하는 어중이떠중이 반동문인들에게 맵짠 타격을 가할것인가 하는 한가지 생각만이 맴돌아치고있었다.

강철같은 론리와 칼날같은 표현들이 온몸의 신경들을 짜릿하게 자극하며 머리속에 떠올랐다.

이렇듯 사색에 묻혀버린 로신을 생활고에 부대껴 고민하는 소시민으로 단정한 리발사는 시답지 않게 여기며 대충 머리를 깎아주고는 어깨를 툭 쳤다.

《자, 이젠 일어나오.》

로신은 더 생각할나위없이 주머니에서 지폐 한줌을 뭉청 꺼내여 리발사에게 주어버리고는 사색을 이으며 천천히 리발관을 나섰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을무렵 리발관에 로신이 또다시 나타났다.

전번에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보수를 받았던지라 리발사는 없는 친절을 다 보이며 무려 두시간가까이 로신을 리발걸상에 붙들어두었다.

그리고는 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기대하며 조심스레 리발이 끝났음을 여쭈었다.

그런데 로신이 내놓은 리발값은 정해진 액수그대로가 아닌가.

눈이 휘둥그래진 리발사에게 로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천연스레 말했다.

《전번에 당신이 나의 머리를 대충 깎아주었기에 나도 돈을 세지 않고 대충 주었댔소.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하도 깐깐하게 깎아주기에 나도 돈을 깐깐히 세여주는것이요.》

로신의 말에 리발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말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사실 이때 로신은 문학인들과의 긴급면담을 앞두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번에 머리를 빨리 깎아주던 이 리발사에게 들렸던것이다. 리발사의 소시민적근성에 침을 뱉으며 로신은 늦어진 시간을 메꾸기 위해 다급히 리발관을 나섰다.

5. 군사가들의 기지와 일화

《현대전에서 전투는 지휘관의 싸움이며 지휘관의 싸움은 곧 머리싸움이다.》 **김 정 일**

군사가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과정에 기발한 작전전술적예지와 령활한 림기응변을 발휘하였으며 슬기로 빛나는 군사가다운 풍모와 품성도 보여주었다. 군사가들은 불과 불이 맞붙고 철과 철이 부딪치는 치렬한 격전속에서도 기지로운 해학과 유모아로 전투원들을 고무하고 적들을 신념과 의지로 이겨나갔다. 이러한 군사가들의 기지는 세계전쟁사를 빛나게 장식하는 일화들을 수없이 남기였다.

1) 군사가들의 작전전술적예지

쥬꼬브의 돌파전법

돌파전법은 이전 쏘련의 유능한 지휘관이였던 쥬꼬브의 실력에서 특기라고 말할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종심으로 종장배치된 밀집방어에 대한 돌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모든 나라 군사전문가들이 이 돌파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기에서도 특출한 것은 쏘련군지휘관 쥬꼬브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기간 쏘련군은 전략적작전 50여차, 전선작전 250여차, 집단군작전 1 000여차, 계 1 300여차의 작전을 진

행하였는바 그의 대부분은 돌파작전이였다.

이와 같은 돌파작전과정을 통하여 쥬꼬브는 자기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난 전쟁들을 정확히 총화하고 당시로서는 비교적 완성된 돌파전법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쥬꼬브의 돌파전법에서 주목되는것은 돌파지역에서 병종호상간에 발생한 타격속도에서의 차이를 대량집중방법으로 해결한것이였다.

원래 전법으로서 돌파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 발생하였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와 방어는 선방어체계로 전환되였고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는 그것이 공간지들이 없는 밀집전선을 형성하고 진지방어의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그것이 점차 종심으로 종장배비되게 되였다. 게다가 방어시설물들은 영구축성물로 요새화되였으며 각종 공병차단물로 강화되게 되였다.

기관총과 먼거리속사포의 출현은 방어의 화력밀도를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현시점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되고 요새화된 방어선들이 형성되였다.

이러한 방어선들로 하여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초기에 벌써 교전쌍방이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였으며 전쟁은 진지전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였다.

진지전의 골목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러한 방어선에 누구든지 파렬구를 내야 하였다.

다시말하여 공간지와 중간지들이 없는 상대측의 익측과 배후를 타격할수 있는 기동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내야 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앞에는 돌파라는 새로운 전법이 나서게 되였다.

보병과 기병을 리용한 돌파작전은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는 참혹한 결과로 끝나고말았다.

그 주요원인은 장거리화된 포병의 타격속도를 보병과 기병이 따라잡지 못한데 있었다. 포병은 앉은자리에서 20～40㎞의 종심을 깊이 타격하는데 상대측의 화력영향하에 주어지는 보병과 기병의 느린 전진속도로써는 그 성과를 제때에 리용하고 발전시킬수 없었다.

포병의 타격속도를 보병의 타격속도가 따라설수 없게 됨으로써

주어진 시간적 및 장소적공간을 상대측은 진지를 강화하고 반돌격과 반타격을 진행하는데 충분히 리용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화학공업이 발전하였던 도이췰란드는 독해물을, 기계공업이 발전하였던 영국에서는 땅크라는 새 무기를 만들어 돌파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이 무기도 큰 은을 낼수 없었다.

이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은 마지막까지 진지전의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전쟁을 결속하게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땅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장갑무력을 기본으로 하는 《전격전》을 들고나왔다.

쏘도전쟁초기 이전 쏘련군은 도이췰란드군의 《전격전》의 피해를 여러차례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였고 마침내 반공격단계에 이르러서는 쏘련군도 대규모의 땅크기계화집단과 그를 지휘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것은 이 시기 들어와서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와는 반대로 땅크, 기계화집단의 타격속도를 포병이 따라서지 못하게 된것이였다.

도이췰란드군에서는 이 문제를 비행대의 강력한 직접지원으로 해결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 쏘련군에는 그럴만한 비행대력량이 없었다.

만약 포병이 땅크의 타격속도를 따라서지 못한다면 돌파는 불가능한것이였다.

이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능숙히 해결한 지휘관이 바로 쥬꼬브였다.

전투의 승패를 규정하는 주요방향에 력량과 기재를 집중하여 적에 대한 우세를 조성하는것과 같은 전쟁법칙과 그 적용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고 특히 돌파전법의 발생과 그 발전력사를 잘 알고있던 쥬꼬브는 자기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포병대량집중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기발한 착상이였다.

즉 땅크의 공격속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포병의 수요를 규정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종전의 낡은 틀과 포병집단편성을

대담하게 마스고 새롭게 포병군을 내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량집중된 포병들이 땅크의 공격속도에 맞게 서로 교호식으로 또는 뛰여넘는 방법으로 따라가면서 화력호송을 하여줄수 있게 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포병의 화력호송을 기본으로 하는 《포병공격》, 병렬연신사격까지 나오게 되였다.

포병대량집중의 방법으로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 땅크, 기계화부대들의 타격력을 호송하도록 하는 이 쥬꼬브의 돌파전법은 당시 쏘련군의 기본전법으로서 쏘도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묘지우의 고양이

이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안경을 낀 도이췰란드장교가 쌍안경으로 전방에 있는 적진지를 살펴보고있었다. 멀리에 묘지같은것이 보였는데 고양이가 그우에 앉아 해빛을 쪼이고있었다.

《이상한데. 저놈의 고양이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해빛을 쪼이군 하는데 오늘까지 벌써 닷새째야. 혹시 저 묘지에 무엇이 있지 않을가?》 안경을 낀 장교가 묻자 그옆에 있던 털보장교가 말했다.

《들고양이겠지 뭐.》

《아니야, 들고양이는 절대로 낮에 나다니는 법이 없어. 더우기 포성이 울리는 진지에 나타날리가 만무해. 저것 봐, 얼마나 고운가!》 그는 이렇게 말하며 털보에게 쌍안경을 넘겨주었다. 털보가 쌍안경으로 바라보니 아닌게아니라 보시시한 고양이의 털이 해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고 눈알은 진주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였다.

《전쟁시기에 저런 귀한 고양이를 가지고 노는자는 결코 하급장교일수 없어. 그런 놈들은 고양이를 가지고놀 시간적여유도 없거니와 상급에서도 허용하지 않을거야. 내 추측에는 저 묘지부근에 프랑스군의 지하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것 같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나서 이 사실을 상급에 보고하였다. 도이췰란드군 지휘부에서는 그 지대에 6문의 포로 집중포화를 들씌우게 하였다.

묘지부근에 있던 프랑스군지휘부는 도이췰란드군의 포사격에 몽땅 녹아나고 그토록 아름답던 고양이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돈강도하작전

1942년 11월 이전 쏘련군은 쓰딸린그라드(당시)의 서쪽주변에 집중된 도이췰란드군 제6군과 제4땅크군단을 포위하기 위하여 《우란》이라는 명칭을 단 반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쏘련군 서남전선군과 돈전선군은 11월 19일에, 쓰딸린그라드전선군은 11월 20일에 반공격으로 이전하여 깔리츠구역에서 련합하여야 하였다.

서남전선 제5집단군 제26땅크군단은 작전의 총적인 주타격방향에서 행동하는 기동집단으로서 작전 1일에 돌파에 진입하여 작전 4일만에 깔리츠구역에서 쓰딸린그라드전선기동집단과 련합하여야 하였다.

1942년 11월 19일 서남전선군은 공격으로 이전하여 신속히 적의 전술적방어지대를 돌파하고 제5집단군 제26땅크군단을 돌파에 진입시켰다.

그리하여 제26땅크군단은 로므니아군 제3군의 방어를 신속히 돌파하고 작전적종심으로 들어섰다.

군단장 루친은 침착하고 사유에서 매우 론리적인 기지가 있는 땅크지휘관이였다.

도이췰란드군의 작전적예비대인 제48땅크군단의 반타격까지 격퇴한 쏘련군 제26땅크군단앞에는 마지막장애물인 돈강이 가로놓여있었다.

돈강을 어떻게 넘는가 하는것은 땅크군단앞에 나선 임무수행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되였다.

강은 넓고 깊었으며 여울도하장은 없었고 얼음은 아직 땅크빙상도하를 하리만큼 얼지 못하였다.

돈강을 향하여 전진하는 군단땅크종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이 없이 가장 빠른 시간내에 돈강을 도하하겠는가고 생각을 굴리던 루친은 밤에 종대서렬그대로 전진하여 도이췰란드군이 차지하고있는 돈강다리를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밤 3시, 루친은 100대의 땅크들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종대행군대형을 짓고 높은 속도로 도로를 따라 돈강대교를 돌진하도록 하였다.

돈강대교를 지키고있던 도이췰란드군은 질서정연한 대오를 짓고 전조등까지 환히 켠 상태에서 태연하게 접근하는 땅크를 보자 자기네 땅크들이 돈강너머로 퇴각하는줄 알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리하여 쏘련군 땅크들은 위장도 은페도 하지 않은채 총 한방 쏘지 않고 돈강대교를 타고앉음으로써 군단은 물론 차후 제1땅크군단의 돈강도하도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작전 4일인 23일 16시에는 깔리츠에서 쓰딸린그라드부근의 도이췰란드군집단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수 있었다.

이 포위환에는 도이췰란드군 제6군과 제4땅크군의 일부 력량까지 포함하여 도합 22개 사단과 160개 독립부대가 들어있었으며 차후 쏘련군의 반공격 2단계에서의 《싸뚜른작전》과 반공격 3단계에서의 《꿀리쯔작전》에 의하여 포위섬멸되였다.

쏘련군 제26땅크군단장 소장 루친의 결심은 매우 기지있고 론리적인 정확한 결심이였다.

그는 돈강다리를 지키고있는 도이췰란드군의 기도와 가능한 행동성격을 정확히 예측하였으며 놈들의 심리를 기지있게 리용하였다.

도이췰란드군측에서 볼 때 쏘련땅크들이 다리를 탈취하기 위하여 야간공격을 하는 경우 반드시 어둠을 리용하여 은밀히 행동하거나 산개대형을 짓고 화력을 리용하면서 행동하지 차와 땅크들이 불을 켜고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1렬종대로 유유히 죽으러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군단장 루친의 립장에서 볼 때 도이췰란드군 지휘관들의 사고방식과 심리상태, 그로부터 가능한 행동성격을 판단한 후 일반적인 전법상요구를 대담하게 초월하여 과학적이고 기지가 있는 모험을 함으로써 적의 생각을 혼돈시켜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로씨야에서 공민전쟁이 진행되던 때 있은 일이다.

붉은군대의 한 공군부대가 렬차행군을 하던중 기관차의 고장으로 벌판에 서게 되였다.

무개차들의 우에는 수십대의 비행기들이 굵은 바줄에 매여 고정되여있었다.

순간 뜻하지 않게 백파기병들의 공격을 받게 되였다. 결과는 명백해지다싶이했다. 그러나 이 위기일발의 순간 비행중대장이며 기사인 꼬물리니꼬브는 모든 비행기들에 즉시 발동을 걸것을 명령하였다.

비행기로 렬차를 밀어보자는것이였다.

요란한 발동기의 굉음이 울리며 비행기들의 프로펠라들이 돌기 시작하자 렬차는 뜻밖에도 프로펠라가 돌면서 생기는 추진력에 의하여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백파기병들은 기를 쓰고 따라왔으나 조금후에는 그들도 따라올수 없을 정도의 높은 속도로 렬차가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뜻밖의 위험에서 통쾌하게 벗어나게 되였다.

병사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1799년 년로한 쑤워로브가 지휘하는 로씨야군이 이딸리아원정때에 있은 일이다.

신입병사들로 꾸려진 로씨야군부대가 프랑스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이 광경을 지휘소에서 보고있던 쑤워로브는 급히 말을 몰아 도망치는 병사들의 앞으로 달려왔다.

《병사들!

남아들!

적을 유인하라!》고 크게 웨치였다.

신심에 넘친 그의 말은 우선 풀이 죽어있던 병사들을 진정시키였고 마음을 다잡을수 있게 하였다.

총사령관 쑤워로브로부터 된욕을 먹을줄 알았던 병사들은 뜻밖에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게 되자 마치 자기들이 총사령관의 특수임무나 수행하는것같이 느껴지였다.

잠시후 쑤워로브는 말머리를 돌리면서 《병사들! 돌격앞으로!》하고 웨쳤다.

그러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로씨야병사들은 돌아서서 성난 사자처럼 싸움으로써 패전을 승리에로 전환시킬수 있었다.

쑤워로브의 격장법

1790년 12월 11일 로씨야—뛰르끼예전쟁시기 쑤워로브가 지휘하는 로씨야군이 뛰르끼예의 이스마일요새를 공격하던 때였다.

이스마일요새는 두나이강하류를 장악하고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뛰르끼예군의 기본아성이기도 하였다.

도이칠란드와 프랑스기술자들의 방조밑에 축조된 이 요새는 성벽의 높이가 7～9m, 길이가 7㎞에 달하였고 성밑에는 너비 14m, 깊이가 7～12m인 깊은 물홈이 설비되여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있었다.

여기에서는 뛰르끼예군 3만 5 000명이 방어하고있었다.

당시 소장이며 공병기사였던 꾸뚜조브는 주타격방향에서 종대를 이끌고 요새의 가장 견고한 겔리야성문을 공격하였다.

꾸뚜조브는 부대를 이끌고 두차례나 성벽보루에 기여올랐으나 그때마다 뛰르끼예군의 반돌격에 격퇴당하군 하였다.

많은 손실을 보고 또 지칠대로 지친 꾸뚜조브는 자기의 자존심도 망각하고 사령관 쑤워로브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쑤워로브는 지원을 요청하는 꾸뚜조브에게 《격장법》을 쓰기로 하였다. 《격장법》은 장수들을 격동시키는데 쓰는 병법의 하나이다.

얼마후 쑤워로브로부터 련락장교가 도착하여 사령관의 회답봉서를 전달하였다.

봉서를 뜯어 헤쳐보니 명령서가 아니라 임명장이였다.

《꾸뚜조브앞

벌써 이스마일요새점령에 대한 보고는 뻬쩨르부르그에 발송하였음.

귀하를 이스마일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함.

쑤워로브.》

이 임명장을 받아든 꾸뚜조브는 성이 독같이 올랐다.

《사령관아바이가 나를 무엇으로 보는거야!

치마두른 아낙네로 아는것이 아니야.》

야유가 흘러넘치는 쑤워로브의 임명장은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꾸뚜조브의 마음을 건드려 그를 격동시켜놓았다.

《사령관의 도움이 없이도 내 혼자서 겔리야성문을 점령하고야 말겠다.》

터져오르는 마음을 다잡을 사이없이 꾸뚜조브는 부대를 이끌고 단숨에 겔리야성문을 점령하고 끝내 이스마일요새를 함락하였다.

결국 쑤워로브의 기지있는 임명장 한장은 수천명의 예비대를 대신한셈이였다.

총창타격에 대한 명장의 견해

로씨야의 쑤워로브는 보병전술에서 총창타격에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총창으로 깊이 찌르라. 탄환은 빗나가기도 하지만 총창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총창타격에 완전히 익숙되도록 하였다.

이 견해는 당시 쓰이던 보병무기의 전술기술적성능을 현실적으

로 평가한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때의 소총 유효사거리는 80보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대측 보병들은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20초동안에 극복할수 있었으므로 총구로 재장탄하는 소총으로는 20초동안에 한번밖에 발사할수 없었다.

쑤워로브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60～80보이다. 만약 상대측이 일선형서렬을 짓고 60～80보의 거리에 전진하여왔다면 사격은 무의미한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히 진출하여 총창으로 찌를것.》

과학적인 타산과 실천속에서 검증한 쑤워로브의 총창타격은 근대시기의 전투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한 효과적인 타격방법이였다.

나팔로 성벽을 무너뜨린 예리코전투

예리코전투는 B. C. 13세기에 있었다.

이 전투는 사막지대에서 사는 헤브라이사람들이 기름진 카난(지금의 팔레스티나지방)의 중심도시성새 예리코를 함락시키는 싸움이였다.

원래 헤브라이사람들은 에짚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의 지휘밑에 에짚트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모세는 헤브라이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10계명》을 만들었다.

야웨신에게서 리상의 땅 카난을 받게 되였다고 굳게 믿은 헤브라이사람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카난땅이 바라보이는 네보산정에 이르러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을 바라만 보았을뿐 숙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사막지대의 사람들이 기름진 땅을 노리고 벌려온 싸움들은 그들의 력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실이다.

모세의 뒤를 이은 오슈아는 부족사람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장만

하게 하고 남성들은 싸움터에 나갈수 있게 무기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가 노린것은 예리코였다. 그는 먼저 두명의 심복을 예리코에 파견하여 그곳 동태를 타진하게 하였다. 예리코사람들은 에짚트를 탈출한 헤브라이사람들의 용맹성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그들이 침입해들어올가봐 몹시 두려워하고있었다. 예리코주민들의 심리상태를 통보받은 오슈아는 그에 맞는 작전안을 꾸미였다. 그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양뿔로 만든 7개의 뿔나팔을 불면서 발구름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예리코의 성벽둘레를 행진하게 하였다.

예리코를 포위하고 7일동안에 걸쳐 진행한 헤브라이군사들의 이 위세는 마침내 이곳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7일만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헤브라이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시가지 주민들을 모조리 족쳐버렸다.》고 씌여있다.

예리코전투는 전쟁사에서 심리전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다.

오슈아는 성벽둘레를 도는 군사들의 대렬앞에 서서 그의 선도에 따라 나팔을 불게 하였다. 이것은 종교적관념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헤브라이군사들에게는 기세를 돋구어주고 반면에 상대측에는 불안과 동요를 더욱 야기시키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예리코성새는 오슈아의 속임수에 걸려들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락되였다.

예리코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단합되지 못한 상대에게는 심리전의 효과가 자못 크다.

싸우지 않고 이길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심리전이다.

예리코전투에서 쓰인 뿔나팔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준다.

포병준비사격의 거짓이전으로 강화된 고지를 점령한 집단군사령관 로쉰

제1차 세계대전시기인 1914년 8월 동부전선에서 갈리찌아작전을 진행하고있던 짜리로씨야군은 여러차례의 포병준비사격의 거짓

이전으로 오스트리아군을 불의에 공격하여 제1참호를 순식간에 점령할수 있었다.

갈리찌아작전은 위스와강과 도네스뜨르강사이의 320∼400㎞의 전선에서 교전쌍방의 100여개의 보병 및 기병사단병력 200만명, 포 5 000문이 참가하여 진행한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작전이였다.

짜리로씨야군 서남전선은 주타격을 리보브방향에 가하고 여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갈리찌아(서부우크라이나의 지명)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짜리로씨야군은 제3집단군, 제8집단군을 동쪽주타격방향에 투입하여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였으나 오스트리아군의 강하천방어를 돌파할수 없었다.

손실은 방대하였다.

몇차례 공격에서 실패한 짜리로씨야군 제8집단군 사령관 로쉰장령은 고심하던 끝에 도식화되여 이미 적에게 널리 알려진 종전의 공격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포병준비사격을 여러차례 거짓이전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적을 해이시킨 다음 불의적인 공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이때 당시까지만 하여도 적용해본적이 없는 매우 기발한 착상이였다.

이리하여 짜리로씨야군은 아침부터 오스트리아군의 제1참호에 지속적인 포병준비사격을 계속 들이댔다. 오스트리아군은 짜리로씨야군의 포병준비사격때마다 견고하게 설비된 영구대피호에 은폐하군 하였다.

이날도 오스트리아군은 짜리로씨야군의 포병준비사격이 종심으로 이전하자 서둘러 은폐부에서 달려나와 진지를 차지하고 사격태세를 취하였다.

그러자 로씨야군은 공격하지 않고 종심으로 이전하였던 포사격을 또다시 오스트리아군의 제1참호에 가하였다. 오스트리아군은 서둘러 은페부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이 무려 4차례나 반복되자 오스트리아군은 다섯번째 포사격이 종심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더는 짜리로씨야군에 속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은페부에 박혀 내다

보지조차 않았다.

감시소에서 이 기회를 노리고있던 짜리로씨야군사령관 로쉰장령은 진짜공격신호를 하달하였다.

로씨야군보병들이 공격으로 이전하자 오스트리아군 신호감시병은 종전과 같이 신호탄까지 쏘면서 진지차지신호를 하였으나 오스트리아군병사들은 또 한차례의 기만극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페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짜리로씨야군병사들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오스트리아군 제1참호에 달려들어 은페부안에 있는 적들을 수류탄과 총창으로 소멸하고 강화된 고지를 손쉽게 점령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오스트리아군방어전선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첫 파렬구가 형성됨으로써 차후 로씨야군의 갈리찌아작전승리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포병준비사격이 종심으로 이전한 다음 공격하는것은 이미 적들에게 잘 알려진 공식화된 전법이다.

그러나 짜리로씨야군 제8집단군사령관 로쉰은 이러한 전법을 매우 기묘하게 반복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전법을 적용할 때와 못지 않게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거미가 내린 《군사명령》

나뽈레옹시기 갈색군복을 입은 프랑스제국군대는 정방형으로 대렬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기세당당히 네데를란드의 중심지인 유뜨레흐뜨로 진격해들어갔다.

《각—각하!》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대오의 전방에서 수십명의 정찰병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원수복장을 하고 위엄있게 서있는 장군앞으로 다가와 멈춰서며 말하였다.

《원수각하! 네데를란드군대가 갑문을 몽땅 열어놓아 앞길이 모두 큰물로 막혀버렸습니다.》

《뭣이? 네데를란드군이 우리를 물에 빠뜨리자구! 부대는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라!》

샤를르원수는 결단성있게 말하였다.

때는 초겨울이라 물에 빠지기만 하면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죽음을 면할수가 없었다.

《빨리 뛰자! 큰물이 밀려든다!》 공포에 질린 프랑스군은 정신없이 뛰였다. 그렇듯 규모있게 행진하던 대오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변해버렸다. 그런데 군사들은 2 000m도 채 못가서 샤를르원수의 새 명령을 받았다. 《후퇴를 멈추고 명령을 기다릴것!》

명령이 전달되자 지휘관들은 흩어진 대오를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오는 죽가마 끓듯 하였다.

《원수가 정신이 나갔나? 큰물이 밀려오는데 후퇴를 멈추다니! 여기서 죽으라는게 아니요?》

《이랬다저랬다 하니 이거 우리 목숨을 가지고 희롱하는게 아니요?》

《처음부터 주관과 독단을 부리니 우리가 실패했지.》

수많은 지휘관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병사들의 원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군령은 엄하여 누구도 감히 거역할수 없었다. 부대는 그자리에 눌러앉아 밥을 해먹고 대렬훈련을 하였다.

이틀이 지나갔다. 그렇듯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큰물은 감감무소식이였다. 곧 출발명령이 내렸다.

《원수의 명령이시다. 부대는 전속으로 전진하여 오늘 오후까지 유뜨레흐뜨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부대는 즉시 출발했다.

부대가 전방에 있는 와르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이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여있었다.

군사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들의 기세는 또다시 충천했다. 부대는 고함을 지르며 얼음이 덮인 강을 건너 유뜨레흐뜨성으로 돌격해들어갔다.

성을 지키던 네데를란드군은 되돌아간줄로만 알았던 프랑스군이 공격해들어오자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만 하였다. 순식간에 성은 프랑스군에 점령당하였다.

승리를 경축하면서 프랑스군사들은 샤를르원수를 둘러싸고 어떤

신비한 전술을 썼는가고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별로 특이한것은 없다. 이것은 거미가 나에게 명령을 주었기 때문이다. 며칠전 후퇴할 때에 너희들은 길가에서 많은 거미들이 실을 토하고있는것을 보았을테지?》

샤를르원수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하였다.

《거미가 실을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군사가 물었다.

《그것은 한류가 닥쳐온다는 신호이다. 거미의 〈통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겠는가? 아무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가지고 희롱하겠는가?》

군사들은 감탄해마지않았다.

함정이 된 점호

1937년 8월 중일전쟁때였다.

어느날 중국군 제19로군 군장 채정개는 병사들에게 자기의 몸이나 겨우 숨길수 있는 좁고 깊은 점호를 파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점호밑바닥에 놓을 자그마한 나무걸상을 한개씩 만들라고 하였다.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좁고 깊은 점호를 팠다.

다음날 전투가 시작되자 채정개는 나무걸상을 디디고 점호에 의거하여 공격해오는 일본침략군을 사격하게 하다가 갑자기 병사들에게 퇴각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나무걸상을 가지고 점호에서 나와 전투를 하면서 서서히 퇴각하였다.

이것을 본 일본침략군은 파죽지세로 달려들었다.

일본침략군이 점호계선에 거의 이르자 채정개는 미리 매복시켰던 인원으로 기관총집중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불의적인 사격을 받은 놈들은 살구멍을 찾아 가까이에 파놓은 점호안으로 급히 뛰여들었다.

키를 넘는 점호안에 빠진 일본침략군은 앞을 내다볼수도 사격할

수도 없었다.

이 순간을 노린 채정개는 반돌격명령을 내렸다.

일본침략군은 순식간에 몽땅 소멸되고말았다.

점호는 그대로 함정이였던것이다.

2) 군사가들의 령활한 림기응변

때늦은 판단의 후과

1812년 로씨야와 프랑스사이의 전쟁때 있은 일이다.

견고한 요새에 들어박혀 완강히 저항하는 프랑스군을 로씨야군으로서는 도저히 점령할수 없었다.

골받이로써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로씨야군에서는 기만행동으로 프랑스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묘안을 생각해내고 실천에 옮겼다.

우선 로씨야군의 력량과 장비의 우세를 요란하게 과장한 통지문을 프랑스군측에 보내면서 무모한 반항을 하지 말고 순순히 투항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문을 받아본 프랑스군요새의 수비대장은 사색이 되여 어쩔줄 몰라하였다.

공포에 질려있는 수비대장의 얼굴을 본 병사들은 기가 꺾이였다.

방금전까지 결사전을 부르짖던 병사들이 하나둘 제 살구멍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알게 된 로씨야군 사령관은 다시한번 크게 놀래워놓을 생각으로 그날밤 여기저기에 우등불을 피우도록 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등불은 계속 늘어났다. 우등불 개수를 세여보던 프랑스군 수비대장은 로씨야군을 정말로 막강한 공격집단으로 판단하였다.

겁을 먹은 수비대장은 마침내 로씨야군에게 투항하고말았다.

이튿날 날이 밝자 프랑스군 수비대장은 자기네 군사보다 훨씬 적

은 로씨야군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로씨야군의 계책에 속았다는것을 알고 제 얼굴에 주먹질을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고사포의 기발한 리용

1941년 가을 모스크바부근결전때 있은 일이다.

도이췰란드군은 이전 쏘련군에 반땅크무기가 없다고 하여 방어에서 반땅크방어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인정된 곳으로 집중적으로 땅크를 들이밀었다.

이때 쏘련군은 이 지대에 배치하였던 고사포로 적땅크를 타격하여 도이췰란드군은 수많은 땅크를 잃고 주저앉았다.

약이 오른 도이췰란드군 지휘관은 이 지대의 고사포들을 소멸하고 기어이 땅크집단을 들이밀 결심으로 이번에는 보병을 내밀었다.

고사포로 전투마당에서 점목표로밖에 안되는 보병만은 쏠수 없다는 배심이였다. 즉 대포로 참새야 잡겠는가 하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병서렬에 대고 직접조준사격을 하는 쏘련군 고사포 포신에서 렵총탄알과 같은 철알들이 우박치듯 날아와 보병들도 주저앉았다.

당시 쏘련군에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예견하고 보병소멸용렵포탄을 만들어 모든 포병부대들에 장비하고있었다.

이것은 역시 그 리치를 따져보면 간단하다.

고사포의 조상은 직접조준사격을 하는 직사포이며 직사포의 조상은 16～17세기 자그마한 자갈돌들을 넣고 보병서렬에 대고 직접 쏘는 렵포였던것이다.

문제는 지휘관들이 주어진 무기를 조성된 정황에 맞게 얼마나 기지있게 리용하는가에 있는것이다.

1개 련대력량의 포로

쏘도전쟁시기인 1945년 4월 베를린작전때였다.

제1우크라이나전선군사령부 련락군관인 소좌 쎄묜은 제13집단군

참모부에 문건을 전달하고 귀로에 올랐다.

그의 일행은 쎄푠과 대담한 까자크출신의 운전사 그리고 호위병 2명으로서 매우 단출하였다.

그들은 미국제찝차 윌리스를 타고 임무를 수행한 가벼운 마음으로 전선사령부가 자리잡은 할바우를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련락군관 소좌 쎄푠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기본전투단위에서 대대장을 하였다.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선사령부 련락군관으로 소환되였던것이다. 그는 우수한 지휘관이였을뿐아니라 전쟁전 모스크바중앙대학 외국어학부 도이췰란드어과 학생으로서 도이췰란드어에도 매우 능통하였다.

경험이 많은 운전사는 지뢰를 밟지 않으려고 땅크가 지나간 무한궤도자리로 차를 모느라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도이췰란드군이 포위되여있는 슈프템베르그수림을 지나다가 그들은 불의에 도이췰란드군과 조우하게 되였다.

정황이 매우 돌발적이여서 그들은 먼저 손을 써볼 사이도 없이 포로될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이 순간 소좌 쎄푠은 주머니에서 흰수건을 펼쳐들고 위풍당당하게 손을 들라고 소리치는 도이췰란드군 패잔병들을 향하여 마주나갔다.

그는 어리둥절해 서있는 놈들에게 바바리야사투리가 농후한 류창한 도이췰란드어로 자기는 쏘련군전선사령부 대표이며 포위된 당신들과 담판을 하려고 찾아왔으니 빨리 지휘관에게로 안내하라고 하였다.

신분을 확인한 결과 정말 요란한 전선사령부 신임장(당시 련락군관들은 이러한 신임장을 가지고있었음.)을 가지고있는 당당한 전선사령부대표였다. 놈들은 그를 자기의 지휘관에게로 안내하였다.

슈프템베르그숲속에는 한개 련대이상의 도이췰란드군이 있었는데 이놈들은 어중이떠중이들로서 자기 부대와 지휘관을 잃고 포위된 숲속에서 헤매는자들이였다.

이들의 지휘관은 부대를 잃어버린 도이췰란드군 사단장이였다.

담판이 시작되자 쎄푠은 강경한 자세에서 당신들은 포위속에 있다는것, 나는 당신들을 투항시킬 임무를 받고 찾아왔다는것, 포로되면 급식조건을 비롯하여 모든 편의를 도모해준다는것, 반항하면 다 죽는다는것에 대하여 찍어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절망속에 빠져 헤매던 이자들은 즉시 쎄푠의 요구를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포위될번한 련락군관 소좌 쎄푠은 어려운 정황을 역전시켜 오히려 전선사령부대표로서 도이췰란드군 1개 련대력량을 포로하여가지고 돌아올수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기지

알렉산드로스는 B. C. 4세기 오늘의 발칸반도에 존재하였던 마께도니아의 왕이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매우 대담하며 결단성이 있었다고 한다.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의 학습정형과 지적발전상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돌리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군 하였다.

이때마다 나라의 원로들이 한데 모여 시험문제를 정하고 왕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풀도록 하였다.

한번은 이런 시험문제가 제시되였다.

그것은 두대의 수레를 마주 세우고 바줄로 얼기설기 도저히 풀수 없게 비끄러매놓고 왕과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잠간사이에 두 수레를 떼여놓으라는것이였다.

어린 알렉산드로스는 아무리 보아야 그 바줄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분간할수 없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생각해보았다.

저 바줄을 풀라는것은 수레를 서로 떼놓자는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풀것이 있는가.

바줄을 잘라버리면 수레가 서로 떨어질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알렉산드로스는 옆에 차고있던 칼을 뽑아 그앞에

서 결단성있게 바줄을 내리쳐 잘라버리였다.

이것을 지켜보고있던 필리포스 2세와 원로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어리지만 명철한 판단력과 결단성있는 행동을 하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놀랐다고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용감성과 기지

어렸을 때 있은 일이였다.

왕인 아버지가 말을 보내여왔는데 매우 잘 생기고 체격이 좋으며 날랜 준마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사나운지 도무지 그 말을 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겨우 안장우에 올라앉는다 하여도 얼마 못가서 다 떨어지는것이였다.

저 말이 왜 저렇게 사납고 안절부절 못하는가 하고 생각을 굴리던 알렉산드로스는 그 원인이 다름아니라 저 말이 지금 해빛에 비쳐진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서 저렇게 놀라 기승을 부리는것이라고 제꺽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로스는 그 말을 끌어내여 해빛을 마주 향해 세운 다음 그우에 올라앉아 힘자라는껏 몰아댔다.

알렉산드로스를 태운 말은 쏜살같이 지평선을 향하여 사라졌다.

말에서 떨어져 상하지 않겠는가고 다들 걱정을 하고있는데 맥이 쑥 빠져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그 말을 타고 알렉산드로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주변사람들은 다 탄복하였다고 한다.

정황에 민감한 지휘관

지휘관들은 누가 찾아와 보고나 할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황조건들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그속에서 문제점을 민감하게 찾아낼줄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절정에 도달하였던 1942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팔로군의 어느 한 중대가 소유라는 마을의 탈곡장에서 아침체조를 하고있었다.

중대장 강화는 전투속에서 성장한 나이가 지숙한 중년으로서 항상 주변에 조성된 객관적정황속에 자신의 몸을 푹 잠그고 예리한 지각으로 문제점을 민감하게 찾아내는것이 체질화된 지휘관이였다.

갑자기 중대장이 제1소대장을 불러 마을의 서쪽인 대유춘에서 올라오고있는 결혼식행렬을 가리키며 무슨 이상한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소대장이 자세히 눈여겨보니 꽃가마뒤로 사람들의 한무리가 따라오고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결혼식행렬이였다.

소대장이 의심되는것이 없다고 하자 중대장 강화는 《동무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식때 꽃가마를 탈수 있다고 보오?》라고 물었다.

소대장은 《물론 없지요.》라고 대답하였다.

또다시 중대장이 《결혼식치고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지 않소?》라고 묻는것이였다.

소대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결혼식행렬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결혼식행렬이라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오는것이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소대장은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중대장은 긴장한 얼굴로 결혼식행렬을 주시하면서 《소대장동무, 이상한것은 그뒤에 있소. 지금은 가을걷이가 한창인데 결혼식을 할 집이 있을상싶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중대장 강화는 이것이 일본군이 소유마을을 습격하기 위하여 대상물로 접근하는 기만행동이라는것을 즉시 간파하고 3소대는 그자리에서 태연하게 계속 체조를 하도록 하고 1, 2소대는 신속히 전투준비시켜 갈숲에 매복시켰다.

일본군은 자기들의 책략이 성공하였다고 생각하고 탈곡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까지 와서 꽃가마를 내려놓은 다음 무장을 꺼내들고 소유마을로 달려들었으나 팔로군의 매복에 걸려 그 절대다

수가 몰살당하였다.

교활한 적들과의 대결에서 가장 어려운것은 정황을 민감하게 정확히 포착하고 판단하는것이다.

정황은 언제나 자욱한 안개속에 묻혀있기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들은것도 가짜일수 있다.

그러므로 직감과 단순한 사유에 의거하면 적에게 속히울수 있다.

때문에 중대장 강화처럼 정황을 항상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그의 본질을 꿰뚫어볼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지휘관만이 안개속을 헤치고 적의 진속을 알아낼수 있다.

정황에 예리한 군단장

쏘도전쟁시기 이전 쏘련군이 총반격으로 이전한 1943년 8월 서부전선의 스몰렌스크공격작전때 있은 일이다.

임무를 받고 대기중에 있던 제5군단장 루낀은 상급참모부로부터 작전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전선검열조가 내려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단장 루낀은 사소한 정황도 놓치지 않고 식별해낼줄 아는 예리한 지휘관이였다.

검열조를 맞이하고보니 전혀 모를 사람들이였지만 증명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증명문건들이 다 정상이였다.

작전계획검열그루빠는 곧 검열에 착수하였다.

작성된 작전계획을 놓고 질문과 대답이 분주히 오가는 속에서 루낀의 옆에 앉아있는 검열조의 한 군관이 만족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어 책상을 두드리고있었다.

이것이 곧 군단장의 주의를 끌었다.

극히 사소한 문제에도 매우 예민한 루낀은 그 박자가 도이췰란드의 군가 《승리의 행진곡》이라는것을 알아맞추었다.

루낀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즉시 전투조직을 하여 검열조를 모두 체포하였다.

판명한데 의하면 그들은 도이췰란드군 아브웨르(도이췰란드 군

사첩보기관) 브란덴브르그사단의 특공대간첩들이였다.

이와 같이 군단장 루낀은 사소한 정황까지도 놓치지 않고 페부로 느끼고 기민한 판단을 내릴줄 아는 지휘관이였다.

3) 군사가들의 해학과 유모아

《그늘밑에서 싸울수 있겠군》

테르모필레는 북부그리스에서 중부그리스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곳은 천연의 요새였다.

이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왕 레오니다스의 300명의 용사들이 페르샤의 대군과 맞서 용감히 싸운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

페르샤왕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왔다.

한 군인이 달려와 스파르타왕에게 보고하였다.

《대왕님, 페르샤군이 벌떼처럼 밀려들고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는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습니다. 놈들은 자기들이 쏘는 화살로 해발을 가리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참 잘됐군. 그럼 우린 그 그늘밑에서 싸울수 있겠군.》

스파르타왕은 태연하게 말하였다.

한편 크세르크세스는 테르모필레에 이르러 정찰병들을 파견하였다. 돌아온 정찰병들은 왕에게 스파르타군인들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페하, 스파르타군인들은 지금 아주 평온해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체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빗고있나이다.》

《뭐? 이런 위급한 때에 머리를 빗고있다고?》

《예, 스파르타군인들은 죽기를 각오하면 죽어서도 보기 흉하지 않도록 머리를 빗는다고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길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아니올시다. 스파르타군인들은 죽을 각오로 테르모필레를 지킨다는것이옵니다.》

스파르타군인들은 결사의 각오로 마지막 한사람까지 테르모필레를 지켜 싸웠다.

권력과 명예를 소홀히 한 알라신

중세기 특출한 인물로 기록된 따따르의 유명한 정복자 따메를란(띠무르)이 뛰르끼예황제 바야쎄토를 격파하고 그를 사로잡은 야씨라전투때 있은 일이다.

포로된 뛰르끼예황제가 쇠사슬에 결박된채로 따메를란앞에 끌려왔다.

가련한 바야쎄토를 한동안 찬찬히 바라보던 따메를란은 별안간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승리의 희열을 너무도 소란스럽게 터뜨리는것을 보고 바야쎄토는 더는 참을수 없어 준렬히 꾸짖었다.

《아무리 승리한 장군이라고 해도 이같은 조폭한 행동은 오히려 명예를 더럽힐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하오.》

따메를란은 나무라지 않고 말하였다.

《그대는 내가 당신의 불행을 조소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나는 알라신이 권력과 명예를 얼마나 소홀히 대하였으면 그것들을 당신같은 애꾸 아니면 나와 같은 절름발이에게 주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웃었던것이요.》

식사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나뽈레옹은 시간관념이 철저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였다. 한번은 그가 수하의 몇몇 장군을 가정연회에 초청한 일이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다되였지만 장군들은 오지 않았다.

나뽈레옹은 혼자서 먹기 시작하였다.

장군들이 나뽈레옹의 천막에 이르렀을 때에는 나뽈레옹이 이미 식사를 끝낸 뒤였다.

나뽈레옹은 장군들보고 말하였다.

《제씨들, 식사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을 봅시다.》

몇몇 장군들은 할수없이 배를 출출 곯으면서 작전토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부터 장군들은 일체 회의나 연회에 지각하는 일이 없었다.

나뽈레옹의 세가지 물음

나뽈레옹을 대단히 숭배하던 한 스웨리예인이 나뽈레옹군의 병사로 되였다.

어느날 나뽈레옹이 대렬을 사열할 때였다. 다른 병사들이 스웨리예사람에게 그 위인이 몇가지 문제를 물어볼수 있다고 귀뜀해주었다. 스웨리예사람은 몹시 당황하였다.

나뽈레옹이 묻는 말을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랴 해서였다.

그러는 그에게 나이지긋한 한 병사가 말해주었다.

《나뽈레옹은 늘 정한 순서대로 세가지 꼭같은 문제를 묻군 하오. 그 첫번째 문제는 〈몇살이요?〉이고 두번째 문제는 〈나의 부대에서 얼마나 있었소?〉이며 세번째 문제는 〈내가 지휘한 전투가운데서 어느 전투에 참가했소?〉 하는거요.》라고 하였다.

스웨리예사람은 순서대로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한 답안을 암송하였다. 그것은 《23살입니다. 각하.》이고 《3년이 되였습니다. 각하.》이고 《모두 참가했습니다. 각하.》이였다.

나뽈레옹은 정렬한 대오앞에 서서 만족한 눈길로 병사들을 둘러본 다음 사열을 시작하였다.

그는 미소를 담고 한번은 이쪽을 보고 한번은 저쪽을 보면서 몇마디씩 건네군 하였다. 긴장한 스웨리예사람은 까딱하지 않고 서서 입술만 약간씩 움직이고있었다. 이윽고 그의 앞으로 다가간 나뽈레옹은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나뽈레옹이 첫번째로 《나의 부대에 얼마나 오래 있었소?》라고 물었다. 스웨리예사람은 《23살입니다. 각하.》라고 대답하였다. 몇살이요 하고 물으니 《3년이 되였습니

다. 각하.》하고 대답하였다.

스웨리예사람의 대답은 나뽈레옹으로 하여금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하였다. 이리하여 나뽈레옹은 《네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스웨리예사람은 《모두 참가했습니다. 각하.》라고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또다른 자식들을 낳겠다

이딸리아의 백작부인 까딸리나 스포르싸를 반대하여 이전 신하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성을 포위한 반란자들은 그에게 항복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수중에 있는 그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백작부인으로 말하면 녀장부라 불리울만큼 총을 잡는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 남자 같은 녀성이였다.

백작부인은 성벽꼭대기에 올라가 옷을 걷어올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의 위협앞에 조금도 떨지 않는다. 내 자식들을 죽이면 또다른 자식들을 낳을테다!》

정신나간 장성

1945년 일본군의 패배가 다가오는데 당황한 일본군총사령부는 최후수단으로 가미가제작전을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공군장성이 아직 살아있는 비행사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였다.

《일본군의 영예로운 병사들! 마지막출전의 시각이 다가왔다. 임무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미국군함을 발견하면 그것이 항공모함이든 순양함이든 상관없이 각자는 비행기와 함께 목표물에 내리꽂히는거다. 모두 알만한가? 물을것이 있으면 말하라!》

《있습니다.》라고 뒤에 서있던 자그마한 비행사가 대답하고는 앞으로 걸어나와 장성앞에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말하시오.》

비행사는 손가락을 귀옆에다 대고 빙빙 돌리며 소리쳤다.
《각하, 혹시 정신이 좀 나간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패망직전의 일본군대의 사상정신상태이며 돈에 매인 자본주의고용병들의 보편적인 심리였던것이다.

군단장의 행운

방금 군단장으로 승급한 한 장성이 자기 산하의 어느 한 군수공장을 부인과 함께 돌아보고있었다.
《날 잘 모르겠나요?》 수류탄을 조립하던 한 로동자가 군단장부인을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군단장부인이 퍼그나 낯익은 그 로동자를 이슥토록 살피다가 얼버무렸다.
《중학교때 우리가 함께 밤에 자주 산보를 하던 일이 생각나지 않소?》
로동자가 말하였다.
이때 곁에서 그 말을 듣고난 군단장은 몇발자국을 걷다가 자기부인에게 말하였다.
《나와 결혼했으니 정말 다행이요. 자칫하면 저 로동자의 안해로 될번 했구만!》
《아니, 천만에. 당신은 내 덕분에 정말 행운이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였다면 당신은 로동자가 되고 저 로동자가 군단장이 되였을거예요!》

중대장을 의심하던 안해

안해: 《당신은 군사훈련을 줄 때마다 늘 녀성군인들에게만 붙어있다는데 그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거예요?》
중대장: 《우리 중대에 126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그중 남성들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녀성들이니 그럴수밖에 없지 않소. …》

부련대장의 몸까기운동

몸이 너무 비대해진 부련대장이 군의관에게 물었다.
《어떤 운동을 하면 몸을 까는데 효과가 있을가요?》
《머리를 돌리는 운동을 하십시오. 먼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다음 다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그런데 어느때 운동하는것이 좋을가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권할 때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100번 경례처벌

한 사병이 장교앞을 지나면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교는 성이 나서 사병을 불러세워 엄하게 욕질하였다.
《너는 왜 경례를 하지 않아? 그 처벌로 당장 내앞에서 경례를 100번 하라.》
이때 한 장군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글쎄 지나가며 저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로 경례 100번을 시키고있는중입니다.》
《옳소, 옳아. 그래야 돼. 그런데 사병이 경례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소? 군대야 100번 경례를 하면 100번 맞받아 경례를 받아야 하지 않소.》

영민한 지휘관

어느날 나뽈레옹이 자기 수하의 한 련대장이 무능한 지휘관이 아닌가를 시험해보려고 결심하였다.
나뽈레옹은 갑자기 그 련대장의 앞으로 다가서며 련주포를 쏘듯이 물었다.
《당신네 련대에는 병사가 모두 얼마나 있소?》

《1 225명입니다.》

련대장은 나뽈레옹보다 더 빨리 대답하였다.

《그중 부상자는 몇이요?》

《1 310명입니다.》

이번에도 련대장은 번개불처럼 빨리 대답하였다.

《괜찮아.》

나뽈레옹은 그의 영민한 반응과 정확한 수자에 만족하였을뿐 다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련대장이 영민한지 나뽈레옹이 어리석은지 누가 알랴.

4) 군사가들의 군사가다운 풍모와 품성

지휘관의 배심

1939년 쥬꼬브가 몽골의 하마르다바산에서 싸울 때 있은 일이다.

치렬한 격전을 치른 뒤여서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은폐부안에서 병사들이 다음 차례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체격이 좋고 가슴이 쩍 벌어졌으며 머리가 류별나게 크고 얼굴이 둥근 장령이 은폐부에 들어섰다. 아침세면을 방금 하고 들어왔는지 두볼은 불깃불깃하였고 군복은 단정하였다. 쥬꼬브였다.

이때 갑자기 두명의 정찰병이 헐떡거리며 뛰여와 다급하게 보고하였다.

《장령동지, 일본군의 많은 력량이 반돌격을 준비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순간에 은폐부안엔 무거운 정적이 깔렸다.

(정찰자료와 내가 확인한데 의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저항이 아닌가. 혹시 정찰병이 기만당하지나 않았는지…)

쥬꼬브는 긴장해진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병사들을 보면서 힘주어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일본놈들의 반돌격은 전혀 불가능하오. 적들은 현재 그 어떤 반돌격도 할 힘이 없소. 마음놓고 푹 쉬오.》

은페부안의 긴장한 분위기는 삽시에 일소되였다.

그 어떤 대적이 들이닥친다고 해도 끄떡없는 자기 지휘관의 여유작작한 모습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배심이 자리잡고있었다.

쥬꼬브는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언제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배짱을 가진 진짜배기싸움군이였다.

비류조브의 주인다운 높은 책임성

이전 쏘련원수 비류조브는 쏘련영웅이며 말년에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장을 한 책임성이 높은 지휘관이였다.

도이췰란드군이 1941년 6월 쏘도국경에 자기 무력의 전개를 완료하였을 때였다.

당시 이전 쏘련국방인민위원부와 총참모부는 도이췰란드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여서라도 1942년 지어 1943년까지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경지대에 배치된 쏘련군부대들에 적들에게 적대적감정을 불러일으켜 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비류조브의 제132보병사단에서는 쏘도전쟁이 개시된 날인 1941년 6월 22일 일요일에 사단적인 체육대회를 조직하였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사단장 비류조브의 심중에 자리잡고있는 불안감은 점점 더해졌다.

경계근무의 보고와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도이췰란드군은 이미 2주일전에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도 응당 국경에 전개하여야 하겠는데 총참모부와 군단에서는 비상소집조차 못하게 하지 않는가. 전쟁은 바로 눈앞에 있다. 이 엄연한 현실속에는 그 어떤 공백이나 미미한 구멍이 생긴것이 명백하다.

물론 사단장으로서 나에게는 자기의 임무범위에서 엄격한 책임

한계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이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 엄혹한 현실속에서 주인답지 못하게 책임한계나 가르면서 앉아있어야 하겠는가? 아니다, 가만 있으면 조국과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내가 말아안아야 한다, 그래서 지휘관이 아닌가.

판단력이 이와 같이 칼날같은 비류조브는 자기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하였다.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립장이 우유부단한 사단의 일부 책임일군들은 상급의 승인도 없이 사단을 비상소집시킨데 대하여 사단장에게 책임한계를 따지면서 강하게 추궁을 들이대였다.

이때 비류조브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은 내가 지겠소. 군사재판을 받아도 내가 받겠소.》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당시에 자그마한 사단의 사단장으로서 이러한 용단을 내린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얼마 안있어 전쟁이 일어났고 제132보병사단은 상급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에 따라 제일 먼저 국경지대로 진출할수 있었다.

비류조브의 높은 책임성과 결단성, 요구성은 1943년 4월 그가 남부전선 참모장으로서 돈바스공격작전을 지휘할 때도 찾아볼수 있다.

이때 도이췰란드군 15개 사단과 맞서 공격하던 남부전선의 제2집단군 기계화군단은 유리한 정황속에서도 멈추어서게 되였다.

전선참모장이였던 비류조브는 기계화군단이 멈추어서게 된 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한 폭격속에서도 직접 기계화군단지휘소로 달려갔다.

알고보니 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기계화군단장은 전선사령관으로부터 공격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것이였다.

그러나 당시 정황은 변화되여 공격을 요구하였다. 그렇다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전선사령관에게 다시 물어볼수도 없었다. 비류조브는 즉시 결단성있게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기계화군단장에게 공격을 계속할것을 명령하고 후에 이에 대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남부전선은 또다시 공격에로 넘어가 돈바스를 해방할 수 있었다.

이때 전선사령관은 참모장이 결단성있게 문제처리를 잘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법앞에 나설지언정 자기가 책임지는 고워로브

쏘도전쟁시기 레닌그라드(당시)전선사령관이였던 대장 고워로브는 책임성이 높고 결단성있는 지휘관이였다.

1944년 이전 쏘련군은 전전선에 걸쳐 하기공세에 들어갔다.

이 시기 레닌그라드전선도 도이췰란드군의 800여일간에 걸치는 간고한 봉쇄를 해소한 후 공격에로 넘어가 까렐리야지협을 련결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벌리였다.

전선은 6월 9일 적의 방어를 돌파하여 6월 12일에는 놈들의 기본방어계선에 바싹 접근하여 완강한 저항에 조우하였다.

이때 이전 쏘련군 총참모부에서는 공격을 중지하고 2～3일동안 휴식기를 두어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재차 공격으로 이전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것은 그럴만도 하였다. 까렐리야지협을 련결하기 위한 작전을 이전에도 몇번 시도하였으나 매번 도이췰란드군의 마지막방어계선에 와서 힘이 진하여 실패하였던것이다.

때문에 심각한 이 작전을 충분한 준비밑에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전선사령관 고워로브는 조성된 정황을 은밀히 연구하는 과정에 2～3일간의 작전적휴식은 도리여 적들에게 숨돌릴수 있는 틈을 주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여된 임무를 하루빨리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적휴식을 포기하고 주타격방향을 신속히 좌익으로 전환한 다음 적의 방어가 제일 약한 쁘리보드스끄도로를 따라 정지함이 없이 일거에 공격할것을 결심하였다.

이것을 모험이라고 평가한 총참모부에서는 큰 물의가 일어났다.

그러나 고워로브는 자신의 확고한 주견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총참모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이 날아왔다.

《레닌그라드전선사령관 앞.

작전의 결과에 대하여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에서 결심을 승인한다.

총참모부.》

그때 당시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은 공격작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군사재판정에 나선다는것이였다.

총참모부의 요구를 접수하면 비록 공격작전에서 실패한다고 하여도 고워로브는 책임한계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그러나 고워로브는 지금 적들에게 시간적여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그 후과가 두려워 지휘관으로서 응당 말아안아야 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였다.

그는 작전의 결과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군법앞에 나서겠다는 각오와 담력으로 공격을 계속 밀고나갔다.

레닌그라드전선의 타격방향의 신속한 전환과 정지함이 없는 공격은 도이췰란드군에게 있어서 전혀 예견할수 없었던 불의적인것이였다.

그리하여 레닌그라드전선은 수립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고 드디여 까렐리야지협을 련결할수 있었다.

병사들과 마지막까지 운명을 같이한 뻬뜨롭스끼

1941년 6월 쏘도전쟁이 개시된지 며칠이 지난 후였다.

이전 쏘련군 총참모장 쥬꼬브의 방에는 군인다운 몸매에 체격이 우람한 군관이 군단장으로 임명되였다는 보고를 한 다음 차렷자세를 하고 그냥 서있었다. 보고를 받은 쥬꼬브는 얼굴에 미소를 담고 롱담인지 진담인지 알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63군단장동무, 동무는 왜 군사칭호를 상좌밖에 못달았소?》

《총참모장동지, 저는 4번 군사재판을 받고 4번 강직되였던 사람입니다.》

《다 알고있소. 정세가 어려우니 충실히 복무해주기를 바라오.》

《명심하겠습니다.》

상좌군단장, 이 사람이 곡절많은 인생을 뒤에 남기고 다시 전선으로 파견되는 쏘련군 서부방면군 제13집단군 63군단장 뻬뜨롭스끼상좌였다.

당시 도이췰란드군의 주타격방향에서 싸우던 서부방면군의 처지는 매우 어려웠다.

쏘련군 서부방면군 제3집단군, 제10집단군, 제13집단군은 도이췰란드군의 포위속에 들어가게 되였다.

뻬뜨롭스끼의 제63군단도 이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당시 쏘련군 총참모부는 혼란속에 빠져 방면군사령관들과의 련계는 고사하고 그들의 행방조차 모르고있는 형편이였고 방면군관하 집단군들의 처지도 이와 같았다.

지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진 군단을 놓고 뻬뜨롭스끼는 생각이 복잡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 집단군사령관으로서 다년간 군대생활에서 축적된 로숙한 경험과 높은 군사적안목으로 조성된 정황을 분석하고 자체로 상급의 의도에 맞는 결심을 채택하였으며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군단을 지휘하여 주동적인 방어와 견제행동으로 조직적인 퇴각을 진행하였다.

결과 적들의 수많은 력량을 자기에게 끌어붙임으로써 총사령부가 위급한 정황을 수습하고 전략적예비대를 투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총사령부에서는 이 방향에서 위급한 사태가 수습되는 단계에 들어가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였고 군단장 뻬뜨롭스끼를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되였으며 높이 평가하게 되였다. 그후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자기 군단뿐아니라 주변에 흩어졌던 쏘련군부대들을 다 지휘하여 도이췰란드군의 포위를 탈출하여 퇴각하던중 뻬뜨롭스끼는 1941년 8월 챠우싀서남지역에서 또다시 도이췰란드군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당시 뻬뜨롭스끼에게는 근 6만명에 달하는 집단군력량의 병사들

이 있었다.

정황은 헤여나올수 없으리만큼 매우 위급하였으나 뻬뜨롭스끼는 적들의 철통같은 포위속에서도 락심하지 않고 다시금 포위를 탈출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명령서를 가진 방면군사령부 련락군관이 비행기를 타고 포위된 뻬뜨롭스끼군단에 나타났다.

명령서를 받아쥔 뻬뜨롭스끼는 당장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명령서에는 뻬뜨롭스끼를 새로 편성하는 집단군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것과 명령을 받은 즉시 부대를 참모장에게 인계하고 련락군관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방면군사령부에 도착하라는것이였다.

당시 총사령부에서는 조성된 정황으로부터 뻬뜨롭스끼군단의 포위탈출은 불가능하며 다만 그들이 마지막순간까지 싸우면서 적의 공격을 지체시키는 길밖에 어쩌는수가 없다고 보았다.

총사령부는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했던 당시 조건에서 뻬뜨롭스끼만이라도 데려다가 새 직무에 임명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냥 나오라고 하면 그가 나오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던 총사령부에서는 명령서를 내려보내여 새로 조직하는 집단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던것이다.

이런 경우 명령을 접수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모든것이 뻬뜨롭스끼에게는 유리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뻬뜨롭스끼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병사들을 버리고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것은 죽음의 마당에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치는것과 같은 비렬한 행위이다. 집단군사령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직무가 차례진다 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 나는 지금 근 6만명의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진 지휘관이다. 지금까지 포화속을 함께 헤쳐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는가. 오늘에 와서 그들을 버린다면 래일의 나는 죽은 인간이나 같다. 조국과 인민 그리고 력사가 나를 심판할것이다. 아무리 명령이라고 하여도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도 병사들과 같이 살고 죽어도 병사들과 같이 죽어야 한다. 이

것이 내 심장이 가리키는 길이다. 총사령부에서도 나의 이 심정을 알면 충분히 리해하여줄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군단장 뻬뜨롭스끼는 군단이 포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명령집행을 연기하여줄것을 방면군사령부 련락군관에게 제기하고 특별비행기에 자기대신 생명이 위급한 중상자들을 태워보냈다.

그후 뻬뜨롭스끼의 지휘밑에 돌파는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군단은 포위속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나 뻬뜨롭스끼는 군단을 포위속에서 탈출시키는 전투를 지휘하다가 전사하였다.

죽음의 격전에서 승리한 비결

이전 쏘련원수이며 3중영웅인 부존늬는 90살까지 군사복무를 한 이름있는 지휘관이였다.

부존늬는 10월혁명이 승리한 이후 돈지방에서 쏘베트주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공헌하였다.

그는 백파도당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즉시 기병대를 조직하여 싸웠는데 이것이 1918년에는 정규기병대로 되여 련대, 려단, 사단, 군단, 집단군으로 증편되였다.

때문에 부존늬는 쏘련붉은군대 창건자의 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부존늬의 명성은 제니낀도당의 주력을 이루고있던 마몬또브기병군단을 소멸한것으로 하여 더 높아지게 되였다.

1919년 9월 부존늬의 제1기병군단은 붉은군대의 후방으로 뚫고들어와 기동교란작전을 벌리던 제니낀의 마몬또브기병군단을 추격하였다.

부존늬 제1기병군단의 맹렬한 추격으로 더는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마몬또브의 기병군단은 할수없이 뒤로 돌아서서 최후결전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워로네쥬로부터 멀지 않은 벌판에서 두 기병군단이 서로 맞붙게 되였다. 참혹한 살륙전을 하루 앞둔 두 군단은 만단

의 준비를 갖추었다.

모든 전투원들의 머리속에는 래일이면 온 들판이 사람과 말의 주검과 피로 뒤덮이게 되리라는 예감으로 하여 저도모르게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 전투에서 자신이 살아남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이튿날 아침, 이 들판에서의 기병육박전은 괴상하게 시작되였다.

칼을 빼들고 서로 마주 달려오는 두 기병군단은 함성도 지르지 않았고 그저 침묵속에서 기계적으로 높은 속도로 달리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두 집단은 얼굴이 마주보이는 거리에 와서는 저절로 멈추어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노려보기만 하는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둔 병사들의 심리였다.

정적, 침묵.

이때 제1기병군단의 대오앞으로 칼을 높이 추켜들고 달려나오면서 웨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군단장 부죤늬였다.

《붉은군대 병사들!

형제들!

얘들아,

견장을 단 우리의 원쑤가 바로 앞에 있다.

조국을 위하여,

쏘베트주권을 위하여,

나를 따라 앞으로!》

그의 웨침 한마디에 병사들의 굳어졌던 마음은 순간에 쭉 풀어지고 신심에 넘쳐 군단장의 뒤를 따라 달려나가 2개의 기병사단을 단숨에 소멸하였다.

이처럼 부죤늬는 가장 엄혹한 시기에 병사들이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본다는것을 잘 알고 그들의 모범이 될줄 알았다.

바로 여기에 죽음의 격전에서 승리할수 있은 비결이 있었다.

한번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주덕

주덕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선 중국의 로혁명가로서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으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당과 혁명에 충실한 유능한 지휘관, 정치일군이였다.

주덕은 1886년 사천성 의룡현의 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10살에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자랐다.

그는 1906년 20살에 성도고등사범학교 체육과를 나오고 1909년에 운남륙군강무당(운남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한 후 운남군대의 중대장, 대대장, 려단장으로, 1921년에는 곤명시 경찰청장으로 등용되였다.

당시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과 중국공산당의 창건 등 사회정치적사변들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그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마침내 공산주의에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였다.

열혈청년 주덕은 1922년 상해에서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진독수를 비밀리에 만나 공산당입당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좌경기회주의자였던 진독수에게서 모욕과 버림을 받았다.

운남군대의 고급지휘성원이며 큰 도시의 경찰청장인 당신이 로동계급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중국혁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공산당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혁명을 할수 있으며 특히 중국공산당안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걱정말고 빨리 돌아가라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욕과 개인감정으로 자기 신념을 저버릴 사람은 아니였다.

다시 돌아와 곤명시 경찰청 청장을 계속하면 찬란한 승진이 앞에 있고 부귀영화도 누릴수 있는 그였지만 자기의 지난 인생과 단연 결별하고 유럽으로 떠나갔다.

유럽에서 그는 당시 중국공산당 프랑스지부 선전부장으로 활동

하던 주은래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이렇게 일단 공산주의를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인 이후 사소한 동요도 없이 그는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1926년 귀국하여 북벌전쟁에 참가하였던 주덕은 남창군관학교 교장, 남창시 공안국장으로 사업하였으며 1927년 8월 1일 남창폭동의 지도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주덕은 모택동이 내놓은 혁명로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를 적극 지지하여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주덕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정강산혁명근거지로 모택동을 찾아가 그의 부대와 합류하였다.

그는 제4군을 편성하고 주덕은 군장으로, 모택동은 정치위원으로 되였다. 이렇게 되여 중국의 로농홍군이 창설되였다.

그후 주덕은 제1방면군 총사령관으로서 혁명근거지를 《토벌》하기 위한 장개석의 포위공격을 분쇄하고 계속하여 2만 5천리장정에 참가하였으며 항일전쟁시기에는 국민혁명군 팔로군 총사령관으로서 항일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1946년 국공합작이 파탄되고 제3차 국내혁명전쟁이 개시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그는 부주석 겸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으로 되였으며 1955년 9월에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이와 같이 주덕은 혁명의 첫시기 모욕까지 당하고 버림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곡절많은 인생길에서 한번 다진 맹세를 버리지 않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간 신념이 강한 지휘관이였다.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하룡

한때 장개석의 국민당군대 군단장이였던 하룡은 혁명의 길에 나선 초시기부터 험난한 곡절이 있었으나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혁

명의 한길을 걸음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에 기여하였으며 그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야전군사령관으로, 혁명이 승리한 후 당과 정부의 중요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있었다.

빈곤한 가정에서 출생한 하룡은 어렸을 때부터 험난한 인생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룡은 어렸을 때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호국군이라는 군벌비적단에 들어가 심부름을 해주면서 자랐다. 그러다가 병사, 장교생활을 거쳐 국민당군대의 군단장까지 되였다.

자기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공산당만이 도탄에 빠진 중국을 구원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값있게 살려면 공산당을 따라가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하룡은 단연 장개석과 결별하고 자기의 군단을 이끌고 공산당을 따라나섰다.

하룡은 자기의 제20군단을 이끌고 남창에서 준비하고있는 무장폭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창으로 기동하였다. 주덕, 엽검영 등도 자기의 부대를 기동전개시켰다.

폭동은 면밀히 계획되였고 그 준비를 위한 지휘관들의 회의는 련일 계속되였다.

그러나 제20군단장인 하룡만은 지휘관으로서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리립삼이 하룡을 밉게 본데 있었다. 기회주의자였던 리립삼은 토비나 다름없는 호국군출신이며 장개석국민당군대의 군단장이였다는것, 공산당원이 아니라는것,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배짱꾸러기라는것 등을 근거로 하여 그를 적대시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하였다.

이것은 주은래, 주덕, 류백승, 엽검영 등 폭동지도자들의 의견을 야기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룡은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국민당군대의 군단장으로 그냥 있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다, 여기까지 공산당을 따라왔다가 버림을 받게 되다니, 혁명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죽어도 공산당을 따라가다가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룡의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배짱이 있고 신념이 확고한 하룡은 회의장으로 찾아가 리립삼과 대결하였다.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리립삼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국민당군대의 군단장이다. 나는 장개석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다. 그러나 내가 왜 공산당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공산당이 가리키는 길만이 도탄에 빠진 우리 중화민족을 구원할수 있는 길이기때문이다. 나는 중화민족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죽어도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길에서 죽으려고 한다. 나는 이자리에서 중국공산당이 나를 당원으로 받아줄것을 청원한다.》

이것은 하룡의 신념의 목소리였다.

오래전부터 하룡을 잘 알고있었던 주은래는 그를 지지하였고 그의 보증으로 입당하였다.

그후 하룡은 모택동을 따라 간고한 혁명로정을 거쳐 신사군의 지휘관으로, 야전군사령관으로, 혁명승리후에는 당과 정부의 중요직책에서 마지막까지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였다.

5) 성구와 토막이야기

《산에 앉아 호랑이싸움을 구경하다》

고대중국의 춘추전국시기 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피를 물고 싸웠으나 오래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지켜보던 우둔한 진나라왕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싸움판에 끼여들어 한몫 보려고 하였으나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있었다.

왕이 우물쭈물하고있을 때 한 측근신하가 그에게 옛날에 변장자라는 사람이 호랑이 두마리를 단번에 식은죽 먹기로 잡은 이야

기를 하였다.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두마리의 호랑이가 한마리의 황소를 놓고 피투성이가 되여 맹렬하게 싸우고있었다.

힘이 늘 넘쳐나던 변장자인지라 당장 달려가 두 호랑이를 잡으려고 윽윽하였다.

이를 본 그의 친구가 만류하면서 두 호랑이가 소고기를 서로 혼자서 다 먹으려고 싸우는것이니 약한 범은 물려죽고 센 범도 되게 상할것인즉 그때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도 두마리의 호랑이를 잡을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변장자는 앉아서 실컷 호랑이싸움을 구경하다가 한놈은 죽고 다른 한놈은 운신도 못할 형편에 놓였을 때 식은죽 먹기로 두마리의 호랑이를 다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하는 왕에게 지금 한, 위 두 나라가 서로 죽기내기로 싸우는데 결국 한쪽은 망하고 다른쪽은 기진맥진해졌을 때 공격하면 능히 손쉽게 두 나라를 다 얻을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왕은 사리에 맞는 그의 말대로 하여 두 나라를 손쉽게 집어삼킬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그후 《산에 앉아 호랑이싸움을 구경한다.》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 뜻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얻는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게 되였다. 이렇게 싸움에서도 힘을 믿고 무리로 달려드는 적과는 골받이를 할것이 아니라 묘한 꾀를 써서 적들끼리 싸우게 하는 전법을 써야 한다.

《사자가 이끄는 염소군단이 염소가 이끄는 사자군단을 이긴다》

B.C. 4세기 중엽에 고대아테네국가에서는 카브리아스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군이 맹활동을 벌리고있었다. 그는 B.C. 376년에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알려졌던 스파르타와의 해상전투를 비롯

하여 수많은 전투들에서 련전련승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려 나라를 지키는데서와 국력을 시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전공을 늘쌍 부러워하던 한 장군이 어느날 그와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전쟁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이 로련한 장군은 《사자가 이끄는 염소군단이 염소가 이끄는 사자군단을 이긴다.》고 대답하고는 누가 음미해볼 사이도 없이 인차 화제를 딴데로 돌렸다고 한다.

후세에 그가 한 이 말은 강한 장수밑에는 약졸이 없다는 참으로 뜻이 깊은 내용을 표현하는 성구로 쓰이게 되였다.

까츄사포이름의 유래

까츄사란 이전 쏘련군 한 병사의 사랑하는 딸애의 이름이였다.

그런데 그 쏘련군병사는 전쟁초기에 그처럼 귀여워하던 사랑하는 딸애를 히틀러파쑈놈들에게 잃었다.

그는 늘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전을 벌렸으나 쓰라린 심정을 좀처럼 가실수 없었다. 그러던중 모스크바교외의 반타격전에서 방사포의 대집단이 히틀러파쑈무리에게 온 밤하늘을 뒤덮는 불길로 된벼락을 안기는것을 보고 너무도 씨원해하며 방사포를 그러안고 복수에 맺혔던 울분을 터뜨리면서 《까츄사야, 까츄사야.》하고 련속 자기의 사랑하는 딸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사실이 수많은 쏘련군병사들에게 전해져 련발식방사포가 까츄사포로 불리우게 되였다.

부상당한 장군의 의지

프랑스의 첫 제국시기 장군이였던 모부르는 도이췰란드의 드레즈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눈먼총알에 맞아 한쪽다리를 잃었다.

그를 부축해주려 급히 달려온 련락병은 자기 장군의 참혹한 상처를 보자 억이 막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모부르는 이처럼 끔

찍스러운 부상을 입고도 낯색 하나 달리하지 않고 도리여 울고 있는 련락병을 유모아로 달래였다.

《젊은 친구, 울지 말라구. 오히려 기뻐해야지. 앞으로 장화는 한짝만 닦으면 되니까. …》

차례진 운명을 탓하며 울기보다 차라리 웃으며 미래를 개척하리라, 모부르는 아마 이런 의지를 담아 말했을것이다.

피로식승리

에피로의 왕 피로 2세는 로마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헤아릴수 없는 손실을 보았으나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했을 때 수하장군들이 너도나도 왕에게 축하의 말을 하였다.

피로 2세는 기쁨에 넘쳐있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승리할바에는 차라리 패하는것이 낫다.》

그후부터 지나친 손실을 입으면서 거둔 승리를 가리켜 《피로식승리》라고 하였다.

승리에도 교훈이 깃드는 법이다. 피로 2세는 그것을 깨달은것이다.

패배자의 보고

18세기 유럽에서 왕위계승을 위한 전쟁시기에 있은 일이다.

프랑스원수 빌랴르는 말뿔라끄에서 벌어진 류혈전에서 영국의 유명한 장군 말보리에게 패하였다.

패배자로 된 빌랴르는 생각하던 끝에 말뿔라끄전투에 대하여 왕루이 14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만약 하느님께서 귀하의 원쑤들에게 다시한번 이런 승리를 주신다면 그들은 망할것입니다.》

영국의 승리는 너무도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었던것이다.

명인들이 남긴 기지와 일화들

집 필 교수, 박사 안만히
심 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차경일
박사, 부교수 리병일
박사, 부교수 김경숙
부교수 량층하
편 집 지문용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옥경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2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25일

ㄱ－15079ㄴ 값 150원